



6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6호

(루계 488)



◆◆◆◆◆◆◆◆ 차 례 ◆◆◆◆◆◆◆◆

그날의 낮과 밤에	4
조국으로	5
우리 인민의 귀중한 사상문화적 재보인 백두산전설의 혁신성에 대하여	7
아, 《김정일화》!	11
《김정일화》 송이송이 붉은 꽃이여	11
혁명과 인민에게 바치시는 길	12
어머니의 눈빛처럼	12
향도의 자욱을 따라 (제 3 회)	13
명제해설	16
만경대의 백양나무	17
영원한 상봉의 지점에	17
녀전사의 눈물	18
백두산의 눈	19
왕재산의 봄	31
기발이 속삭이는 소리	34
당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35
생활의 먼 길이 부른다 (외 1 편)	36
벗들의 축복	36
명령	37

쌀을 일며	44
《로동안전》 휘장	44
시대의 성격	45
아기엄마의 사죄	48
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	49
종 소 리	51
작가의 문체	52
건설장에 울리는 웨 침	56
나의 입당을 보증해달라	57
조선의 선언	58
인류에게 보내는 시	59
오늘은 그 물결우에	63
체험의 깊이, 진지한 탐구	64
평성에서	65
샘물은 파도를 부른다	66
나는 미래에 사노라	72
보물의 바다	73
평양의 봄	74
선생님이 받은 꽃다발	75
심오한 철학적 사색의 정화, 뜨거운 정서적 체험의 메아리	76
그 웃음이 고와	78
어느 일요일에	79
느끼바 있어	80
허수아비	80

그날의 낮과 밤에

홍문수

종소리가 몇자
금시 여기로 나오셨는가
창덕학교의 앞마당 희디흰 반석우에
발걸음 멈추신 위대한 수령님

망국의 울분이 파도치던 그때
들고서신것은 엷은 책이었으나
밝은 세상 불러오실 진리의 빛발을
갈피마다 소중히 간직하시고
삼천리 강토를 굽어보시는듯

그 시절 예서 그이의 배움터는
저 한칸 교실만이 아닌
그 첩첩 어둡서린 조국의 하늘아래
넓은 땅 모두가 하나의 학교

《배움의 천리길》 헤쳐오실적에
그이의 안광에 어린것은
몇을길 없이 흐르던 류랑민의 눈물과
배고파 울던 어린이들의 모습이었나니

그 모든 겨레의 피타는 하소를
웅심깊이 간직하신 위대한 심장이
어찌 몇권의
책만을 익히시기 위해 고동치셨으랴!

-조선을 알아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찾자면
인민들이 겪고있는 비참한 처지를 잘 알아야 한다

오, 사슬에 묶이워
구원을 부르는 겨레를 안으시고
잊은적 없으셨던 아버님의 그 말씀!
변함이 없으셨던 배움의 그 제목!

초도 분도 홀리심없이
탐구에 바치신 빛나는 그 시절에
배움의 걸음마와 함께
광복의 뜻 키우신 그날의 낮과 밤에
불멸의 주체사상이 뿌리내리고있었구나
새 조선의 미래가 마련되고있었구나

기다리면 이제 다시
그 종소리 듣게 될듯
정갈한 마당가
티없이 닦인 창이 빛나는 교정

오오, 그날에 지니셨던 위대한 뜻을
이 강산에 활짝 펼치신 위대한 영상앞에
흘러간 력사의 그날처럼
학생복차림의 수령님앞에
오늘은 온 나라가 학생이 되어 서있구나
그날의 수령님 높은 뜻 새기고저...
만대에 그 뜻 빛내여가고저...

조국으로

서봉제

흐르는 별빛아래

누웠다고
잠이 왔으랴
눈 감으면
하많은 추억속에
꿈만이 아롱지던 밤

벼랑길 뚫으며
올라선 곤장덕
머나먼 행군길에
쌓인 잠은 얼마라만

살결같은 잔디밭에 기뻐서 덩굴고
구수한 이깔향기 취해서 더듬으며
고향의 사립문가 기다리는 홀어머니 그 눈빛
흐르는 별빛속에 맺혀와
투사들 잠못 이루던 밤

가슴속에 고이 솟아
못잇던 고향집 추녀아래

지리 덮인 그 암혹을 가시려
꿈속에도 부르면 정다운 산천을
칭칭 옥죄인 그 철쇄를 부시려
장군님 모시고 찾아온 밤 !

정녕 밤이라고 잠이 오랴
백두산야 주름잡던 긴긴 대오
백두설령 헤쳐온 그 자욱자욱
뜨거운 가슴속에 먼저 솟아올라
밝아오는 해돋이여

아, 빼앗긴 조국을 찾으려
단 한번도 감아본적 없는
마음의 눈
누웠다고 어찌사 감으랴
밤이라고 어찌사 감으랴

-곤장덕에서-

누리에 라는 불

잎푸른
황철나무아래
내 생각에 묻혀 걸을 땀
그밤의 충성
이 가슴 울리더니

여기
드넓은 광장
맑게 트인 하늘을 바라보아도
그밤의 화광
천지를 덮는구나

칠칠혹야
오두막에 잤아들던 겨레의 신음소리
지리 밝는 무거운 철갑에
숨이 막혀 허공에 소스라치던
그 무서운 악몽을 사른 불

보천보의 불길

-조선은
죽지 않았다 !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 !

파쑈의 쇠사슬로도
얹맬수 없고
살륙의 총칼로도
가를수 없는 민족의 넋을
조국강산에 메아리로 울려준
위대한 장군님의 선언이여

철쇄에 멎든 가슴
살아 살곳없어
품고 살던 원한의 긴긴 도화선에

한방의 총소리로 불을 달아
삼천리를 흔들어 깨우친
재생의 폭풍이어

투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혁명의 피줄기
자주의 영원한 온기로 덮혀주고있구나

오, 누리에 번져가는 그 해불
저절로 이룰수 없고

-보천보광장에서-

서둘러 떠나간 자욱우에

그밤
눈가에 어리던 화광
키높은 저 창가의 불빛에 실려
웃음으로 쏟아지고

그밤
어둠속에 춤추던 불씨
저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로 피워
별많은 하늘을 한껏 펼쳤구나

터갈린 문턱아래
한탄이 쌓이던곳
뚝대 잃은 인생의 난바다에
생사의 운명이 뒤번지던 이 땅

투사들 계산없이 바친 그 피의 대가로
오늘은 너, 나 우리모두를

가로등 명롱한 유보도길우에
피어웃는 꽃으로 세웠나니

밀림의 긴긴 세월
투사들 가슴속에 품어 가꿔온 꿈
그리면 눈부시던 그 소원 락원으로 솟아
밝은 불빛아래 온밤 잠 못드는
이 거리-

아!
내 사는 나날이
기쁨만을 향해 곧추 뻗은 길이어
행복의 노래안고 내 걷는 이 길을 위해
원췌치는 결전의 길로
투사들은 그밤 서둘러 떠나갔구나!

-보천보 읍거리에서-

약 속

아주 가는길 아니건만
물결은 옷자락 부여잡고
물소리는 아쉬워
자꾸만 발목을 감았던가

또다시 넘고 헤칠
혈전의 길 몇몇천리나
떠나가는 투사들의 가슴가슴에
소리없이 흘러들던 너 가림천

마치도
떠나온 고향집의 박우물
정히 떠안듯이
물통 가득 소중히 채워담은 대원들

가면 그리워 다시금 돌아보고
가면 눈에 밝혀 다시금 굽어보며
새기고 새겨안던 네 물소리

긴 대오앞에 출령이며 발걸음을 재촉해

옹기는 걸음걸음
그저는 떠날수 없었더라
광복의 새날안고 기어이 다시 오마
뚫어넘치는 맹세의 더운 피로
조국의 품에 또다시 남기고간
뜨거운 그 언약

아, 가림천 가림천
그날의 기슭에 내 서니
피로 그 길 열어온 투사들 마음
물결을 타고 이 가슴에 안겨들여라!
그처럼 뜨거운 사랑 심장에 지닐 때
위대한 어머니 조국앞에 다진 약속
그 언제나 자기의 생으로 지킬수 있다고...

-가림천가에서-

우리 인민의 귀중한 사상문화적 재보인 백두산전설의 혁신성에 대하여

윤상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밑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의 20 성상은 일제통치의 암담한 세월에도 동포들의 가슴에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수많은 혁명전설들을 낳게 한 영웅적이고 격동적인 사변으로 가득찬 력사였다.

우리 인민은 백두산마루에 찬란히 솟은 장군별 우리러 끝없는 경탄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불태우며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가지가지 귀중한 전설들을 만들어 전하였다.

당시 국내인민들과 더불어 중국동북지방과 바다 건너 일본의 광범한 동포들속에서도 널리 창조전파되어 오늘까지 전승되어오는 이 혁명전설들을 포괄하여 백두산전설이라고 부르게 된다.

백두산전설은 그의 풍부하고 심오한 사상적 내용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과 새세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업적을 깊이 인식시키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 데 가치있는 정신적 양식으로 되고있다.

최근 4.15 문학창작단에서는 이 귀중한 인민전설들을 발굴정리하여 우선 《백두산전설집》(제1권, 김우경 정리)을 세상에 내놓았는바 지금 독자들속에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설집에 들어있는 54 편의 작품들은 모두 철저한 고증과정을 거쳐 원전적인 성격과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있으므로 백두산전설 전반의 사상예술적 특징과 인식교양적 의의를 리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다른 모든 문학유산들과 마찬가지로 백두산전설도 그의 출현을 절박하게 촉구하는 사회미학적 요구와 성숙된 현실적 가능성에 토대하여 발생하였다.

백두산전설의 발생을 가능케 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인류사적인 전설적 위인의 출현이다.

수천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령도자를 맞이하게 된 당시의 격동적인 력사적 사변을 떠나서는 백두산전설의 출현에 대하여 조금도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규군과 국가적 후방의 지원도 없는 류레없이 간고한 정황속에

서도 일제의 100 만대군을 한손에 거머쥐시고 도처에서 멸적의 불벼락을 안기시였다. 참으로 그때 백두산쪽에서 들려오는 가지가지 희한한 투쟁소식들은 모두가 신비한 환상세계에서만 그려볼수 있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었다. 한입건너 두입건너 전해질 때마다 그 가슴벅찬 이야기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을 한몸에 체현하신 천하무적의 강철의 령장으로 받들어모시려는 당시 인민들의 절절한 기대와 념원이 담긴 환상세계가 보태지면서 점차 전설적인 특성이 부여되게 되었다.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만고의 민족적 영웅이 출현하시는 격동적인 사변과 전민족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경탄의 감정은 필연적으로 비상한 정황, 비범한 인물을 보여주는 전설형상을 창조하도록 추동하였던것이다.

백두산전설은 우리 나라 전설문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대하여 나온 새형의 혁명전설이다.

전설문학은 신화가 자기의 력사적 존재를 마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인류문학사에 등장한 이래 문학의 기타 형태들에 자기의 풍부한 예술적 경험과 성과들을 넘겨주면서 그 어느 서사문학보다도 장구한 발전력사를 아로새겨왔다. 력사가 오랜것만큼 전설에는 민족의 지혜도 많이 침투되었고 또 적지 않게 낡은 틀도 남아있게 되었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전통적 전설문학에는 진보적인것, 인민적인것과 함께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게 섞여있었으며 인민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봉건유교사상, 불교사상 등 본질적 제한성들을 가지고있었다. 력사적으로 굳어져내려온 그 낡은 틀을 깬다는것은 사실상 한 문학종류에서의 혁명과 같은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모든 문학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전설문학도 종래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혁명하는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상응하는 문학으로 개조되어야 하였다. 바로 항일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던 새 현실의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전설문학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할 이 문학사적 사명을 띠고 출현한것이 백두산전설이다.

백두산전설은 그 모두가 실제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있다.

레컨데 전설 《신비로운 전투》는 역사적인 반절구전투 당시 실지 있는 월식현상에 기초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천지조화의 전법을 전설화하였으며 《관희극》은 제 2 차 북만원정 당시 유격대의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은 두 왜놈이 관속에 서로 들어가 숨겠다고 싸움질한 사실을 전설화하고있다. 이밖에도 무송현성전투 당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신 동성서격의 전술을 형상한 《록군대신이 받은 보고서》, 보천보전투후 실지 있는 순사놈들의 희극상을 보여주는 《놀림받은 순사놈들》, 간삼봉전투후에 있었던 호박대가리에 대한 사실을 풍자한 《호박풍년이 들었다》를 비롯하여 모든 작품속에서 실제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가늠해볼 수 있다.

백두산전설은 실제한 역사적 사실에 튼튼히 립각하였을뿐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예술적 환상을 도입하여 사실을 초인간적인 비범한 형상으로 돋구고 있다.

작품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천태만상의 신기한 술법으로 천리길도 단숨에 주름잡아 달리시고 하늘공중을 날으시기도 하며 종이 한장으로 대하를 넘나드시기도 한다. 축지법만 하여도 걷는 축지법, 나는 축지법, 땅을 늘구는 축지법을 비롯하여 아흔아홉가지나 되며 그림 한장을 그려 룡마를 불러오시고 손짓 한번으로 하늘의 벼락을 몰아오시며 분신술, 변신둔갑술도 임의로 쓰신다. 이러한 형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가지 유격전술들을 환상적 수법으로 반영한것이다.

백두산전설은 이와 같이 전설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원만히 갖추고있으면서도 종래의 전설유산들에 비한 뚜렷한 혁신성을 나타내고있다.

무엇보다도 백두산전설은 인류전설문학사에서 처음으로 작품의 중심에 로동계급의 정치적 수령의 숭고한 형상을 모시고 수령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령도의 위대성에 대한 감명깊은 화폭들을 창조하였다.

특히 전설 《백두산의 장군별》, 《신기한 종이장》, 《임원이야기》,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잤나?》, 《신비로운 전투》, 《울기강의 호랑이》, 《아흔아홉가지 축지법》, 《걸어서 3년》,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형상을 직접 화폭의 중심에 모시고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인 형상과제로, 작품의 주제로 제기하고있다.

항일유격대원 혹은 인민의 형상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과 지어 적인물을 풍자적인 주인공으로 설정한 작품들도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의 형상과제가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위대성 문제와 결부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가령 항일유격대원을 주인공으로 형상한 전설 《눈이 있는 총알》을 레로 들어본다면 신입대원 무

학이가 왜놈들을 겨누고 쏘면 쏠수록 대번 백발백중하는 이야기를 펼치였지만 결국 항일유격대원들의 놀라운 사격술 그자체만이 아니라 보다는 그 총알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눈이 있는》총알이라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다.

적들을 희극적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도 대체로 보면 적들의 취약상과 패망상을 보여주면서도 보다는 그 취약성, 패망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에 의한것이였음을 밝히는데 모를 막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직접 모시지 않은 작품들은 그 모두가 다른 인물의 시점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노린데서 차이가 있을뿐 총체적으로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주제방향으로 통일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풍모를 형상함에 있어서 백두산전설이 가장 주목하고있는 측면은 장군님의 비범한 전법과 백전백승의 지략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신출귀몰한 전법과 관련하여 당시 인민들속에서는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잤나>, <종이 한장으로 수만 군사 강을 건는다>를 비롯한 수많은 전설적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졌습니 다.》

백두산전설가운데서 대부분작품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출귀몰의 전법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바쳐지고있다. 인민들의 전설적 환상을 환기시키는데서 축지전술, 망원전술, 선회전술, 위성타원전술, 동성서격, 일행천리, 유인매복 등의 신묘한 지략과 작전적 예지의 측면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직접적인 예민한 계기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전설 《발자국이 이야기》 하나를 레로 든다면 《되돌아온 발자국》, 《신기한 발자국》, 《거꾸로 난 발자국》, 《다시 생긴 발자국》 등 벌써 그 제목만 보아도 령활하고 다양한 전법이 방불히 안겨오는 흥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있다. 백두산전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호협한 영웅적 기상과 무비의 대담성을 보여주는 《백두산호랑이》, 《백두산의 장군별》, 《백두산에 대장수났다》, 《울기강의 호랑이》, 《임원이야기》 등 작품들과 장군님의 필승의 신념과 천리혜안의 예견성을 보여주는 《철길공사장에서 있는 일》, 《소 스무마리와 새 세쌍》, 《걸어서 3년》 등 작품들도 있으며 《이상한 별씨》, 《효녀 은심씨》, 《다시 솟은 칠성별》, 《닭의 깃털편지》와 같이 인민들을 파사롭게 보살펴주시는 장군님의 고매한 덕성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있다. 말하자면 백두산전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걸출한 군사전략가로서의 비범한 령군술과 예지를 기본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이께서 지니신 고매한 풍모의 여러 측면들을 포괄하여 형상하였다.

때문에 백두산전설이 수령형상전설군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작품이 량적으로 많이 창작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적 체계성을 갖추었다는 의미도 담고있다.

경에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백두산전설군이 출현함으로써 전설문학은 자체발전의 전 력사적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정치적 수령의 혁명사상과 수령이 개척한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도록 교양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었다.

백두산전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과 함께 장군님에 의해 교양육성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혁명가들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문학예술은 시대의 전형적 특징과 요구를 반영한 어떤 주인공들을 창조하여 내세웠는가 하는데 따라 그의 미학적 리상의 높이와 진보성 정도가 평가된다.

주로 인간의 기원과 종족국가형성에 대한 소박한 지식과 견해를 표현한 신화문학은 저급한 원시 신앙적인 표상에 기초하여 신, 인간, 동물의 혼거세계속에 서있는 신 혹은 신적 인간의 형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전설문학은 바로 신화의 그 원시적 신앙의 틀을 박차고 인간생활과 연결된 주위생활현상과 사실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구체적인 인간관계속에 서있는 산 인간의 형상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 전설문학이 백두산전설에 와서 비로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새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백두산전설들에 그러한 주인공의 형상들의 사상적 수준은 사실상 당시 우리 나라 사실주의작가들에 의해 창조된 국내프로레타리아문학의 주인공들보다도 그 세계가 높은 형상들이다. 수령에 의해 교양육성된 주체형의 혁명전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있는 무적의 용사형상을 창조한것은 종래의 전설문학은 물론 당시 국내무산계급 문학에서도 실현될수 없었던 백두산전설의 획기적인 공적으로 된다.

백두산전설의 문학사적 혁신성은 또한 주제의 적극성과 전투성, 사상적 내용의 높은 혁명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전설문학은 봉건사회의 질곡과 불합리를 징계하고 근로하는 인민을 동정하여 환상적인 세계에서나마 그들의 념원을 실현해보려고 하였다. 전설들에는 중세기적 암흑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기상과 미풍양속을 자랑하며 깨끗이 살아가려는 당시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희망이 비껴있다. 열렬한 애국심과 아름다운 룰리도덕, 고상한 생활풍속을 레찬하고 온갖 불의

와 악을 타매한 과거 전설문학의 사상에술적성과는 귀중한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전설들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참다운 리상세계를 보여줄수 없었다.

백두산전설은 수세기를 물려온 전설문학의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고 그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요소를 발전적으로 살려나감으로써 진정한 로동계급문학, 참다운 인민문학의 권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백두산전설은 당해시대의 기본모순관계와 첨예한 사회계급적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숭고한 혁명적 리상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의 중심에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와 그 두리에 뭉친 반일민족세력을 한편으로 하고 일제와 그 주구들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적대적 갈등을 직접 설정하고 그 모순해결의 근본방도를 새로운 건지에서 밝혀주고있다.

이미 언급된바와 같이 긍정적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해 위대한 장군님의 뜻으로 굳게 통일단결된 혁명력량의 사회계급적 본질과 승리의 필연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한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제를 피수로 한 갈등대상을 풍자함에 있어서도 종래의 전설들에서는 볼수 없는 투철한 계급적 분석과 사실주의적 일반화가 실현되고있다.

레컨대 전설 《경박호이야기》, 《벼락맞은 구장》과 같은 작품은 일제와 계급적 원썬들의 악착성을 폭로하였으며 《3원짜리 모가지》는 사기와 협잡으로 가득찬 놈들의 심각한 내부모순, 《호박풍년이 들었다》는 놈들의 허장성세성, 《북군대신이 받은 보고서》, 《오를수 없는 봉우리》,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잤나?》 등은 놈들의 전술적 취약성, 《관회극》, 《놀림받은 순사놈들》, 《입원 이야기》는 놈들의 암둔성을 풍자하고 폭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적들의 이러한 썩어빠진 내적 면모들이 어떤 계급적 바탕에서 폭로되고있으며 또 그것을 어떤 사회적 리념으로 평가하고 결론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저 단순히 비겁성이라든지 허장성세, 암둔성, 악착성을 폭로하였다면 거기서 과거전설들과 다른 아무런 구별점도 찾아보기 어려울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전설들에서도 적들을 그럴 때면 의례히 그러루한 부정적인 속성들을 풍자조소하곤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부정적 성격들을 흔히 계급적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약점으로 일반화시키고 부정의 패망의 불가피성을 부정의 취약성 하나에서만 일방적으로 찾은것이 과거전설들의 보편적인 제한성이였다. 이로부터 과거전설은 대체로 아무런 계급투쟁없이도 《선한것》앞에서 《악한것》이 저절로 망해버린다는 식의 결론에 도달되곤하였다.

백두산전설은 적들의 그 모든 추악한 면모들이 다름아닌 반인민적인 계급적 리해관계와 침략적이

며 략탈적인 본성에서 독버섯처럼 돋아난것임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고있으며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의해서만 무장한 적을 타승하고 조국광복을 이룩할수 있다는 사상을 힘있게 천명하고있다. 때문에 일제패망의 필연성에 대해서도 적들의 취약성 하나로만 설명한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혁명의 주체적力量的 위대성에서 그 결정적 요인을 찾고있는것이다.

백두산전설에 반영된 리상세계는 종래의 전설들에서 추구해오던 공상적인 리상국이나 허황한 불교적 환상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발전의 합법칙적 결과로 세워지는 광복된 진정한 인민의 새 세상이다. 물론 그 리상이 《조국광복》이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되고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사회주의적 리상이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작품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절대적인 지지와 찬양을 표현하고있으며 그리고 또한 일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적 본질을 해부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항일혁명투쟁에 떨쳐나선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백두산전설은 그 사회주의적 리상의 실현을 위한 투쟁방도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여기에 바로 주제사상적 내용의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이 있으며 그의 높은 혁명성이 있는것이다.

백두산전설의 창작자들로 말하면 확고한 로동계급적 세계관과 공산주의적 신념으로 무장한 혁명가들도 아니고 로동계급의 당의 직접적 령도를 받는 조직군중도 아니였다. 이 전설창작을 위한 의식적인 선동이나 조직사업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자신의 머리로 창조하고 그들자신의 입으로 전해온 정신적 재부속에 이렇듯 숭고한 경지의 혁명적 리상이 빛나고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야 하겠는가.

전적으로 그것은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성에 귀결되는 문제이다.

전설창조자들은 공산주의리념과 혁명의 심오한 진리는 다 알지 못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경탄하고 심장으로 공명된 사람들이였다. 바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받드는 다함없는 흠모심에 기초하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형상으로 재현한 결과 그렇듯 놀라운 경지에 이르게 된것이다. 결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모의 위대성 그리고 그이께서 남기신 혁명사적들이 하도 특출하고 비상한데로부터 생겨나게 된 결과인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놓고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전설적 영웅이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되며 그이에 대한 뜨거운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 벅차오르게 된다.

백두산전설은 예술적 형상에서도 세련되였다.

특히 생활의 본질을 예리하게 깊이 일반화하는 측면에서 일련의 성과들을 보이고있다. 전설집에 실린 매 작품들이 다 고유한 자기의 종자를 가지고 가치있는 사상미학적 주장을 제기하고있으며 그것이 또한 개성적인 생동한 형상을 통해 인상깊게 밝혀지고있다.

백두산전설에서의 예술적 환상수법도 현대인들의 기호와 지능에 맞게 혁신되였다. 백두산전설의 환상은 언제나 현실생활에 튼튼히 뿌리박은 예술적 환상으로서 그 연원으로 되는 사실적 근거가 명백하며 실제한 사실을 터무니없이 인위적으로 과장하지 않고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유격대의 모습이 당시 우리 인민의 눈에 실지로 환상적인 기적으로 비껴왔기때문에 그 체형그대로 전설에 옮겨놓았다고도 볼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며 또 리해할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펴시는 전략전술이 보통사람으로서는 리해할수 없는 비범한것이였으며 또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의 활동이 대체로 극비밀리에 수행되고 불의성, 기동성을 동반하게 되며 그 구체적인 활동과정은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고 비상한 행동결과들만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곤하였기때문이다.

전설은 예술적 환상에 의거하므로 예로부터 랑만성을 중요한 속성으로 하고있었다. 백두산전설은 종래의 그 랑만성을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에 기초한 혁명적 랑관주의로 발전시켰으며 이전시기의 랑만주의적 경향에 비해 사실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있다.

실로 수세기에 걸쳐 중세기적 환상에 기초해서만 창조되어오던 전설문학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적 내용을 갖춘 혁명전설이 탄생하였다는것은 우리 문학의 큰 자람이 아닐수 없다.

백두산전설은 세대를 물려 전해가야 할 우리 문학의 고귀한 재보이며 우리 인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아, 《김정일화》!

-한 외국 식물학자가 부른 노래-

서진명

봄날의 햇빛만이
피운 꽃이 아니여라
나 하나의 진정과 축원으로
피운 꽃도 아니여라

내 꽃을 위해 한일이 있다면
가지를 뻗치는 줄기에
심장형의 그 푸른 잎새들에
시대의 숙원이 어리게 한것뿐

거기에 나의 땀이 깃들었다면
붉게 타는 그 꽃송이들에
그이를 열화같이 흠모하는
만사람의 축원이 피어나게 한것뿐

한하늘아래
한지붕아래 사는듯
언제나 내곁에 있어
힘을 보태주고 지혜를 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
구름위에 솟은 안데스산발도
나와 함께 넘었고
탐구의 하많은 밤들도
나와 함께 지새웠기에

따르는 마음 한결같은
벗들의 그 진정
그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나는 말하고싶어라

아, 《김정일화》!
그것은
현시대가
인류가
그이를 우러러
피워올린 꽃이라고

《김정일화》 송이송이 붉은 꽃이여

김휘조

피는곳 따로 몰라 피는 철 따로 몰라
어디나 피어나네 《김정일화》 송이송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그이의 미소처럼 활짝 핀 송이송이

온 세상 꽃을 모아 이 꽃을 피웠나
《김일성화》처럼 아름답고 소담한 꽃

이 땅에 온 세상에 그이께서 펼치시는
새아침 노을처럼 붉게도 타네

우러러 따르는 깨끗한 마음

바다보다 더 깊어 바다를 건너온 꽃
세세년년 그이의 뜻 빛내갈 마음
바다보다 더 넓어 바다를 건너온 꽃

온 세상 꽃향기 다 안고 핀 꽃
온 누리에 봄빛을 뿌리며 만발하는 꽃송이

온 세상 고운 꽃들 이 꽃에서 피어나네
온 세상 영원한 봄 이 꽃에서 웃고있네

《김정일화》 송이송이
진귀한 꽃송이

혁명과 인민에게 바치시는 길

다다 다뜨야

백두의 눈보라는 민족의 슬기를 키워주고
혁명의 폭풍은 붉은 마음 버려주나니
백두밀림에 총성 메아리칠제
그이께서 탄생하시였어라
진격의 웨침소리, 혁명의 노래소리 높을제
그이께서 탄생하시였어라

온 민족은 환희에 넘치고
원썹들은 공포에 떨었어라
거룩한 생의 숨결 누리에 굽이쳤어라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애국의 녀
이어받은 별
희망의 그 별
민족의 위대한 항도성으로 빛나라
시대의 흐름을 키잡이 하여라

영명하신 그이
인민들속에서 성장하시어
모든것 인민위해 바치시나니
로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름없던 일군의 비보를 받으시고도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잠못드시어라

산간벽지 어촌마을 그 어디에나 어려있어라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일 의논하시는
미소어린 그이의 모습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시는
숭고한 그이의 모습

그이께서
남녘의 거레들을 못잊으시어
남쪽의 밤하늘을 지켜보신 밤은 얼마였으랴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인민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그이의 높고높은 덕성
그이의 자애깊은 눈매에 어려있어라

그이께서는 주체예술의 화원
활짝 꽃피우시고
3대혁명의 불길
더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시나니
모든 인민을 위한것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어라

그이께서는
혁명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신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나아가시나니
그이께서 수놓아오신 그 빛나는 길
인민을 위한 길이어라
혁명을 위한 길이어라

아, **김정일**비서
그 존함 들을 때마다
흙모의 정 솟구쳐오르고
아, **김정일**비서
그 존함 외울 때마다
혁명에 대한 결의 더욱 굳세여지나니
정녕 그이의 존함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나고있어라

가사

어머니의 눈빛처럼

김광철

따뜻한 요람에 정답게 비껴여
낮이나 밤이나 떠나지 않던 눈빛인가
아, 어머니의 눈빛처럼
내 삶의 나날을 지켜주는 당의 사랑이여

내 나서 첫걸음 내디딘 그날에
내 한생 걸어갈길 축복하던 눈빛인가

아, 어머니의 눈빛처럼
한없이 정다운 은혜론 당의 사랑이여
청춘의 희망도 머나먼 미래도
그 사랑이 언제나 소중히 꽃피워주네
아 어머니의 눈빛처럼
영원히 보살펴주는 당의 사랑이여

향도의 자욱을 따라 (제3회)

원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창조적인 사업이라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은 완벽한 사상에술성으로 하여 우리의 주체적 문학예술의 시원으로, 빛나는 본보기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도밑에 작가들은 먼저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소설로 옮기게 되었다.

이 두 작품은 이미 영화와 가극을 통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으므로 소설로 옮기는데서 별로 문제될것이 없을듯싶었다.

그런데 막상 초고를 끝내고보니 작품들이 감동을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작가들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채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두 작품의 원고를 내놓게 되었다.

두 작품에 대한 의견은 여러가지였으나 소설의 사상에술성을 높일수 있는 실통한 대안은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것처럼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천페지가 넘는 원고들을 읽으시고 소설을 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1972년 12월 15일이였다.

작가들은 이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장편소설원고들을 보시고 주신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먼저 장편소설 《피바다》원고에 대한 말씀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소설로 옮기는 사업은 어려운 일인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옳게 파악하고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들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장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옮겨놓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식에 옮기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원고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실례를 들어 분석해주시며 그 수정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선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준 장면들은 소설에서도 감동을 주도록 따듯이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토벌을 당한 다음 별재마을을 찾아갈 때 내가에서 원남이 갑순에게 아버지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나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올 때 발구를 타고오는 장면, 갑순이 죽은 올남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 같은데서는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소설에서 감동을 줄수 있게 그리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더우기 이런 장면들이 이미 대중에게 강한 인상으로 고착되었기때문에 소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아는 이야기이기때문에 독자들이 지루감을 느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준 장면들이 소설에서도 감동을 줄수 있게 형상할수 있는 참으로 명철한 가르치심이였다.

작가들은 모두 환성을 올렸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놓치고있었던것이다.

소설의 우월성은 뒤생활을 무한히 팔수 있고 끝없이 전개해나갈수 있는것이며 사실과 사건을 립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할수 있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영화나 가극에서 감동을 받았던 화폭들을 그대로 소설에 옮기는데 그쳤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에서 더 전개할수 있는 장면들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시였다.

그러시고는 2편 첫머리에 시대적 발전과 항일무장투쟁의 발전을 전개해주든지 어머니의 생활과 사상감정의 변화 같은것을 그려주든지 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소설은 소설로서 새롭게 읽을 맛이 있고 감동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생활과 밀착되지 못한 부분들도 고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소설원고에서는 왜놈들의 손에 남편을 빼앗기고 별재마을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복잡한

심리세계를 생활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한 범벅을 먹는 원남과 갑순의 성격과 습관상 차이를 강조해주려던 나머지 작가가 자기 말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범벅을 먹는 남매의 모습, 행동 그리고 그때의 어머니의 체험세계 같은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작가들은 시공간적 제한을 받는 영화나 가극과는 달리 소설에서는 깊이 묘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관적 욕망을 앞세우던 나머지 감정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에서 일부 진실치 못한 장면들도 고치도록 가르쳐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어머니가 복돌의 어머니를 만나려고 기다리면서 그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생각에서 변구장네 발김을 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어머니로서는 변구장네 발에 가서 김을 매줄수 없다고 일깨워주시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복돌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와서 《량심》과 자문자답하는 장면, 어머니가 변구장에게 《통행증》을 반환해주면서 그를 야유하는 장면 같은것은 어머니의 깊고 은근한 성격에 잘 어울리지 않을뿐아니라 어색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인간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힘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사도 격에 맞게 쓰도록 일깨워주시고 다른 부족점들을 바로잡도록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작가는 새로운 창작적 흥분과 열정으로 소설을 한장면 한장면 고쳐나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순박하면서도 강의한 어머니의 성격과 그의 성장과정을 소설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형상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오늘과 같이 훌륭한 소설로 될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보시고 전반적으로 볼 때 주인공의 혁명화과정, 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렸다고 하시며 《자위단》에 들어도 죽고 안들어도 죽는다, 오직 살길은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는 작품의 사상주제적 과제를 소설에서 잘 해결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우여곡절에 찬 주인공의 생활을 깊이있고 심각하게 파고들면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고 하시며 주인공의 뒤생활과 내면세계가 깊이있게 그려졌기때문에 성격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어 좋다고, 이것은 소설이 다른 형식과 구별되는 우점이라고 볼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아직은 부족점이 더 많으나 그 원인과 극복방도를 못찾고있던 작가들은 치하의 말씀에 얼굴이 뜨거웠다.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피바다》와는 다른 부족점이 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소설에서 일부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은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부족점을 일깨워주시었다.

소설의 부족점을 지적하여주시는 말씀이시었다.

작가들은 세계관형성발전의 단계를 뛰어넘어 갑자기 각성된 인물로 그렸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어 그 부족점을 극복해나갈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인공 갑룡은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적개심이 없는 어진 인물이었는데 피땀한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한결음한결음 각성되어 마침내 적들을 싸늘하고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 들어서는 인물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주인공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잘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작가들은 생활론리를 무시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주관주의적으로 발전시키려 했음을 자책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인공이 반변할 때 하는 연설내용도 고쳐야 하겠다고 지적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갑룡이 연설을 할 때 일본놈들이 자기 아버지만 죽었다고 말하는것으로 하지 말고 왜놈들이 우리 조선민족을 마구 닥치는대로 죽였는데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내용으로 말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주인공의 성격과 세계관형성과정을 생활론리에 맞게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명철한 가르치심이었다.

작가들은 장편소설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 나타난 부족점도 명백히 알게 되고 그를 고칠 방도도 환히 내다보았다.

그들은 신심과 열정에 넘쳐 주인공의 성격발전의 론리에 맞게 줄거리를 세우고 복잡한

축적단계를 거쳐 주인공의 혁명적 세계관형성과정을 진실하게 그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주인공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여 적에 대한 적개심이 없던 처지로부터 피맺힌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며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미워하고 나아가서 한걸음한걸음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마침내는 적들을 싸늘하고 조선인민혁명군대오에 들어서게 되는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려낼 수 있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렇듯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데서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특성을 살리며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 그리고 대사를 인물의 성격과 정황에 맞게 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로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완성된 장편소설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1973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61돐을 계기로 출판되어 우리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읽히게 되었다.

그이의 은정깊은 지도의 손길아래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피는 처녀》**도 련이어 소설로 옮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소설로 옮기는 력사적 위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고 우리의 소설문학은 자기의 고전적 본보기를 가지게 되었을뿐아니라 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명제해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김 정 일

혁명의 주체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은 모든 역사적 시대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것은 아니다.

그들은 물론 착취계급사회에서도 역사를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 힘으로 작용하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착취계급의 의사에 따르는것이였다. 따라서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아직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는 될수 없었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명은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이 원리를 형상으로 깊이있게 구현해나갈것을 요구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수령, 당, 대중을 혈연적인 령계속에서 형상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수령은 그 생명체의 중심이며 최고뇌수이다. 따라서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수령의 위대성을 옹게 형상해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도 정당하게 밝힐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과 예술영화 《조선의 별》(1부~10부)에서는 조선혁명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고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양한 측면에 걸쳐 심오하게 형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들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옹게 밝히고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체로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 역사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것을 심오한 진리로 천명하였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에 대한 리론을 문학예술창작에서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의 지위와 역할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의 이러한 지위와 역할을 옹게 밝히는 문제는 결국 당조직의 역할과 당일군의 형상을 정당하게 그리는 문제에 귀착된다.

예술영화 《보중》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참된 당일군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함으로써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이 적극 발양되어 사람마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가며 혁명과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장엄한 진군을 힘있게 부각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혁명적 문학예술에서 당조직과 당일군들의 형상을 옹게 그릴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옹게 밝히고 나아가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리론을 형상적으로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에 대한 리론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축원》과 예술영화 《그날의 맹세》를 비롯한 우리 문학예술작품의 주인공-인민들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을 받아안고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영원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게 되였으며 혁명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모든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리론을 깊이 학습하고 밀접한 령관속에서 수령, 당, 대중의 형상을 더 훌륭히 창조하여야 할것이다.

만경대의 백양나무

김시권

선생님의 산 맥박 이 백양나무에 뛰는가
무성한 잎새들 설레이며 숨결 높아라
쳐다보는 내 귀전에
뜨거이 굽어보며 들려오는 목소리
-잘 왔다, 이 땅의 아들이
너는 이 뿌리를 알아야 한다

순간 내 눈앞엔 멀리 하늘끝에서
몰려든 먹장구름, 찬눈서리, 폭풍에도
휘여지지도 꺾이지도 않고
김형직선생님의 기상처럼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내리던
조선의 뿌리를 생각한다

내 밟고선 땅속처럼
바위와 돌들 층층이 막아서도

그 기상안고 뿌리내렸기에
이처럼 오늘에도 거목으로 자란 백양나무처럼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선
위대한 조국을 본다

나는 듣노라
선생님의 지원의 뜻
꺾을수 없었던 그 의지의 숨결을
창공 높이 솟구치는
내 조국의 힘찬 진군소리를

아 백양나무
무수한 행복의 숲이 설레이는 오늘에도
그 억센 뿌리 조국땅을 그어안고
영원한 세월 우리 행복 무성할
그 뿌리를 전해주네

영원한 상봉의 지점에...

윤영탁

키낮은 처마밑에 고드름 한산하던
이국땅 주막집 비좁은 방에서
장군님결을 그이 떠나시던 날
창밖의 눈보라도 모질었더라

언두부쫄각을 앞에 놓으시고
차마 목메여 못다나누신 마지막식사
기약없이 떠나신 그날의 리별의 길에
어이하여 상봉의 날은 없으셨던가

피명든 겨례의 가슴에
혁명의 씨앗을 묻어주시려
너무도 일찍 가시발길을 헤쳐오신
김철주동지

한숨어린 집집의 창문을 두드리며
새날의 려명이 동터온다고
연예대의 노래를 울려주시며
《새날》 신문 묶음을 펼쳐주시며
어서 마중가자 웨치던 그 목소리
력사의 그 언덕에 뜨겁게 메아리친다

혁명의 무기를 실어나르시며
공청대오를 꾸려가시며

광야의 거친 들로 달리시던 말파리
오늘도 조국산야를 질주하는듯싶고
바이올린에 담으시던 《혁명가》의 노래
오늘도 락원의 창가에 실려있건만
어이하여 장군님과 상봉은 다시 없으셨던가

력사의 새벽길에 아버님도 일찍 가시고
혁명의 그 길에 어머님도 떠나시고
오로지 장군님 그 한품이시건만
그날에 결연히 떠나시었으니

나라를 빼앗기고 강토를 잃고
구름같이 흩어졌던 우리 민족
가슴치는 리별의 아픔 한가슴에 다 안으시고
떠나신 길 아니던가
장군님 높이 모신 광복의 그 언덕에서
삼천만이 열싸안을 력사의 상봉을 위해

자신계선 다시 못안긴 그 품이여도
장군님을 그리는 이 나라 인민들을
그 품에 모두 떠밀어주시고
그 길에 모두 인도해주시려

찬비에 젖어계시며

눈보라에 얼어계시며
너무도 애끓은 그 시절에
한생을 장렬히 바치셨으니

아, 가슴아픈 리별이 끝난 지점에
언제나 계시며
감격에 북받치는 상봉의 지점에
우리 인민모두를 떠밀어주셨구나

장군님과 영원한 상봉의 순간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넘겨주셨구나

어제도 오늘도 혁명을 보위하여
30 년대의 그 언덕에
영원히 서계시는
아, 김철주동지여!

녀전사의 눈물

(삼지연못가 흙모편 녀전사의 군상앞에서)

리성철

모지름에...
생의 마지막 모지름에
한줄기 뉘뿔리 손에 전해
뉘어 숨진 어린 동생
차디찬 자갈땅에 묻으면서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였다

-가지마 가지마...
애절히 엄마찾는 어린 아기
단 하나 살붙이를 남의 집에 맡기고
싸움길에 나서던 그날에도
홀리지 않던 눈물이였다

고통에 멎든 가슴
서러움에 마르던 가슴
누를길없어 달랠길없어
깃뽀한 세상 아니 봄이 나오리라
누구는 자결의 모진 맘 품던
가혹한 인생의 한계를 넘어...

믿어
한분 장군님만 믿어
영원히 눈물없는 광복의 봄을 찾아
아기처럼 소중히
총을 안고 떠난 길

얼음 깨물며
눈우에 쪽잠 청하던
긴긴밤도 있었더라
사랑하는 동지를 타향에 묻던
비통한 아픔도 있었더라

허나 피를 바치지 않고서는
한목숨 바치지 않고서는
찾을수 없는 조국이 있기에...

애국의 신성한 이름을 빌어
떠중이들 골방에 묻혀
가날픈 고향가를 읊으며
한탄의 차디찬 눈물을 땀굴적에도...

시련의 고비고비
언제 한번 녀전사의 눈빛에
실망의 그늘 비낀적 있었던가
애달픈 이슬이 고인적 있었던가
...

하더니 여기 삼지연못가
장군님 따라 장군님 받들어
조국의 품에 안긴 영광의 날에
끝끝내 솟아오른 전사의 눈물
행복의 맑은 구슬이어

껴안은 송이송이 진달래
아기의 밝은 얼굴 같아서
바라보는 산촌 어디서든
못잊을 동생이 마주올것 같아서
그래서 못참은 기쁨의 샘이던가

눈물! 뜨거운 녀전사의 눈물
장군님 계시여 다시는 설음없을
영원한 전사의 행복
인민의 행복이 눈물속에 비졌구나
고통과 슬픔은 순간이여도
피로 찾은 행복의 영원함을 속삭이며

아, 눈물
그날의 아기붓나무는 고목이 되어
흰머리 수그린 오늘에도
식을줄 모르는 녀전사의 마음이어

백두산의 눈

리명균

《아버지, 편지가 왔어요.》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는데 어린 딸아이가 봉투를 들고 맞았다.

《어디서 왔느냐?》

《국제우편이에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보낸 사람이 누구냐?》

《보낸 사람은... 못 읽겠어요.》

《어디 보자.》

봉투를 받아보니 미우라 다케시라는 이름이 붓글씨로 씌여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보내여왔는가?

미우라 다케시라는 이름은 나에게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심에 가까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봉투의 앞뒤면을 거둬 살펴보다가 탁자 위에 그대로 놓고 저고리를 벗었다.

세면장에 들어가 세수를 하면서 거울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면서 그리고 쏘파에 앉아 천천히 담배를 붙여물면서 나는 미묘한 기분을 의식하였다.

미우라 다케시는 바로 한달전에 평양을 방문했던 일본인 문필가였다. 67살의 늙은이, 피뻘한 로인이었다.

그때 나는 안내임무를 맡고 며칠간 그와 동행하였다.

손님과 안내원은 같이 다니는 사이에 조만간 친근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미우라로인과 친숙해지지 못했으며 불쾌감을 가지고 헤어졌다.

인상부터 나빴다.

몸이 류달리 체소하고 강마른 로인인데 몹시 과묵했고 감정표시에 린색했으며 눈빛만이 간혹 의문을 혹은 놀라움을 나타내곤하였다.

변화없는 담담한 표정, 이것이 로인의 항시적인 인상이었다.

로인은 행동도 이상한데가 있었다.

도착한 다음날 평양시를 참관할 때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의 항일무장투쟁전적도앞에서 그는 오래동안 서있었는데 어째선지 낮을 찌프리고 있었다. 해설원이 해설했으나 그는 분명히 듣지 않았고 무엇인가 자기 생각에 잠겨있는것이였다.

해설원이 해설을 끝내고 다음관으로 걸어갈 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있다가 뒤늦게야 따라갔다. 로인의 기색은 감동이나 경탄이 아니라 그 어떤 까닭모를 우울한 기분상태를 나타내고있었다.

타내고있었다. 굳어진듯한, 이따금 실룩거리는 안면근육의 경련...

참관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그는 입을 꼭 봉한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직무상 나는 자주 외국손님들과 함께 혁명박물관을 참관하지만 이렇게 반응이 없는 손님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혁명박물관의 감상록에는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세계의 수많은 이름있는 인사들의 환희와 찬탄의 글발들이 씌여져있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수반은 《조선혁명박물관은 주체사상의 전당이다. 조선의 자랑이며 제3세계의 자랑이다.》라는 격동적인 글을 남기였다.

나는 의혹어린 눈으로 미우라로인을 바라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로인을 대하기가 서먹했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인과 나와 의 사이에는 극히 필요한 이야기만 일문일답으로 진행되였다.

《점심식사시간입니다.》

《고맙소.》

《좀 휴식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소.》

《나는 3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소.》

미우라로인에 대한 나의 경원감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졌다.

로인은 참관하는 모든 대상을 탐방기자나 수사 일군과도 같은 눈으로 보았는데 산원의 유명한 보석주단앞에서 그것이 인조보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표시했고 학생소년궁전출입구에서 마주친 어린 학생에게는 입장료가 얼마인가고 물었으며 돌아오는길에 불쑥 한 다층살림집의 창문을 가리키더니 저 집에 들어가보자고 했고 맞아준 그 집 젊은 주부에게 집세와 한달 생활비의 상세한 내용을 따져 물었다. 로인은 쌀값으로부터 그 집 첫머리가 가지고 놀던 놀이감자동차에 이르기까지의 가격을 죄다 기록하고나서야 취재수첩을 덮었다.

로인은 끊임없이 기록하였다. 보고 듣는 모든것을 수첩에 적어넣었다. 마치 애연가가 담배물주리를 손에서 놓지 않는것처럼 그는 취재수첩을 늘 쥐고있었다.

로인은 전혀 리해할수 없는 호기심을 나타낼 때가 많았다.

차에 앉아가다가 어린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로인은 운전사에게 차를 멈춰달라고 했고 귀기울여 그 노래를 들었으며 나에게 그 노래의 악보를 구해줄수 없겠는가고 부탁하였다. 그 노래는 《조선의 노래》였다.

악보와 함께 녹음테이프를 구해주었더니 저녁에 로인은 녹음기로 그 노래를 거듭 감상하였는데 얼굴에는 역시 그 까닭모를 우울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지방참관을 하면서 구월산을 지날 때였다.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어느 한 산골개울을 건넜는데 로인은 문득 말하는 것이었다.

《시내물은 조그마한데 훌륭한 다리가 놓여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랑의 다리》였다.

나는 그 다리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로인은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차에서 내리더니 오래도록 그 다리를 바라보았다.

학교에 가는 어린 학생들이 눈덮인 징검다리를 위태롭게 건느는것을 보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놓아주신 사랑의 다리...

몇걸음이면 건널수 있는 좁은 개울, 그러나 그 허리에는 이 땅의 어린이들이 누리고있는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의 상징처럼 우아하고 맵시있는 무지개형의 세멘트다리가 놓여있었다.

미우라로인의 얼굴에 깊은 감동의 빛이 어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인의 눈은 다리를 보면서도 다리가 아니라 그 어떤 먼곳을 바라보는듯한 시선이였다. 분명히 그것은 먼곳을, 먼곳이 아니라면 마음속에 간직된 그 어떤것을 되새겨보는듯한 표정이었다.

로인의 거동에는 저으기 수수께끼같은데가 있었다. 그러나 감격에 겨워하는 그 모습은 나의 가슴을 후덥게 했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로인을 바라보게 하였다.

나는 미우라로인에 대한 나의 감정에 변화가 생긴다는것을 의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한주일이 되던 날은 9월 9일, 공화국창건기념일이었다.

이날 나는 로인과 함께 **김일성**광장의 초대석에 서있었다.

30만군중이 명절옷차림으로 모여선 광장과 주변큰길들은 온통 꽃으로 덮인듯하였다. 꽃바다, 달리 표현할수는 없었다. 그리고 기발의 파도...

로인은 압도된 표정이였다. 아마도 이렇듯 장엄한 광경을 생후 처음으로 볼것이였다. 상상도 할수 없었던 광경일것이였다.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광경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우리의 벗이든 원수이든 놀라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셨을 때 미우라로인의 조그마한 얼굴은 꿈을 꾸는듯한 표정으로 바뀌였다.

온 광장이 환호하는속에 로인은 모든것을 잊은듯 돌아서서 주석단만을 바라보고있었다. 축포가 터지고 각가지 색깔의 고무풍선과 수백마리의 비둘기떼가 군중들의 머리위로 날아올랐건만 미우라로인은 그런것에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만을 바라보고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한손을 높이 드시고 환호하는 군중에게 답례를 보내시였고 태양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광장의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하시였고 좌우에 서있는 멀리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우리의 명절을 축하하려고 온 외국의 국가수반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어린 소년단원들이 주석단으로 달려올라갔다. 귀여운 꽃봉오리들은 자기들의 결의의 표시인 붉은 넥타이를 아버이수령님께와 외국손님들과 주석단에 서있는 당과 국가의 여러 간부들에게 매드리였다.

이때 나는 옆에 서있는 미우라로인이 갑자기 비칠거린듯한 느낌을 감각하였다. 놀라 돌아보니 로인은 심장경색이 일어난 사람처럼 낮이 창백해져 오른손으로 왼쪽가슴을 꼭 움켜쥐고있는것이였다.

《왜 그러니까? 어디 편치 않습니까?!》

《...》

《구급차로 잡시다.》

나는 로인을 부축하였다. 로인은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반시간후 구급차안에서 로인은 안정을 회복하였다.

저녁에 로인은 불현듯 래일아침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돌연히 떠나가겠다는 로인의 말에 나는 저으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이제 명절행사가 계속될무렵에 모를지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 나라에서 온 대표단들과 개별적인 손님들을 접견하실수 있는데 그때 미우라로인도 접견을 받게 될수 있다는것을 암시하였다.

미우라로인이 나의 암시를 리해하지 못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인은 못알아듣는척했으며 기어이 떠나겠다고 하는것이였다.

이러한 외국손님들 가운데서 레를 찾아볼수 없는 피이한 태도는 나의 가슴속에서 찾아들었던 로인에 대한 의혹을 다시 되살려놓았으며 의문어린 시선으로 로인을 바라보게 하였다.

이 늙은이는 왜 우리 나라에 왔는가? 이 로인의 방문목적은 무엇인가?

지구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뵙기 위해 그이의 가르치심을 직접 몸가かり에서 받는것을 평생소원으로 여기며 대양과 대륙을 지나 기차를 타고 혹은 배와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평양으로 찾아오고있는 이때 눈앞에 닥쳐온 영광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이 미우라 다께서는 도대체 어떤 늙은이인가?

벗은 아니다.··· 그가 떠나가는것을 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편지봉투를 뜯었다.

정자로 깨알처럼 쓴 글자들이 짙 들어찬 여러장의 편지가 나왔다.

정중한 인사말뒤에 다음과 같은 글이 씌여져있었다.

···

선생!

내가 이제부터 쓰려고 하는 내용을 평양에서 직접 이야기했다면 아마 더 리해가 잘되었을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소. 나에게 그럴 용기가 없었기때문이요.

···내가 조선에 가보려고 한것은 퍼그나 오래전 부터였소.

1953년, 조선전쟁이 미군의 참패로 끝났을 때와 천리마대진군이 일어나고있는 공화국북반부를 온 세상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때 그리고 대동강반에 주체사상탑이 솟아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소.

그러나 가지는 못했소. 식구들이 특히 늙은 안해가 한사코 만류했기때문이요.

《당신은 그때 일을 잊었어요?》

안해가 물으면 나는 대답을 못했고 모든 의욕을 상실했소.

안해가 우려한 그때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1934년에 있는 일이었소.

오래전 일이요.

당시 26살의 신입기자였던 나는 갓 결혼한 안해와 함께 휴가를 받고 장인과 장모가 운송업을 하고있는 룡정으로 찾아갔었소.

일본에서는 아직 해수욕을 하고있었는데 그곳은 벌써 마가울이었소. 한낮에는 녹았지만 밤이면 서리가 내렸고 산얼음이 덮이었소. 나의 취재수첩에는 간도땅을 밟던 첫날 이런 소묘가 적히었소.

아침서리 녹은 뒤의 빨간 단풍잎···

수수이삭끝에 반짝이는 맑은 이슬···

그러나 간도는 살풍경한곳이었소. 총소리가 울리지 않는 밤이 없었고 전주대와 개울가의 버드나무들에는 수비대의 포고문이 붙어있었소.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니? 여긴 신희련행으로 적합치 않은곳이야.》

장모는 한숨을 내쉬었고 장인은 이렇게 툭을 했소.

《자넨 신부를 랍치당하고싶은가?》

《랍치라니요?》

《자네는 조선빨찌산에 대해서 듣지 못했나? 여기서 100리도 안되는곳에 적색구가 있어.》

《여기서 100메터도 안되는곳에 경찰서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빨찌산앞에서 경찰은 쥐새끼야. 관동군도 벌벌 떨지.》

《조선빨찌산이 그렇게 강합니까?》

《신출귀몰이란 말로 그 위력을 표현하고있네》

《그래도 일본에서는 앞을 다투어 대륙으로 건너오자고 하던데요. 대륙행 배스를 놓치지 말라고요.》

《일확천금을 하자는거지. 그러나 모험업이는 안될 각오를 해야 해.》

그 일확천금이 현지주민들의 고혈의 대가로 이루어진다는데 대해 나는 그때 물론 깊이 생각해볼지 못했지만 그곳의 조선농민들, 두만강을 건너오는 류량민들의 비참한 모습은 여러번 목격했고 심각한 인상을 받았소.

나의 취재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소묘가 적히었소.

《···조선인이주민들이 내 눈앞에서 걸어가고있다. 농한기를 택해서 이동하는것일가. 이미 겨울에 들어선 햇빛은 대지를 떼지어 걸어간다. 삼삼오오 가족단위로 움직이는데 버선도 신지 못한 맨발로 강가의 깨어진 얼음장우에서 바지를 걸어올리고는 여울목을 건너가 저편 기슭에서 다시 바지를 내리고 미투리를 신는다.》

햇빛은 아낙네들은 몸의 대부분을 로출시킨채 첫머리를 등에 업고 건너간다. 어린 아기의 여윈 다리는 누데기포단박으로 드러내놓여 빨갭게 얼어있다. 지팡이를 짚은 늙은이도 있고 허리굽은 할머니도 있다. 조무래기들은 서로 손을 잡고 건너간다. 병자를 눕힌 들것을 맞들고 가는 젊은이도 있다. 모두 묵묵히 말이 없이 걸어간다. 가고 가고 또 간다. 어디로 가는가? 저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향해 가고있는가?

의혹을 물리칠수 없다.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건너오는데 이곳 사람들은 떠나고있다. 저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

내가 농촌마을들에 나가보겠다고 하니 장인은 펄쩍 뛰었소.

《지금 농가들을 정리하고있다.》

《정리하다니요?》

《산재농가들을 정리한단말이다. 농가들은 다 유격대의 동정자로 보는것이 관동군의 립장이다.》

《정리》라는 표현이 어딘가 모호하고 애매하다고는 느꼈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나는 짐작도 못했소. 그것을 깨달은것은 썩 뒤였소.

나는 간도에서 한달가량 지냈는데 도꼬로 돌아갈 차리를 하던 어느날 본사에서 전보가 날아왔소. 편집장이 띄운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소.

《관동군부대들의 적색구토별상황을 취재보도하라는 룽군성의 지시가 있다. 마침 군이 그곳에 가있어 본사는 달리 특과원을 보내지 않기로 한다. 군이 실력을 보일 절호의 기회다. 형식은 종군기, 독자들에게 이미 예고했다...》

장인과 장모는 내가 이곳에 온것을 다시 책망했고 젊은 안해는 낮이 해쓱해졌소. 그러나 본사의 지령을 리행하지 않을수는 없었소. 나는 안해를 위로했소.

《걱정할건 없어. 내가 임영하는것두 아니구...려 단장이나 대대장을 따라다닐테니까 총소리두 못들을수 있지. 전쟁영화를 구경하는셈 치면 돼.》

《조심하세요. 전 어쩐지 예감이... 당신이 열흘 안으로 안돌아오면 전 죽겠어요.》

《그런 불길한 말을 하는게 아니야. 내가 멋진 글을 쓰고 표창이 뒤편걸 생각해야지.》

사실 그때 나는 기자의 직무란 진귀한 이야기감을 남먼저 찾아내고 남먼저 소개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소. 《적색구토별》보다 더한 특종보도감이 어데 있겠소.

다음날 나는 수비대에 가있었고 그 다음날은 벌써 이시하라중좌의 《토별대》 치중마차에 앉아서 《토별》 부대장교들에게 하달된 《행군 및 숙영시의 주의사항》을 읽고있었소;

- 행군간의 경계는 사방을 주의해야 한다. 근처 리수색을 태만하면 위험하다.

- 산협의 행군에는 적의 복병에 주의하여 라와에 걸리지 말라. 산지, 산림 지대는 지도가 정확치 않으니 방위를 잃지 말라.

- 지방주민을 길안내자로 사용할 때는 역리용될수 있다는데 류의하라. 그 처자를 인질로 잡아두는것이 좋다.

- 부락에 들어갈 때는 미리 수색하라. 휴식할 때는 유격대의 급습에 대비하라.

- 숙영할 가옥 선정은 습격받을 경우의 항전을 첫째로 고려해야 한다. 분숙은 필수로 피하라. 보초는 3인 이상의 복초로 해야 한다.

이 《주의사항》은 《토별대》가 얼마나 조선 유격대를 두려워하고있으며 골탕을 먹고있는가를 반증해주고있었소.

거리에서 20 리쯤 벗어나 울창한 수림이 나타나자 장교들과 병졸들이 긴장해한다는것을 나는 느꼈소.

눈이 날리었소.

병졸들은 울적한 시선으로 눈송이가 가득히 떨어지고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소.

산길은 점점 험해졌고 그에 따라 치중마차는 행군대오로부터 떨어졌소.

40 리쯤 전진했을 때 전령병이 달려와 이시하라중좌가 부른다는것을 알려주었소, 따라가보니 행군부대는 이미 보이지 않고 중좌만이 몇몇 경비병과 함께 길가에 야전용 천막을 쳐놓고 앉아있었는데 나를 보자 점심을 먹자고 청했소.

《부대는 어데로 갔습니까?》

물으니 중좌는 대답했소.

《작전지역으로 떠나갔다. 나는 여기에 위치하려고 한다. 군도 나와 함께 행동하는것이 유리할것이다. 전투보고가 종합될테니까.》

나는 전투부대와 너무 일찍 떨어지는것이 비겁해보였으나 중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수도 없었소.

중대들은 어데로 사라졌는지 잠잠하였고 총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소. 그러나 날이 어둡자 전투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소. 각 중대에서 전령병들이 보고문을 가지고 달려왔소.

- 14 시. 척후대로부터 유격대의 일단이 우적령 동북방 약 4 키로메터지점에 결전중이라는 보고 즉시 결사대, 편성, 출발.

17 시, 다시 척후대로부터 보고 《6개소에 유격대의 우등불》, 중대장이하 결사대전원 출추듯이 우등불을 목표로 돌입, 30 분간의 격투, 결사대는 지난번 전투의 원한을 풀 때는 이때라고 좌충우돌, 소멸한 적 다수.

- 적은 심리평남방 2 키로메터지점의 산상에 있으면서 계곡을 통과하는 아군을 요격, 전세 불리. 그러나 과감히 반격, 유격대 가운데는 녀성도 수명, 우리에게 육설하며 대항한다.

-소왕청하중류지대에서 격전 4 시간, 적사상자 다수. 그러나 날이 어두워 전장을 수색하지 못하고 대치상태, 유격대의 진지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전투보고는 랑만적으로 느껴졌소.

내가 중대들을 따라가지 않은것이 아쉽다고 말하니 이시하라중좌는 대꾸했소.

《조급해할건 없다.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테니까.》

그러나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소.

다음날은 어데서도 전투가 없는듯 각 중대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은 온대대가 철수했기때문이요.

전투보고들에 기록된 전과로 보면 살상한 적이나 로획한 무기가 눈에 띄움직했지만 어느 중대에서도 그것을 볼수 없었고 또 누구도 그에 대해 묻는 사람이 없었소.

한 군조에게 가만히 물었더니 그자는 눈을 희번덕이면서 나를 노려보았소.

《로획품? 너자식이 어디 그 지식인의 흰 손으로 로획해보라.》

나는 입을 다물었고 그 사나운 군조에게서 물러났소.

《로획대》는 사기가 없었소. 이겼다고는 하지만 어깨들이 축 처졌고 여지없이 녹초가 되어 비칠거렸소. 나는 출발할 때와 귀대할 때의 인원수가 같지 않다는것을 알아보았으나 감히 누구에게도 그것을 묻지는 못했소.

다음날 종군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더니 이시하라는 중대장들의 그 전투보고서들을 나에게 밀어주었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목격하지 않은것으로는 실감있는 글이 나오지 않지요.》

이시하라는 멸시의 시선을 나에게 던지었소.

《실감? 췌비린내나는 소리... 유격대의 총알맛을 실감하고싶다는건가? 좋다. 이제 그렇게 해주지. 나는 군이 령리한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구만...》

사흘후 이시하라가 나를 불렀소.

《이제 구마다중위가 러단사령부에 연락을 간다. 러단은 하이단에 있는데 도중에 다께무라로획대의 주둔지를 통과한다. 그 부대의 성적이 좋다고 러단에서 칭찬을 하는데 어디 거기에 가서 유격대의 총알맛을 실감해보라. 용기가 있는가?》

나는 이시하라의 야유와 위협 앞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소.

그리하여 《시보레》합승을 타게 되었소.

일행은 구마다중위와 나 그리고 운전사와 조수였소. 구마다중위는 이름그대로 곰같은 체구와 흰자위 많은 눈을 가진 음침한 사나이였소. 운전사는 개털잡바를 입은 40대의 피로한 얼굴을 한 사람이었고 조수는 16살이나 17살쯤 되어보이는 누데기같은 긴 개털슈바를 발에 닿게 입은 익살긋은 눈이 쾌활하게 반짝이는 소년이었소. 나는 외투우에 두터운 양털목도리를 두르고 구마다곁에 앉았소.

떠날 때 장인과 장모는 또 한숨을 내쉬었고 안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소. 그러나 나는 혼연스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소.

차는 떠났소.

추운날이었소.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하늘은 얼음판처럼 새파랗고 싸늘했소. 차는 산길으로 난 하얀 눈길을 따라 질주했소.

《운전사, 점심전에 하이단에 닿아야 한다. 80키로 시속으로 달리자. 자신있는가?》

구마다가 물었소.

《이런 산길에 80키로시속. 어렵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거다. 늦어지면 너의 무릎마디뼈를 관절꺾기로 부스러뜨릴테다.》

구마다는 뇌였는데 그것이 룡담인지 진담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소.

그러나 그 험한 인상을 주는 중위가 나에게만은 각듯한 정중성을 보였는데 아마도 내가 도표의 이름있는 신문사에서 왔다는것을 알고있고 또 내가 쓰는 글에 혹시 자기의 이름이 올랐으면 하고 바라는듯했소.

차는 달렸소.

사납고 굵이가 많은 산길이라 80키로미터시속은 곤란하지만 어지간히 빠르게 달렸소. 엔진소리도 좋았소.

둔전령을 넘고 청구령을 넘을 때까지는 모든것이 정상이었소. 그러나 구마다는 계속 운전사를 몰아대었소.

《속도를 더 높이라. 나는 오늘중으로 돌아와야 한다.》

《...》

《아직 서고령도 넘지 못하지 않았는가? 여기는 무가촌이다.》

구마다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불만스레 웅얼거렸소. 무가촌? 나는 의아했소. 주변에는 아무런 마을도 보이지 않았소.

《틀림없다. 두달전까지는 이 골짜기안에 150호의 산채농가가 있었다. 그것을 나와 노나까대위가 한개 소대의 역량으로 세시간사이에 정리해버렸다. 남너로스 970여명을 처리했다.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혼자서 29명을 베었다. 노나까는 31명을 베었다고 한다. 눈이 덮이지 않았다면... 그렇지. 저걸 보라. 저 배나무에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다. (고목같은 배나무가지에 무엇인가 검은 자루같은것이 둥둥 매달려있는것이 보였소) 저건 촌장의 시체다. 우리에게 기술했다는 촌장인데 마을을 불태우는것은 그도 반대했다. 그래서 저차를 먼저 매달아놓고 베었다.》

내가 관동군장교들의 포악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것ियो. 그러나 산채농가정리라는 명목으로 그런 엄청난 살륙이 진행되고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소. 관동군의 군사행동이란 이런것인가?!

나는 전율을 느끼며 관동군장교의 표본이라고 할만한 구마다중위의 피비린내가 풍기는것 같은 불수염이 더부룩한 얼굴을 바라보았소. 하지만 의혹과 혐오감이 어린 내 시선앞에서 구마다는 태연자약했고 혼연스레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었소.

《요사이 도표에서는 무슨 이찌고인지 스즈코인지 하는 새로운 향수가 류행된다는데 가져온것이 있으면 하나 선사하지 않겠는가?》

나는 대답을 안했소.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고 왜 그런지 급작스레 치밀어오르는 구토감을 억누르기 위해 허리를 꼬부리고 한참동안 신고했소.

운전사와 하야시소년은 입을 꼭 봉하고있었소.

이때부터 나는 내가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잘못 들어섰다는 의혹을 느꼈고 본의아니게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느낄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소.

장인의 한숨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되새겨졌고 조선인류량민들의 서글픈 행렬이 그 어떤 고발자들의 준엄한 모습으로 눈앞에 얼른거리었소.

차는 계속 달리었소. 마치도 나에게 이미 범행의 궤도에 들어섰으니 이제는 내릴수 없다고 위협하듯이.

차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서려있었소. 엔진소리만이 변함없이 울리고있었소. 엔진소리는 숨가쁘게 느껴졌으나 멎지는 않았소. 길은 험하지만 기관상태가 괜찮은듯했고 운전사의 기술도 능한듯 하였고.

그러나 오전 10시 넘어 차가 북암령어귀로 접어드는 골짜기길을 달릴 때 운전사가 문득 걱정스레 되엿소.

《눈이 올것 같습니다.》

구마다가 무찌르듯 면박을 주었소.

《바보같은 소리, 푸른 하늘에서 눈이 오는가?》

《푸르다는것은 이 골짜기구의 하늘만 그렇지요. 령너머는 다를것입니다. 북동풍이 불니다. 나쁜 징조지요.》

그러고보니 길좌우에 뻥뻥이 들어선 분비와 가문비의 아채기들에 바람이 울부짖고있었소. 산비탈에서 회오리바람이 일며 눈가루를 휘말아올렸소,

운전사의 말은 옳았소.

차가 60리 령길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 하얀 눈송이들이 꽃잎처럼 하나 둘 날리기 시작하더니 그것은 바라보는 사이에 수십, 수백송이로 그리고 몇분후에는 온 하늘을 가득히 메우는것이었소.

온 공간이 눈이었소. 그것도 혼슈북부지방이나 북해도같은데서 볼수 있는 그런 젖은 솜조각같은 눈이 아니라 주먹같은 눈이었소.

《백두산의 눈이구만요?》

조수인 하야시소년이 왜 그런지 목소리를 낮추며 겁먹은듯이 되엿소. 운전사도 침울하게 대꾸했소.

《여기서부터 어려운 구간이다. 눈보라가 치지 말아야겠는데 ...》

《눈보라는 벌써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기 령마루를 보시라요.》

파연 눈보라는 이미 노호하고있었소.

먼 북암령마루, 고개를 쳐들고서야 보이는, 빈대수리처럼 민승민승한 령마루가 갑자기 안개에 휩싸이는것처럼 뻥얇게 되더니 그 어떤 장벽같은것이 옆으로 밀리는것이 보였소. 그것은 눈보라의 장벽이었소. 눈보라는 해일처럼 돌연히 밀려왔소.

모래나 우박같은것을 쏟아붓는듯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차체에 울리었소. 차가 진동했소. 운전사는 차를 멈춰세웠소.

《왜 차를 세우는가?》

구마다가 언짢은듯 물었소.

《자동차가 날릴수 있습니다.》

《바보같은 소리, 자동차가 날리다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가 절벽 밑으로 날아 떨어질수 있지요. 눈보라가 벗어나야 합니다.》

《...》

구마다는 뉘를 찌프렷지만 더 입을 벌리지 못했소.

눈보라가 멎기를 기다려야 했소. 그러나 눈보라는 멎지 않았소. 예상외로 놀라운 폭설이었소. 태양도 눈보라에 가리워 마치 일식때처럼 보이지 않았소. 아직 오전 11시경이었지만 날은 마치 황혼무렵처럼 그물그물 어두워졌고 들리는것은 오직 눈보라의 표호소리뿐이었소.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도 기관이 얼지 않도록 계속 가속답판을 밟고있었소. 그렇지만 차체에 덧쌓이는 눈무지는 어찌할수 없었소. 자동차는 점차 눈속에 묻히고있었소. 눈은 내리고 또 내리었소.

눈보라의 광란은 그치지 않았소. 그것은 눈보라라고만 할수 없는것이었소. 산봉우리가 그대로 멩청 끊어져 허공으로 밀려오는것 같았소. 눈의 장벽이 허공에 가득차 밀려오다가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갑자기 붕괴되면서 눈사태로 변하군했소. 그러한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소. 노호하는 눈보라를 대양의 성난 파도에 비길수 있다면 우리의 합승은 난파직전의 조각배와 같은것이었소.

《점심전의 하이단도착은 실편데요? 오늘 점심은 변했구만요.》

하야시소년이 되엿소. 구마다가 웅얼거렸소.

《차라리 돌아갈수는 없는가?》

《여기서는 하이단도 150리, 룡정도 150리입니다. 진퇴량난이지요.》

운전사가 대꾸했소.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까지 별로 위구를 느끼지 않고있었소. 눈에 묻힌 자동차속에서 하루낮을 보낸들 무슨 큰일이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백두산의 눈을 실감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위험은 눈에만 있는것이 아니었소.

오후 2시에 문득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꺼졌소.

마치 환자의 심장이 림종을 고하듯이.

세상이 갑자기 괴괴해지는것 같았소.

구마다도 안색이 변했소.

《왜 발동을 멈추는가?》

《멈춘것이 아니라 멎었지요.》

《휘발유가 없는가?》

《휘발유는 넉넉합니다.》

《그러면 왜 멎어?》

운전사는 대답없이 계속 가속답판을 눌렀소. 그러나 보람이 없었소.

하야시소년이 방한모의 귀덮개를 내리우고 슈바의 목깃을 올리더니 시동돌리개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소. 소년은 기관부앞과 뚜껑우에 산더미처럼 쌓인 눈을 헤치고 시동돌리개를 꺾으려고 했소. 그러나 꺾을수 없었소. 얼음이 덮였기때문이요. 소년은 기관부뚜껑을 열려고 신고했소. 그러나 뚜껑은 열리지 않았소. 모든것이 얼음에 덮였기때문이요. 운전사도 밖으로 나갔소. 그러나 그도 별 방법이 없었소. 기관부뚜껑은 열리지 않았고 우물거리고있는 사이에 사태처럼 쏟아지는 눈이 그들 운전사와 조수를 눈사람처럼 만들어버렸소. 잠시후 그들은 눈속을 헤엄치며 간신히 차안으로 되들어왔소.

《어떻게 되었는가?》

구마다가 물었소.

《랭각기가 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눈이 멎은 다음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서 녹여야 합니다.》

구마다는 입에 다물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유리속에 갇힌 맹수처럼 으르렁거렸소. 그러나 나는 어찌는수가 없었소.

모두들 목을 움츠리고 죽은듯이 앉아있을뿐이었소. 시간이 흘렀소. 발동이 멎은 차안은 시간이 흐르자 랭장고속처럼 얼어들었소.

어느덧 날은 어둡고있었소.

구마다가 불현듯 역증을 내며 말했다.

《이러고있겠는가? 이건 스스로 얼어죽는 놀음이 아닌가? 운전사,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무를 해오라! 행동해야 한다.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우라. 눈보라도 한풀 숙은것 같다.》

《이 어둠속에서 어떻게 나무를 해옵니까? 도구도 없이...》

《이 밀림속에서 왜 나무를 못해오겠는가? 도구는 이것이면 충분하다.》

중위는 군도를 뽑아들었소.

《자, 이 군도를 가지고 가서 나무를 찍어오라.》

그러나 운전사는 그 군도를 받지 않았소. 구마다가 희번덕이는 눈으로 쏘아보았소. 그 살벌한 눈찌를 본 하야시소년이 얼른 군도를 받아쥐고 밖으로 나갔소.

하지만 운전사는 움직이지 않았소. 구마다는 약이 올라 숨소리가 거칠어졌소.

《너자식은 왜 앉아있는가? 운전사씨라고? 너자식은 출발할 때부터 행동이 굵지 않았다.》

운전사는 타이르는듯 대답했소.

《나무를 해와도 불을 피워선 안됩니다.》

《뭐?》

《불빛을 보면 유격대가 올수 있습니다. 어둠속에서 불빛은 멀리 가지요. 유격대를 초청하는 신호로 될것입니다.》

《유격대가 두려운가. 이 구마다가 있는곳에서도? 겁쟁이같은 새끼... 어서 나가 나무를 해오라.》

그러나 운전사는 다시 철없는 아이에게 이르듯 말했다.

《불을 피우면 안됩니다.》

《건방진 새끼...》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상급은 나다. 내가 명령한다. 불을 피우라.》

그러나 운전사는 운전대에 앉은채 일어서지 않았소.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 구마다쯤 인정하지 않는단말이지? 만만치 않은 자식인데? 좋다. 내가 너자식 버릇을 가르쳐줄테다!》

이렇게 뇌까리자 구마다는 지체하지 않고 덩석 운전사의 뒤덜미를 움켜잡더니 한순간에 차밖으로 끌어냈소.

일이 이렇게 번져질줄은 몰랐던 나는 황급히 뒤따라 나가 중재하려고 했소.

《중위님, 불을 피우면 위험하다고 하는것은...고려할 가치가 있는...》

그러나 구마다는 나를 획 뿌리치고 어느사이에 운전사를 휘둘러메치었소.

《이 구마다를 인...정...하...지...않...는다...?》

구마다는 운전사의 머리칼을 움켜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무릎찌르기로 배허벅에 련속 타격을 가하였소. 운전사는 신음소리도 못내고 몸을 뒤틀었소. 구마다는 운전사의 머리칼을 놓는것과 동시에 이번에는 두주먹으로 안면에 란타를 들이댔소. 운전사의 입과 코가 터지며 랑자하게 피가 쏟아져나왔소.

《이 구마다를 인...정...하...지...않...는다...?》

몇분후 운전사는 각을 뜬 개처럼 늘어졌소.

이미 무가존학살에 대한 구마다의 떠벌임에서 나는 관동군의 《비적토벌》이 어떤것인가를 짐작하였고 그들이 자행하는 만행앞에서 조선사람들이 당한 고통이 어떤것이였겠는가를 상상할수 있었소. 그러나 제 동족인 운전사에게까지 이처럼 잔인무도하고 횡포극악하게 행동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소. 나는 이처럼 인간중요적이며 살인귀적인 군인들이 있었는가 하고 다시금 경악했소.

구마다는 성난 야수처럼 씨근거리었소. 높은 군도를 뽑으려고 하다가 군도는 조수가 가져가고 없으니 권총을 뽑아들었소.

《너자식은 통비분자가 아닌가? 너자식은 통비분자일수 있다. 아니라면... 행동으로 표시하라. 가서 나무를 해오라. 움직이지 않으면 썩죽일테다!》

운전사는 이미 움직일수 없는 상태였소. 그러나 자기에게 개죽음이 닥쳐왔다는것을 깨달았는지 그는 무의미한 죽음을 피하려는듯 간신히 손을 내뻐

치며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오는 어둠속을 향하여 벌벌 기여나갔소. 그것은 가사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버려지가 다시 움직이는 것과 흡사한 모양이었소.

나는 악몽을 보는 사람처럼 망연자실하여 서있었소.

몇분후 하야시소년이 나무를 날라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켰소.

모닥불이 피어올랐소.

불빛에 하야시소년의 뺨에 눈물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소.

나는 가만히 물었소.

《운전사는 어떻게 되었나?》

《...》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소.

나는 운전사가 사라진 어둠속으로 걸어갔소. 그러나 운전사는 없었소.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수 없었소. 나는 돌아와 하야시소년에게 다시 물었소.

《운전사는 어디 있나?》

《내가 어떻게 아나요?!》

원망어린 그 목소리에는 당신이 있으면서도 말리지 못했던말미에요? 하는 항변이 어려있었소. 그때에야 나는 하야시소년이 입고있던 누데기 개털슈바가 없다는것을 깨달았소. 아마도 운전사에게 덧씌워주었으리라고 운전사는 어느 눈구덩이속에 묻혀있으리라고 그것이 살인귀인 구마다열으로 다시 오는것보다 생존 가능성이 더 있다고 타산했으리라는것을 깨달았소.

모닥불은 점차 기세를 올리며 피어올랐소.

그러나 날씨는 혹독하게 추웠소. 어찌도 몸이 얼어드는지 모닥불속에 손발을 들여밀고싶을지경이었소. 하지만 하야시소년은 불을 쪼이지 않고 어둠속에 그대로 서있었소. 울고있는것 같았소.

구마다가 사뭇 너그러운 어조로 소년에게 말했소.

《와서 불을 쪼이라. 불을 쪼이면 운전사자식이 얼마나 바보인지 알게 될거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소. 소매귀로 눈물을 훔치는것이 보였소.

유격대가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10분후였소.

갑자기 어둠속에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는것 같았는데 다음순간 설피를 신은 사람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덮쳐들었소.

《유, 유격대다?!》

하야시소년의 놀란 소리와 모닥불빛에 언뜻 드러난 백포를 쓴 사람들의 분노어린 얼굴과 구마다중위가 군도를 뽑아드는것과 그리고 무엇인가 후두부에 가해지는 타격을 느꼈을뿐 나는 그 즉시에 의식을 잃었소.

내가 다시 의식을 차린것은 어느 귀틀집안이었소.

창문으로는 해빛이 스며들었고 벽가에 난로불이 타오르고있었소. 나는 새초침우에 누워있었소..

《정신이 들어요?》

누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소. 그것은 하야시소년이었소. 사뭇 유쾌한 얼굴이었소.

《여기가 어디냐?》

《적색구역요. 어제밤 체포되던 일이 생각 안나요?》

《체포? 그렇지 생각난다... 그런데 넌 어떻게 무사하구나?》

《인차 손을 들었지요. 유격대는 비군사인원에게는 관대하다는것을 알고있었거든요.》

《구마다중위는 어떻게 됐느냐?》

《아침에 불리워나갔는데 아직 안돌아왔어요. 그자는 무사하지 못할거예요. 유격대원들이 그자의 군도를 뽑아보며 말하던데요. 이놈이 이 칼로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을 배죽였겠소? 우리 어머니와 할아버지도 바로 이런 칼에 몸뚱이가 찢리워죽었소... 그렇지만 미우라상은 구마다와 다르지요. 군도와 만년필은 같을수 없거든요.》

정말 다르겠는가? 나는 자신이 없었소.

이때 문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소. 소년들의 씩씩한 목소리였소. 행진하면서 부르는듯했소. 조선말을 몰랐던 나는 하야시소년에게 물었소.

《저건 어떤 뜻의 노래냐?》

《똑똑히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통역하면... 투사는 희생되어 붉은 기발에 싸였다. 투사가 흘린 피는 붉은 기발을 더 붉게 물들인다. 피어린 기발을 더 높이 들라... 이런 뜻이구만요.》

또 새로운 노래가 들려왔소. 처녀아이들의 구슬같은 목소리였소.

《저건 무슨 뜻이냐?》

《조선의 아침은 꽃처럼 곱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맑은 아침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구만요.》

《유격대원들이 너는 심문하지 않았나?》

《몇가지를 물어봤어요. 언제 일본에서 건너왔는가? 나이는 몇살이고 직업은 무엇인가? 사실대로 죄다 대답했지요. 난 비군사인원이거든요. 교아구 열여섯살이구 조수라구요.》

《그것으로 다냐?》

《왜 교아가 됐느냐구 물기에 아버지 탄광에서 굴에 묻혀 죽었구 어머니 네살난 날 외할머니에게 맡기구 재가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외할머니 재재작년에 죽었구 그러니까 난 교아가 될박예요. 조선말은 여기 와서도 배웠지만 탄광마을에서 조선아이들과 놀 때 벌써 배웠다구요. 그랬더니 심문하던 유격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날더러 손바닥을 펴보라구 하겠지요. 손바닥을 펴보이니 깐깐스레 만져보았어요. 장알이 박혔군... 또 고개를 끄덕이며 썩살이 박혔소. 어린 소년이 고생을 했소... 이렇게 말하고나서 배가 고프는가? 배가 고프면 사양 말

고 먹으라고 하면서 강낭떡을 손에 쥐여주겠지요. 절반은 먹고 절반은 미우라상이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잡썬보세요. 구수해요. 하이단에서의 점심식사가 이렇게 변했군요.》

하야시소년은 내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다정하게 속삭였소.

《미우라상, 걱정 말라요. 미우라상도 비군사인원이 아닌가요. 비군사인원인것만 증명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수 있어요.》

비군사인원 ?

물론 나는 군인은 아니었소. 그러나 관동군의 《토벌》 작전을 취재하려고 따라다녔으니 어찌 유격대의 동정을 기대할수 있겠소? 내 손바닥에는 장알도 없었소. 사무원가정에서 출생하여 고스란히 학교를 다닌 내 손바닥에는 하야시소년의 손바닥과 같은 썩살도 박혀있지 않았소. 유격대원들이 나를 동정해줄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소.

나는 내 운명이 이곳, 백두산록의 이름모를 밀림속에서 끝장날수 있다는것을 각오했소. 안해의 우는 얼굴이 떠올랐소. 《자네는 신부를 랍치당하고싶은가?》하고 룡담 겸 진담으로 말하던 장인의 얼굴이 떠올랐소. 안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랍치당하는것으로 끝났지만 장인의 위구는 현실로 된것이요. (죽더라도... 비겁한 꼴은 보이지 말자. 그러나 구마다같은자들이 저지른 죄과를 내가 보상하게 된것은 섭섭한 일이나.)

정오가 다 되었을 때 나는 불리워나갔소.

허리에 작탄을 차고 마레상보총을 멘 처녀유격대원이 나를 호송했소. 이제 이 녀성유격대원이 저 구식보병총으로 나를 총살하겠는가? 내가 마레상보총을 유심히 보자 그 처녀유격대원은 총구를 겨누며 성을 냈소. 《뭘 보니. 이 강도같은자식? 짜죽일테다!》 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분노어린 어조와 번쩍이는 시선으로 보아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짐작하오.

수림속길을 퍼그나 걸어갔소.

멀지 않은 골짜기에 귀틀집들이 보였소.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간도적색구의 한 마을이었소. 남녀마을사람들이 활기있게 일하고있는것이 눈에 띄었는데 동작으로 보아 탈곡하는것 같았소. 그들이 어찌도 흥겹게 일하는지. 어찌도 쾌활하게 웃는지 나는 한순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소. 나는 그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선사람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웃는것을 보지 못했소. 그때까지 내가 본 조선사람이란 관부련락선에서 내리는 우울한 얼굴의 로동자들과 논밭에서 일하는 찌들린 얼굴과 농군들과 이불집을 진 수심어린 이주민들...이런 사람들이었소. 그런데 유격구에 사는 이들은 분명히 그들과 똑같은 조선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인상이었소. 이곳 유격구의 조선사람들에게서는 그

어떤 당당함이, 그 어떤 신심이, 그 어떤 자부심이 느껴졌소. 나는 문득 구마다따위들이 정복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도 존엄이 있으며 구마다따위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힘에 부치는 상대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한무리 유격구소년들이 (그들은 모두 빨간 넥타이를 매고있었소) 지나가다가 나를 보자 모두 걸음을 멈추더니 우르르 에워싸고 구경했소.

《뵈...》

한 아이가 나를 향해 침을 뱉었소.

(우리 군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보상인가? 그 보상으로서는 너무도 적다) 나는 생각했소.

눈덩어리가 날아와 면바로 내 코등을 맞혔소.

《하하하하...》

소년들은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며 웃었소.

(우리 군인들이 조선사람들에게 준 모욕의 대가이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적지.)

나를 호송하던 처녀유격대원이 아이들에게 책망조로 무엇이라고 말하자 소년들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침을 뱉고는 돌아서 가던 길을 가버렸소.

몇분후 나는 산기슭에 외따로 있는 한 귀틀집에 당도했소.

그 집 마당에는 기발대가 있었고 붉은 기발이 펼쳐이고있었소. 아마도 지휘부인것 같았소.

문앞에는 보조병이 서있었는데 문을 통과하너 어지간히 넓은 방안이 나졌소.

방 한가운데에 통나무로 무은 탁자가 놓여있고 그 두리에 몇사람의 유격대원들이 둘러앉아있었소. 어깨띠를 매고 모젤권총을 차고있는것으로 보아 지휘관들인것 같았소. 무슨 협의를 하는지 조용한 어조로 이야기하던 그들은 처녀유격대원이 나를 끌고 들어오자 하나같이 입을 다물며 적의에 찬 시선으로 쏘아보았소.

얼굴이 길쭉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한 지휘관이 류창하지는 않으나 정확한 일본말로 물었소.(학생출신이거나 하고 나는 짐작했소.)

《당신이 미우라 다게시요?》

《그렇습니다.》

《직무는?》

《기자입니다.》

《어느 신문이요 ?》

나는 대답했소.

《그럼 이것은 당신의것이겠소?》

통나무탁자우에 있는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는데 그것은 나의 취재수첩이었소. 아마도 내가 의식을 잃고있는 사이 유격대원들이 몸을 수색하고 가져온듯하였소. 나는 대답했소.

《저의것입니다.》

《웬대로 군국주의에 복무한단말이지?》

《...》

《당신은 어떤 글을 썼소? 지금까지 쓴 글중에서 일본제국주의를 가장 숨치 않게 찬양한 글은 어떤 것이요?

말해보우. 우리는 당신네 출판물도 보고있소.》

《...》

그의 곁에 앉아있는 나이 지긋한 어깨가 짝 벌 어지고 얼굴이 넉적한 한 지휘관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무엇이라고 말하였소. 그러자 일본어를 아는 지휘관이 통역했소.

《이 사람은 묻고있소. 당신들은 우리 유격대를 비적이라고 하는데 비적을 본 감상이 어떤가?》

《...》

얼굴이 거무스한 체구가 거울진 또 한 지휘관이 물었소.

《당신은 당신의 만년필과 구마다의 군도가운데서 어느것이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오?》

《...》

《당신네 조수소년의 말을 듣고 우리는 운전사가 있다는 눈구덩이속에 오늘아침 가보았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시체로 되어있었소. 상처투성이인 얼굴엔 피가 얼어붙어있었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소? 아마 당신이 기사를 쓴다면 구마다놈을 <우매한> 민족을 선도하기 위해 비적과 고전분투한 의로운 장교로, 운전사의 참혹한 죽음은 비적들의 만행으로 묘사할것이요.

구마다의 군도는 사람들의 목을 베지만 당신의 만년필은 사람들의 눈에 독소를 주입하고있소. 그것도 한두사람의 눈이 아니라 수천, 수만사람의 눈에...

우리는 구마다같은자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소. 우리는 이미 그런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혁명전쟁을 진행하고있소. 그런데 당신같은 만년필 권여우들은 그 처리가 말썽단말이요.》

나는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소.

《저는... 별로 쓴 글이 없습니다... 신입기자입니다.》

그러자 그 지휘관은 왈작 성을 냈소.

《처벌이 두려운가? 제 목숨은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놈들이 어떻게 조선사람은 그리 무자르듯 마구 죽이는지 모르겠군. 당신은 피바다라는 말의 뜻을 아는가? 신입기자? 그럴듯한 변명인걸.》

《저는 사실...》

나는 입을 벌리려다가 그만두었소. 더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깨달았기때문이요. 어차피 구원될 가망은 없었소. 구마다의 군도와 내 만년필에 대한 논박할 여지없는 분석을 가한 그 유격대지휘관들에게서 내려질 판결은 명백한것이였소.

나는 눈을 감았소. 나는 무감각상태에 있고싶었소. 무감각상태에서 최후를 맞이하고싶었소.

나의 최후시각은 이제 몇분이나 남아있는가?

마레상보총의 총구가 보이는것 같았소.

이때 문득 문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었소.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않았소.

우렁우렁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리었소. 무엇이라고 묻는 어조였소.

그 물음에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소. 일본어를 아는 지휘관의 목소리였소. 그 사람은 오래동안 설명했소.

뒤이어 종이장을 번지는것 같은 소리도 들리었소.

방안은 이상스레 조용해졌소. 아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소.

종이장 번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소.

한참후 누가 내곁으로 걸어오는듯한 기척이 들리더니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나직이 물었소.

《이것은 당신이 쓴것이요?》

나는 눈을 폈소.

나는 한 젊은 유격대지휘관을 보았소.

다른 지휘관들과 똑같은 군복에 똑같은 모젤렌 총을 찬, 그러나 숙연한 인상을 주는 키가 후리후리한 지휘관이였소. 침착한 안색, 정기어린 주의깊은 안광...

그 지휘관은 근엄한 눈빛으로 나를 주시하였는데 그 시선에 부닥친 나는 자기도 모르게 위압감과 전율을 의식했소.

앉아있던 다른 지휘관들은 어느새 모두 일어서있었소. 그들의 정중한 몸가짐으로 보아 나는 이 젊은 지휘관이 이곳 유격부대의 책임자이거나 정치위원일것이라고 짐작했소.

그 지휘관은 다시 나에게 물었소.

《이 글은 누가 쓴것이요?》

그 지휘관의 손에는 내 취재수첩이 들려있었는데 어느 한곳을 펼쳐보이고있었소. 들여다보니 바로 그 류량민에 대해서, 얼음이 불기 시작하는 강을 맨발로 건느는 조선이주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소묘한 대목이였소. 나는 대답했소.

《제가 쓴것입니다... 간도에 도착하여 본바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한숨을 내쉬었소. 그러더니 유감스러울듯 이렇게 뇌었소.

《이런 현상을 볼줄 아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수 있는 사람이... <토벌대>로 종군한단말이요? 그리고는 <토벌대>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

그 지휘관은 이해되지 않는다는듯 나를 주시하며 다시 뇌였소.

《당신은 지성인인데… 지성은 량심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소? 당신은 어떤 종군기를 썼소?》

《아직… 아직… 쓴것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저는 신입기자입니다.》

《신입기자가 어떻게 이런 먼곳에 파견되어왔소?》

《휴가를 받고왔다가… 장인이 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보… 본사에서 지령이 왔습니다…》

내가 더듬거리며 설명하는것을 그 지휘관은 주의깊이 들었으나 더는 말이 없었고 내 취재수첩을 손에 쥔채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소. 그 지휘관은 오래동안 아무 말이 없었소. 그 지휘관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소. 내 말의 진의를 저울질하는것인지 아니면 자기 겨레에게 더 할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주고있는 가증스럽고 악착스런 족속의 한사람인 나에게 어떤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인가를 가늠하는지…

시간이 흘렀소. 그것은 나의 최후의 시각이었소. 그런데 문득 그 지휘관은 걸음을 멈추더니 다른 지휘관들을 향해 조용히 무엇이라고 말했소. 그리고는 나에게로 돌아서며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것이었소.

《우리는 당신을 석방하려고 하오… 우리는 당신을 처벌할 필요를 느끼지 않소. 당신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당신이 더 잘 알거요. 돌아가서 지성과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사시오.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यो…》

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소. 꿈같은 말이었소.

그 지휘관은 타이르는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소.

《지성은… 량심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것이요. 지성인으로서 기자의 직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오. 기자란 사회여론의 대변자가 아니겠소? 우리 나라에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격언이 있는데 정의를 어데서 찾아야 하는가를 시사해주는 말이요.

량심과 정의의 편에 서시오.

류량민들을 보면서 당신은 의혹과 동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곧 량심이었소.

량심은 진실을 찾는 마음ियो. 만약 당신이 굴함없이 진실을 찾는다면 우리와 공통한 언어를 발

견할수도 있을것ियो, 그러면… 장차 우리는 벗으로 될수도 있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며 그 지휘관은 불현듯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도 눈부신지, 어찌도 인정에 넘치는지 나는 눈앞이 휘황해지는것 같았고 갑자기 태양을 가까이에서 보는것 같았소. 나는 환희와 감격에 자기도 모르게 흐느꼈소. 나는 뜨거운 눈물이 내고이는것을 의식했소.

그 지휘관은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했소.

《우리는 많은 벗을 가지기를 바라는 사람ियो. 벗은 많을수록 좋고 원쑤는 적을수록 좋은것이요.

하야시오넨도 데리고 가시오. 그러나 구마다에 대한 처리는 혁명재판에서 결정할것ियो.》

이렇게 되여 나는 석방되어 돌아왔소.

그러나 고백하거니와… 그후 나는 그 유격대지휘관의 당부대로 살지 못했소.

나는 도교본사로 돌아갔고 이어 웅근 두면에 걸치는 나의 종군기가 채자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내가 쓴것이 아니었소. 내가 쓴것은 두만강 지구의 자연과 풍물에 대한 몇줄의 묘사만 남고 그밖의것은 전부 이시하라중좌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편집장이 뒤집어놓은것이었소.

《젊은 친구, 신문글이란 이렇게 쓰는거야.》

나는 사장실에 뛰어올라갔지만 《륙군성에 가보라!》는 벽력같은 노성앞에서 한마디의 항변도 못했소. 륙군성으로 찾아간다는것은 더 말할것 없이 함정에 뛰어드는것인데 나는 그때 그럴 용기가 없었소. 나는 고민했고 안해는 울었소. 그러는 사이에 종군기는 발표되고…

종군기는 설명할 여지도 없이 조선유격대에 대한 외곡과 《토벌대》의 전과에 대한 허위로 엮여진것이었소.

선생!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미부터 조선에 가보고싶었소. 하지만 가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바로 치욕스러운 종군기가 내 발목을 붙들었기때문ियो.

70이 가까와져서야 나는 더는 미룰수 없어 조선을 찾았소.

나는 유격구에서 목격했던 그 활기찬 기상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는것을 보았고 그 비참한 이주민들, 그 불쌍한 류량민의 역사를 가진 인민이 얼마나 위력한 인민으로 되었는가를 보았소. 가장 버림받았던 인민이 가장 복받은 인민으로 된것을 보았소. 얼음이 붙은 넓은 강을 남부너대 맨발로 건너가던 인민이 이제는 조그마한 시내물도 《사랑의 다리》를

놓고 건느고있었소. 그 《사랑의 다리》야말로 현대조선의 불멸의 기념비라고 나는 생각했소.

나는 9.9 절을 앞두고 조선을 방문했는데 그것은 명절날 멀리에서나마 주체조선의 위대한 건국자인 **김일성** 주석님을 뵙고싶었기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주석단에 오르신 그분을 뵈웠소.

그런데... 이런 뜻밖의 일이 어데 있겠소?!

그날의 그 지휘관, 나에게 지성인의 사명에 대해 깨우쳐주신 그 유격대지휘관이 바로 주석님이실 줄이야 꿈엔들 어찌 짐작이나 했겠소?!

물론 조선에 가기전에도 나는 출판물들에 실린 초상화를 통해 주석님의 모습을 많이 뵈웠소. 그러나 주석님의 초상화에서 근 반세기전의 그 젊은 지휘관의 용모를 나는 알아보지 못했었소.

주석단에 서게신 주석님, 특히 소년단원들이 달려올라가 붉은넥타이를 매드릴 때,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환하게 웃으실 때, 그 태양과도 같은 눈부신 웃음을 보았을 때에야 나는 바로 그 유격대지휘관의 인정에 넘치던 따뜻한 미소, 그 황홀한 웃음을 상기했고 주석님께서 바로 그 유격대사령관이었음을 확인했소.

그렇소. 주석님께서 그때 그 붉은 기발을 띄운 귀틀집에서 나를 만나셨고 내 취재수첩에 적힌 이 주민에 대한 몇줄의 글을 분에 넘치게 평가하시었으며 지성과 량심에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셨던 것이요.

내가 얼마나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주석단에 계시는 주석님을 우러러 뵈웠겠소. 주석님의 해빛같은 미소를 바라보면서 나는 주체사상의 정수는 바로 인간애라는것을, 인간애가 발견한 인간의 힘에 대한 신념이라는것을 깨달았소.

나는 모든 관계를 무릅쓰고 주석단에 달려올라가 주석님께 인사를 드리고싶은 충동을 누를수 없었소. 하지만 다음순간 나는 나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것을 깨달았소. 주석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을 나는 지키지 못했기때문이에요. 배신했기때문이에요. 그렇소. 나는 배신자였소. 주석님께서는 나에게 지성과 량심이 가리키는대로 살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소.

나는 감옥과 실직 그리고 젊은 안해의 눈물이 두려워 조선유격대를 중상하는 글이 새겨진 연판을 깨뜨려버리지 못했소.

선생은 나에게 명절행사가 마감지어질무렵 주석님께서 외국손님들을 다 접견해주실거라고 암시했지만 나는 주석님앞에 감히 나설수 없는 몸이라는것을 깨달았소.

물론 그 종군기 이외에 나는 다른 파오를 범한 것은 없었고 그 종군기도 40 여년전의 일이며 망각의 안개속에 사라져버린 것이었소. 누구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었소.

하지만 그것은 량심의 상처로서 내 가슴속에는 남아있었소. 흘러간 긴 세월도 그것을 씻어버리지는 못했소. 백두산록에서 만났던 조선유격대원들을 잊을수 없듯이, 백두산의 눈보라를 잊을수 없듯이 그 상처도 또한 잊혀지지 않았소.

그러니 그 오점을 가슴에 안고 어떻게 그이앞에 태양같은분앞에 나서겠소?

9.9 절날 경춘광장에서 나는 심장에 경련을 느꼈는데 그것은 모처럼 그분 가까이에 와가지고도 그분앞에 도저히 나설수 없다는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소.

그래서 돌아왔던거요.

그렇다고 내가 주석님을 만나뵈우려는 희망을 영원히 포기했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시요. 나는 다시 조선으로 가겠소. 그리고 꼭 **김일성** 주석님을 찾아뵈겠소.

그것은 언제인가? 내가 그럴 자격을 가지게 될 때, 그날의 파오를 보상할만한 일을 해놓았을 때일 것이요.

나는 늦었지만 그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오.

나는 그 첫걸음으로서 우리 거리에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내왔고 계간잡지 《인간애와 주체사상》을 발간하기로 했다는것을 알리는바이요. 이 연구소조운영과 계간잡지에 나의 모든 정력과 여생을 다 바치기 위해 나는 오랜 세월 근무해온 신문사에 사표를 냈소.

선생!

내가 다시 평양을 찾을 때 이 늙은이를 부디 벗이라고 불러주기 바라오...

편지는 여기에서 끝났다.

나는 후더운 감격을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양의 어디서나 보이는, 지구의 어디서나 다 알고있는 대동강반의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멀리 어둠속에서 등대불처럼 빨갭게 타오르고있었다.

어린 딸아이가 다가와 내 무릎을 그러안으며 물었다.

《아버지, 누구한테서 온 편지나요?》

《음, 벗에게서 온 편지다. 일본에도... 세계 어디에도 다 우리의 벗들이 있지. 없던곳에도 새로 생긴다. 자꾸자꾸 생기지...》

왕재산의 봄

그리운 조국산천

앞을 가려볼수 없게 하는 짙은 안개속의 어데선 가 유정한 두만강의 물결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두만강을 건너오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젖은 행전에서 풍겨오는듯한 이른봄의 서늘한 대기, 봄빛 짙은 파원의 아침이슬에 젖은 일사귀들, 땅김이 피여오르는 갈아엎은 논벌... 이 모든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은 뛰었다. 우리의 앞에는 끝은 포장도로가 왕재산으로 시원스럽게 뻗어갔다.

력사의 땅, 온성의 아침이다.

답사려관에서 왕재산까지는 불과 시오리길이였으나 우리는 이 길을 무심히 걸을수 없었다.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했고 혁명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는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이 행군길에 오른것이다. 어느덧 탑이 보인다고 누군가 낮게 소리쳤다.

순간 안개를 헤치며 눈앞에 번쩍이는것이 보였다. 대기념비의 봉화가 우리의 머리우에 빛나고있었다. 안개 걷히는 왕재산의 승엄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1933 년 3 월, 두만강을 건너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리운 조국땅 왕재산에 오르시였다. 력사의 그날을 기념하여 이곳에는 대기념비가 솟아올랐다. 활활 타오르는 봉화, 한손 높이 드시고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그이를 우러러 산천도 초목도 설레이는데 감격에 목메여 만세를 부르며 달려온 인민들의 군상!

왕재산에 해빛이 넘친다.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

왕재산혁명박물관은 웅장한 대기념비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독특한 외적인 건축미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의 력사를 포괄하는 그 내용의 풍부성으로 하여 우리의 가슴에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서관으로부터 시작하여 매 사적실마다에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조국에 개신하신 력사적인 나날에 이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답사로정에 체험한 사연들과 함께 다시금 심장깊이 받아안은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서찬

참관을 마친 우리는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화강석으로 부각된 《피바다상》앞에 이르렀다.

태양을 우러러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한 어머니는 드디어 성시공격전에서 적의 성문을 단신으로 열어제끼는것이다. 수난의 피바다는 혁명의 피바다로 되었다. 어머니는 울지 않는다. 운다면 그것은 장군님따라 싸우는 길에 살아도 죽어도 광복을 찾으리라는 맹세와 행복의 눈물일것이다. 그 눈물너머 그러본 그리운 조국산천에 우리가 사는것이다.

거룩한 자욱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 이르니 벌써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수많은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년학생들의 답사대오가 넓은 교양마당에 짙 들어차있었다.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옷깃을 여미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웠다. 두만강을 건너오신 그날의 마르지 않은 행전에는 아직도 물방울이 떨어지는듯...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억척만만 죽더라도 원쑤칠 불타는 맹세를 다지며 무장을 억세게 틀어잡는 항일투사들의 불굴의 모습, 그이 품에 안겨 행복과 희망에 넘친 어린 소년,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반일성전에 떨쳐나서는 인민들...

여기서는 모든것이 숨쉬고있다. 살아움직이고있다. 바로 이 삶의 언덕에서, 영생하는 모습들앞에서 우리는 계승자의 사명을 자각하며 심장의 고동소리에 피를 뿜으며 귀를 기울이게 되는것이다.

《오늘 왕재산이 이처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된것은 몸소 이곳에 오르시여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은정깊은 배려가 있었기때문입니다.》 강사의 말이였다. 1974 년 5 월 15 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고향인 유서깊은 회령의 갈림길을 지나시여 왕재산대기념비 건설장을 찾아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비물에 진흙이 질벽거리던 험한 산세와 잡관목을 헤치시고 몸소 여기에 오르시였던것이다. 왕재산대기념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력사적인 회의를 지도하신 자리였던 왕재산중턱에 세워야 의의가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교양마당을 넓힐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여 대기념비를 장덕산기슭에 세우려던 일꾼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시

며 기념비건설에서 기본원칙은 기념비를 사적지에 접근시키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사적지의 지형을 거둬 살피시던 그이께서는 대기념비를 왕재산 중턱에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사적지를 더 잘 부각시키기 위해 도로를 넓게 직선으로 뻗으며 주변건설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날이 저물도록 험한 길을 걸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와 대기념탑, 혁명박물관, 사적비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자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일일이 보살피주시고야 산을 내리시였던것이다.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 사적비문의 글줄들을 더듬으며 이깔이며 소나무들이 청청 설레이는 푸른 숲을 배경으로 청동으로 새겨진 조각군상들을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끊임없는 항도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생각하였다.

우리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이 성스러운 언덕에서는 사소한 잡념도 그 어떤 허위와 가식과 비판도 씻은듯이 가셔진다. 이 마당에서는 오직 혁명할 결의만이 더욱 굳어지는것이다. 싸-서늘한 밀림의 바람은 항일혁명투사들의 부각상앞에 서있는 우리의 가슴에 그 어떤 충동과 혁명적 랑만을 불러일으킨다.

유격대말파리를 함께 타고 승전고를 울리며 천고의 밀림속을 달리고싶었고 저 연길폭탄을 가슴에 안고 백병전의 한복판에 뛰어들고싶었다. 혁명의 사령부를 지켜 최후결사전으로 나아가며 바위들을 높이 들어올린 한 항일혁명투사의 조각상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가 아직도 자기 세대의 성스러운 위업을 자각하지 않고 리기적인 행복과 안락만을 추구하여온적은 없는가!

폭풍을 뚫고 세월을 넘은 저 뜨겁고 절절한 눈빛을 몇몇이 마주볼수 있단말인가! 우주가 비친 그 눈빛에서 우리는 자기 세대의 모습을 비쳐본다. 자각하라!

세월이 흐른 뒤에도 항일유격대원이 추켜들고 있는 저 돌에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세기적인 의무가 집약되어있는것이 아닌가!

항일혁명투사는 말한다.

《위업은 계속된다. 보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따라 우리는 영원히 한길을 간다!》고

나의 뒤에는 문덕에서 온 농장원처녀가 서있었다. 그의 뒤에는 희천에서 왔다는 청년... 먼 후날 우리의 후대들도 여기서 항일혁명투사들과의 상봉을 기다릴것이며 그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것이다. 《동요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다진 맹세 변치 말라!》 나는 그 어떤 양양된 정신적 승화를 확실히 심장으로, 온 뱃으로 감수하였다. 여기로 오라! 그대에게 만일 조금이라도 나약한 생각이 있었다면, 당신이 순간이라도 일시적인 난관앞에서

신심을 잃고 주저앉은적이 있었다면,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쳐다본적이 있었다면! ... 그러나 구태여 웨칠 필요가 없음을 나는 즉시에 깨달았다. 훨씬 먼저 자각한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 걸어갔고 지금도 왕재산을 찾아오는 계승자의 행군대오는 그치지 않는것이다.

라막골

푸른 숲속에 유묘한 하얀 붓나무들사이로 난 길을 따라 왕재산열봉우리로 내려간 우리는 밀영과 회의장소를 돌아보기 위해 라막골로 향하였다. 두만강 기슭을 따라 약 40 분간 행군을 계속하였다. 손에 닿을듯 가깝게 보이는 맞은편의 중국 훈춘현을 횡단하는 도로에는 이따금 자동차들이 오가고 드문히 아담한 살림집들이 보일뿐 푸르른 두만강에 비친 연안풍경은 고요하였다.

두만강! 저 고요속에 100 여필의 군마들이 울부짖으며 푸른 물결위에 갈기를 날리던 장쾌한 모습과 원호물자를 건넌 도하전투의 총성은 어디로 갔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량수천자의 한 농막집 이름없는 로인내외를 도와 손수 도끼로 얼음구멍을 까고 물을 길으신 그날의 잊을수 없는 사연도 이 두만강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것이다. 항일의 전설도 많고 굵이마다에 피어린 자욱이 력력한 이 흐름을 따라 강기슭을 하염없이 오르내리고 싶었고 심장에 메아리치는 투사들의 웨침을 따라 멀리 회령의 망양나루도 찾아보고싶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이 강을 넘나드시며 광복의 해발이 되시여 인민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었다. 오늘도 푸르려 출렁이는 강, 버들숲이 우거진 력사의 강-두만강...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라고 웨치며 여기에 피를 뿌리고 다시는 솟아오르지 못한 항일혁명투사들...

력사의 강, 두만강은 피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맹세와 환희의 그 모든 만단사연을 깊숙이 안고 웨침도 하소연도 없이 유정하게 흐른다. 심장을 바치는 사람에게만 뜨겁게 흘러들며 속삭인다.

《항일혁명투사들의 뱃은 그대의 심장속에 살아있다!》고

라막골의 왕재산밀영은 량수천자의 술골이 바라보이는 밀림속에 있었다. 멀지 않게 바라보이는 산밭너머 수십리가량 들어가면 소왕청이 있고 바로 거기 마촌에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있었다는 강사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좀처럼 눈길을 돌릴수 없었다. 붉은기 날리는 소박한 사령부귀틀집을 그려보며 수림속으로 들어가던 우리는 그 어떤 구령이나 내린 것처럼 문득 멈춰섰다. 이깔이며 붓나무가득찬 밀림의 정적속에 새초이영을 올린 자그마한 밀영이 보였다.

바로 이 밀영을 거점으로 항일혁명투사들은 장군님의 왕재산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국내정치공작을 벌였었고 여기에 저장하였던 유격대원호물자들을 두만강으로 건너보냈던것이다. 온성과 국내인민들이 지하혁명조직을 통해 장군님께 올린 지성어린 붉은 축기들도 이 왕재산밀영을 통하여 사령부에 전달된것이였다. 이 소박한 밀영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밤이면 우등불을 지피고 고향과 그리운 부모처자에 대하여, 기어이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대하여 생각하였을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 사진을 찍으려고 서둘러 자리들을 잡았다. 겨우내 눈에 묻혔다가 봄을 맞아 녹아내린 그 눈물에 깨끗이 씻겨져 더욱 하얘진 봇나무 한그루에 등을 기대고 서니 마치 어데선가 사향가의 은은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하고 머리를 드니 이른봄의 훈향이 가득찬 밀림속에 달빛이 쏟아져내리는듯하다. 불씨를 탁-탁 튀기며 너울거리던 우등불자리는 어데고 명상에 잠긴 지휘관이 걸터앉았던 나무그루며 흩어진 귀밀머리를 쓸어올리며 이슬넘치는 두눈을 감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던 너대원이 기대여섯던 흰 봇나무는 어데 있는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걱정과 눈물과 의욕과 맹세와 환희가 굽이치는 혁명가들의 세계를 사무치게 안아보았다.

불멸의 력사

1933년 3월초, 항일유격대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량수천자 숲골에 이르시여 국내진출을 위한 준비를 갖추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드디어 두만강을 건너 력사의 땅 왕재산에 진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을 건너오신 그 력사의 기슭에서 우리는 사적비문에 대한 해설을 듣고나서 왕재산회의의장소를 향하여 걸음을 다그쳤다.

깊숙한 골짜기를 왼쪽으로 떨구며 비교적 가파롭게 올리뻤은 산세를 따라 소나무, 이깔, 자작, 황철, 물푸레, 고로쇠, 박달, 참나무들이 짝 들어섰으나 답사자들의 못발에 다져진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조금도 방해되지 않았다. 우리를 처음부터 안내하여온 친절한 강사는 타막골의 유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옛날 이곳에는 참나무가 많았는데(물론 지금은 훨씬 적어졌다) 멀리에서 살길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숲구이막을 차려놓고 숯을 구웠다 하여 탄막골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 고유한 의미가 희미해지고 부

르기 쉽게 《운색》되어 자연 《타막골》로 되었다는것이다. 우리는 숲속으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해빛이 걸리는 이깔의 밀림이 시작되였다. 벌써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진달래는 녹다남은 눈무지에 금시라도 연분홍빛을 뿌릴것만 같았다.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도 무심히 스쳐보내지 않는 답사자들 모두의 심정이 그러듯이 우리는 빙설에 묻혔던 어느 이깔이나 소나무가지에 혹시 항일혁명투사들이 남겨놓은 그 어떤 력사적인 유물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여 자주 눈길을 돌리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이깔의 밀림이다. 아침부터 행군을 시작한 우리의 걸음도 이제는 퍼그나 지쳐버렸다. 녹다 남은 음달의 눈무지를 밟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마구 뒤엎킨 잡관목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간 항일혁명투사들의 발자욱을 따라 고난에 찬 행군을 다문 얼마간이라도 체험해보려고 애썼다. 우리 세대가 력사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은 《고난의 행군》이 인류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했다는것, 그 간고한 행군을 이겨내게 한것은 그 끝에 있을 안락이나 명예에 대한 갈구가 아니라 인간이 위대하다는 진리에로의 도달이라는 그 엄숙한 자각이였다는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들에게 스스로 물음을 제기할뿐이다. 《너는 그 <고난의 행군>을 끝까지 갈수 있는가?》

걸어갈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광복의 맹세를 다지며 조국땅에 진출한 항일혁명투사들과 그이의 부르심을 받들고 왕재산으로 달려온 국내혁명조직원들의 그 발자취에 삼가 우리의 자욱을 이으며 불멸의 력사속으로 걸어가는것이다.

붉은 저녁노을

우리는 드디어 한그루 참나무가 설레이는 왕재산마루에 올랐다. 바로 이 력사적인 장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3년 3월 11일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원회의를 여시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왕재산회의방침은 전체 인민을 항일무장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며 우리 인민 자신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게 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33년 3월 하순 경원군 류다섬에, 5월 28일 종성군 신흥촌에 몸소 나오시여 왕재산회의방침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으며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

여나가지였다. 하여 왕재산밀영을 비롯하여 수많은 밀영들이 건설되고 주요도시들과 철도연선들에 비밀 연락장소가 설치되었으며 온성, 중성, 회령, 경원(은덕), 경흥(새별), 선봉, 무산을 비롯한 북부조선 일대의 넓은 지역에 반유격구가 형성되어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준비해나갔던 것이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오랜 력사의 증견자인 참나무를 바라보았다. 몇해전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멀리 한평생 걸어오신 혁명의 수만리길을 회고하시면서 이 참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셨던 것이다. 참나무! 그것은 또한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구상을 안으시고 왕재산에 오르시었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자욱을 길이 전하고있는 것이다.

그 참나무를 배경으로 우리도 사진을 찍었다.

어느덧 왕재산마루에 노을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일행의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내려수록 거대한 산악을 안은듯 우

리의 심장은 높뛰었다. 우리의 로정은 끝났다. 아니 이제부터 우리의 행군길은 시작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불멸의 력사를 안고 간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영원히 이 길을 가리라 다진 맹세 변치 말자!

숲이 온통 노을속에 물들자 왕재산의 봄은 한결 더 장엄하게 느껴지었다. 력사의 그날부터 시작된 왕재산의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고오신 조국의 봄! 미구하여 이 아군은 진달래꽃의 연분홍불길속에 묻힐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르는 길에서 공산주의의 봄도 우리는 남먼저 맞이하리라!

우리앞에 펼쳐진 지평선을 향하여 넓고 시원한 도로가 끝게 뻗어갔다.

기발이 속삭이는 소리

오윤호

어머니 품에 안기듯
시름도 없이
근심도 없이
마치와 닳과 붓
붉은 기폭에 얼굴 묻을 때면
조용히 내 가슴속에 흐르는 소리

-병사의 운명파도 같은
우리의 당기발일세

틀림이 없다
오직 그대의 수호자이기에
무장으로 지키고
무장으로 받든
아, 우리의 당기발

어려오누나
설한풍 휩쓸던 광야
수령님을 따라 걸던 투사들
《적기가》의 메아리속에
비겁한자 바라볼수도 없던 붉은기
성스러운 위업을 지켜
피로 물들인 붉은기

귀중한 창조의 마치를
설음을 거두던 닳을
기쁨을 걸어안을 주인에게 들려주리
꿰이었던 탐구의 붓대를 이어놓으리
총은 얼마나 위업에 충실했던가

총으로 지켜
붉은기는 퇴색을 모른다고
총으로 받들어 마치와 닳과 붓
금빛으로 영원히 빛난다고
자꾸만 자꾸만 올려주는 말
기폭이 나에게 속삭이는 말

정녕 그러하노니
우리 수령님과 당을 옹호하고
우리 계급을 해치는자들에게
죽음과 멸망을 선고한 그 총이
병사, 나에게 쥐여져있거니

아, 나는 우러르노라
필승의 숨결을 안겨주는 당의 기발
병사, 나의 운명도 미래도
승리와 위훈의 빛발속에 빛내주는
영생의 품- 붉은 기폭이여

그대가 있어
병사의 삶도 있고
그대가 있어
혁명의 총대도 녹슬지 않고...

불변의 진리, 이것으로
기발은 나에게
자꾸만 말해주누나
마치와 닳
그리고 그 붓을
병사, 나의 총대가 받들고있다고.

당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원희

제가 무엇이길래
이름없는 탄부인
제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까

깊은 땅속에서
소문없이 탄을 캐고
하루일 마치면
쌓이는 석탄산을 흐뭇이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던 저입니다

별로 장한 일 한적 없이
그 누구나 다름없는 저에게
당이어
그대 존엄높은 이름으로
보내준 편지

200 일전투의 나날은 흘러가고있어도
방금 받아안은듯
읽을수록 편지의 구절구절
흥분으로 이 가슴 뿔뿔히 하고
생각도 마음도 새로워져

제가 잡은 채탄기 더없이 자랑스럽고
제가 캐는 석탄이 더없이 귀중해지고
레사롭던 발파소리도
아름다운 노래처럼
가슴 가득히 안겨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써보내듯
그렇듯 허물없고
진정에 넘치는 편지
아, 우리 운명 다 말긴
위대한 생명의 어머니를
내 이 시각 숭엄히 우러르나니

명령으로도 지시로도 할수 있는 그것을
굳이 편지에 담아
이처럼 간절히 호소하는것입니까
그것은 혈육의 피줄속에서만 흐를수 있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뜨거움에 비길수 없는
숭고한 의리이고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가슴에 불을 지켰습니다
그 불길 힘으로 담력으로 지혜로 용솟아
저도 어제의 제가 아니고
우리 소대 탄부들도
어제의 탄부가 아닙니다

진정 위대한 당- 그대만이
위대한 인민을 키워냅니다
진정 위대한 어머니- 그 품만이
전사들을 영웅으로 빛내줍니다

착암기로 탄벽을 밀어가는
평범하던 박동무도 그 박동무가 아니고
그대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질풍처럼 전차를 몰아가는
수집을 잘 타던 옥이도 그 옥이가 아닌듯

달라진 모습
새로와진 일터
천길 땅속에서 뿔어올리는 저 탄줄기는
새로운 위훈으로 전사들을 부르는
그대의 높은 뜻이 어려
저리도 소중하고 빛나는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착암기소리
이것이 그대에게 심장을 말긴
이 아들의 대답입니다
더 높이 터치는 발파소리
이것이 그대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할
전사의 맹세입니다

빛나는 9 월의 대축전장에
영웅의 금별안고 승리의 보고를 올릴
그날을 위해
가슴에 당원증과 함께
이 편지를 품고사는
우리는 탄부당원입니다

생활의 먼 길이 부른다 외 1편

김석주

생활의 먼 길이 우리를 부른다
다정한 동무들아, 헤어질 시각은 왔구나
누구는 조국땅 북변으로, 누구는 서해안으로...
다시는 수업종소리에 모여앉지 못하리

저마다 걸어갈 생활의 길은
이 저녁 우리가 둘러선
이 식탁처럼 둥글지 않거니
말해줄수 없구나, 언제 다시 만나리라고

청춘시절에 갈길도 멀고 할일도 많구나
한생을 걸어 다 못갈수도 있으리
명심하자, 뜻은 하늘의 별을 따려하건만
그 별은 멀고 삶은 길지 않다는것을

하기에 벗들아 심장이 뜨거울 때
다우쳐 걷고 째없이 살자

힘겹고 피로운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서
우리 두손으로 따리라, 하늘의 별도

헤어짐은 오래고 상봉은 기약할수 없어도
생활의 길은 평행선이 아니기에
우리 서로 만나리, 그 어느 교차점에서
조국에 성실하고 우정에 변함없다면

작별의 손수건만은 없어도 좋다
굳게 손잡아 흔들고 웃으며 떠나자
나이는 어려도 심장은 어리지 않거니
삶의 첫 자욱을 크게 내딛자

벗들아, 부르자 상봉의 노래를
어디서나 불같이 뜨겁고 총창처럼 굳게 살자
그리고 생을 바쳐야 한다면 용사답게 쓰러지자
생활의 비겁한 도주자에겐 상봉이란 없으리

벗들의 축복

저마다 골라잡은 생활의 길이
우리앞에 놓여있구나
우리 서로 헤어지는 이런 날에야
난생처음 잔을 들어
벗들을 축복한들 어떠랴
네 가는 길, 내 가는 길 머나먼 길에
리상과 의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거니
생활은 달지만 앓다더라
그것은 피로고 쓰기도 한것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 말고 주저 말자
쉽게 얻은 영예란 물거품같은것
투쟁과 창조라는 풍랑세찬 바다를 헤쳐
삶의 아름다운 진주를 우리 캐여내자
자, 벗들이여, 서로의 축복을 받으라
진실한 벗들의 축복은
어려운 날에 그대들을 도우리
그리하여 언제나 행복하게 하리
그대 만약 간식지를 걷는다면
자욱마다 황금의 땅이 솟아나게 되고
조국의 초소를 지켜선다면
그 눈은 어둠속 천리를 내비치는 별이 되라

한줌의 흙을 쥐었다 놓으면
거기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한알의 씨앗을 뿌리면

사람들에게 즐거운 노래와 웃음을 주는
행복의 나무가 솟아나게 하라
헐치 않은 탐구의 세계를 헤쳐간다면
바라노니 기적의 열쇠를 얻게 하라
하여 미지의 대문들이 그대앞에 열리리라

그리고 벗들이여
부디 사랑에서도 뜻을 이루라
어느날엔가 련인을 만나게 될 때
마음속으로 그려보던 꼭 그런 처녀를 만나라

내 생활의 먼 길을 축복하노니
성공이 그대와 벗이 되기를
행복이 그대와 길동무되기를
벗들이여, 우리의 우정과 사랑에 변함없기를!

명령

한웅빈

우리 셋은 오랜 친구였고 같은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일하고있었으나 드물게 만났다. 일이 눈코뜰새없이 바빴고 작업장이 서로 달랐다. 한 친구는 살림집건설장에서 대대장으로, 다른 친구는 안골체육촌건설장에서 대대시공참모로, 나는 설계실에서 일했다. 우리는 흔히 이름대신 《대대장》, 《참모장》, 《건축가》라고 불렀는데 때로는 《살림집》, 《안골》, 《그림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것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였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다. 셋이 모여앉으면 이야기는 광복거리에서 시작하여 머나먼 어린 시절로 거슬러갔다가 다시 광복거리로 돌아와야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날저녁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대대장》이 방금전 총화에서 계획미달로 얻어맞고 울적해있었던것이다.

기계소리와 방송소리 뒤섞인 건설장의 소음이 방안으로 흘러들고있었다. 때때로 자동차들이 부릉거리며 문앞을 지나갔다. 그때마다 가설건물의 창문은 푸릉푸릉 떨리곤했다.

《원 그쯤한걸 가지고 뭘 그러나? 다음달에 벌충할 생각을 할 대신에.》하는 《참모장》의 위안도 《대대장》의 울적함을 가셔주지 못했다.

《제때에 못들어온 부재를 내가 어디서 갖다하란 말이야? 이건 그저 두드려대기만 하거든!》

《참모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누굴 두드리겠나? 그래서 <대대장>이지.》

《대대장이 무슨 동네북인가? <수송>이나 부재 공장엔 아무 책임도 없다는거야?》

《그 사람들한테도 리유가 있겠지, 자네처럼.》

《뭐?》

《참모장》은 손을 쳐들었다.

《그런 식으로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이네. 편쇄된 고리를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지.》

나는 문득 현장에서 흔히 보게 되는 떠들썩한 현장총화들이 떠올랐다. 《우린들 별수 있습니까?》, 《책임한계를 똑바로 가십시오!》, 《그

것만 해결해주시오!》 끝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총화에 참가했을 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 아마 《참모장》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는 한숨을 쉬었다.

《대대장》은 벌컥 성을 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안타깝다구? 단위책임자를 해보란말이야! <안골>하구 같은줄 알아? 억울하게 맞아본적도 없겠지?》

《됐네, 됐어.》

나는 그를 진정시키려고 나섰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야 억울한 때도 있기 마련이지.》

《핑장한 진리로군.》

《대대장》은 쓰겁게 웃었다.

《건축가선생들의 집안에도 덮어놓고 추궁하는 일이 있나?》

《추궁이나 하면 괜찮게? 우리 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테지?》

《고맙게도 아직...》

나는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참모장》의 충고에 대한 보충으로도 되고 성이 난 《대대장》을 위안하는것으로도 될것 같았다.



우리 실장은 무척 소심하고 어리무던한 사람이다.

사업을 포치할 때도 지시를 줄 때도 《해야겠소!》하거나 《하십시오!》하는적이 결코 없었다. 언제나 마치 미안한 부탁이라도 하듯이 《해보지 않겠소?》, 《할수 없겠소?》하고 말하곤했다.

또한 아침출근에 늦어진 사람들이 버스가 빨리 못다닌다고 투덜거릴 때면 변명이라는것이 뻔한데도 같이 한숨을 쉬며 《글쎄말이요. 버스라는게...》하는것이 보통이었다.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별수 있소? 10 분이나 15 분쯤 집에서 더 일찍 나오는수밖에야...》하고 혼자소리처럼 하곤 했다.

흔히 사람들은 소심하고 무던한 사람과는 같이 지내기가 편하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지내보니 그

반대였다. 나는 그 소심함과 무던함때문에 쓴맛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광복거리 살림집구역의 《3 의가》동을 설계할 때였다. 실장은 나에게 설계를 이튿날까지 끝낼수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할수 없겠소?》 하는 식으로였다.

나는 반나절쯤 더 걸려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알만하다는듯 머리를 끄덕거리고나서 그 설계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동안이나 설명하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바쁠줄은 나도 아는데...》

나는 왜 반나절이 더 필요한가를 설명했다. 그는 이해된다는듯 머리를 끄덕거렸으나 또다시 말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온 광복거리적인 범위로 넓어졌다. 한동안에 걸친 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의 도시라고 할수 있는 광활한 광복거리도, 수많은 세대의 살림집들도 죄다 내가 설계하는 100세대짜리 《3 의가》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는듯했다!

《물론 동무가 더 잘 알겠지만...》

그때 만일 아침모임시간이 더 있었다더라면 실장은 하겠다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설명을 계속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설계를 종시 실장이 《부탁》한 시간까지 끝내지 못했었다. 총화때 왜 못했는가를 따지며 추궁하리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따지기를 바랐다. 못할수밖에 없는 이유가 충분했다.)

그러나 실장은 왜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 따져묻지 않았다. 그저 그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장한가 하는 설명을 길게 늘어놓았다.

나는 참다못해서 물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제야 말을 끊고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나는 따져묻기도 저어하는 그의 소심함과 무던함에 참을수 없는 역증을 느끼군했다. 차라리 호된 추궁을 받는것이 몇배 나을것 같았다. 그러면 할 말이라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

《그 참!》

《대대장》이 하품을 했다.

《실장의 무던함에 대한 이야기로군. 추궁도 하기 미안해하는...》

나는 언성을 높였다.

《마져 들어보거나 하라구!》

《대대장》은 짐짓 놀랜척했다.

《아직 안 끝났나?》

《참모장》은 시물시물 웃고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왜서인지 꼭 해야 할 이야기 같았다.

×

며칠전의 그날 아침도 일과는 여느날과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아침일과란 무척 분주하고 복잡한 듯하면서도 따져보면 매일매일의 변함없는 반복이라고 말할수 있다.

《로동신문》의 사설을 독보했고 실장이 늘쌍하는 말로 광복거리건설에서 시간이 가지는 중요성과 설계일군들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했다. 다음에는 사업조직이 있었다.

사업조직이 끝나자 실장은 나에게 눈길을 멈추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학민동무, 그 가열장설계를 오늘저녁까지 좀 끝낼수 없겠소?》

변함없는 그 말투에 나는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미소를 감추려고 우정 심각한 어조로 반문했다.

《오늘저녁까지말입니까?》

실장은 머리를 끄덕거렸다.

《오늘저녁... 힘들겠지?》

《좀 바쁘지만.》 나는 그가 만족하리만큼 대답했다. 《저녁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은 머리를 끄덕거릴대신 잘 듣지 못하기라도 한듯 잠시 건너다보기만 하더니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봉사망을 설계할 때같은 일이 또 있으면 안되겠는데...》

그 말에 나는 기분을 잡치고말았다.

그것은 별로 회상하고싶지 않은 일이었다.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봉사망을 설계할 때 시공이 발꿈치를 바짝 따라오는바람에 무척 땀을 뻘었다. 기초도면을 넘겨주고 1 층도면을 그리는데 어느사이 기초가 끝나고 1 층이 도면을 기다리는것이였다. 시공자들은 마치 우리 설계자들을 첫째가는 경쟁대상으로 삼기라도 한듯했다.

바로 그런 때에 나는 2 층도면을 부리나케 끝내가지고 현장으로 나갔었다. 그런데 현장에 이르니 1 층은 어느사이 다 올라갔고 2 층을 시작하고있었다. 휘틀조립이 끝나고 혼합물이 막 올라오는판이였다. 그들은 봉사망도 살림집처럼 2 층이 1 층과 같은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였다.

나는 덤벼치며 소리쳤다.

《일을 당장 중지하시오!》

휘틀결에 서있던 군인이 놀라며 물었다.

《왜 그러니까?》

땀에 젖은 내의바람이여서 사관인지 전사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였다.

《하어튼 중지하란말이요!》

《중지하다니요? 그건 안됩니다!》

그는 자기들은 오늘중으로 2 층까지 끝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시도 중지할수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지휘관을 찾아가 작업을 겨우 중지시켰다. 도면대로 재시공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술한 비난과 원망의 눈초리를 받으며 그곳을 부랴부랴 떠났다. 그들이 부대장의 명령대로 끝낼수 없으리라는것이 명백했다. 그런데 그것은 나때문이었다.

그날저녁총화때 실장의 얼굴은 무척 흐려있었다.

《내가 사업조직을 잘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소. 그렇지만 설계일군이라면 응당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요? 이 광복거리가 어떤 거리요?》

그때도 그는 역시 왜 도면이 늦어졌는가를 따지지 않았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아무리 마음이 약하더라도)… 그날의 총화는 아마 우리 실이 생기기래 제일 길었을것이다.

이것이 결코 기분좋은 회상일수는 없었다. (후에 한 기자는 그 사실을 두고 광복거리건설속도가 얼마나 눈부시게 빠른것인가! 하는 환희에 찬 랑만적인 기사를 썼지만 실무가의 견해로써는 두번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파오였다.)

바로 그 일을 실장이 회상시킨것이었다. 나는 부아가 치밀어 그의 혼자소리를 막아치웠다.

《글쎄 끝내겠는지 않습니까?》

《…》

무엇이 불만스러워서 저렇가. 손바닥같은 안경알에서 아침햇빛에 물든 창문이 종잡을수없이 얼른 거리고있었다. 흑시는 대답이 너무 빨라서 가열장의 중요성에 대한 연설을 못하게 된것이 불만스러웠는지…

나는 안경에서 눈을 돌렸다.

《오늘하루 나를 다치지만 말아주십시오.》

《다치다니? 누가 일없이 다치는 사람이 있소?》

실장은 저르기 모욕감을 느낀듯했다.

그때 일의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다....

가열장도면을 저녁까지 끝내는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저 좀 긴장하게 일하면 되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여 겨우 한시간이 되었을 때 부기사장이 나를 찾았다. 살림집 《3 의가》동 가창틀을 설계해놓으라는것이였다.

《실장동지한테는 알렸습니까?》

나는 물었다. 부기사장은 이마를 찌프렸다.

《해당실장들과 토론없이 조직하는 일이 어데 있소?》

《가열장도면을 오늘중으로 끝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던가요?》

《하더구만, 그렇지만 <3 의가>동이야 동무담당이 아니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고 그러오?

나무판자를 대고 창턱을 형성하면 되는거니까, 규격과 치수만 정확히 주면 되오.》

너무 간단하여 나는 되물었다,

《그렇게만 해도 될가요?》

《물론! 창틀이 미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예견해서 하는거니까.》

《창틀이 제때에 들어오면요?》

《그러면야 필요없지!》

《...》

필요할지 필요없을지 모르는 일에 바쁜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것이 부아를 돋구었다. 게다가 아무리 간단해도 끝내고보니 이력저력 한시간나마 걸렸다.

이제는 저녁까지 일을 끝내려면 어지간히 다그쳐대야 했다. 저녁 일곱시까지지는 반드시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었다. 친구들과 그렇게 약속했다.

나는 서둘러 일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한시간도 채 못되었을 때 웬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리학민설계가동무지요? <3 의가>동에서 왔습시다.》

옷에서 콘크리트혼합물냄새가 풍겼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말에 의하면 시공자들속에서 설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는것이였다. 시공하다보니 편결 공간과 개구처리에서 불합리한 점이 느껴지더라고 했다. 말만 들어서는 잘 납득되지 않았다.

《하어튼 나가보면 알겠집니다.》

나는 절망적으로 가열장도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실장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나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실장이 설계대로 하라고 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그는 딱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지 않겠소?》

미안한 부탁이라도 하는듯한 그 어조에 나는 맥이 풀렸다. 못나가겠다고 하면 왜 나가봐야 하는가 하는 설명을 길게 시작하리라는것이 뻔했다.

《그럼 이견 어떻게 합니까?》

나는 책상을 가리켰다.

《이거?》

실장은 앵무새처럼 되뇌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것도 문제데...》

나는 돌아서고말았다. ...

현장으로 나갔다. 시공에서 제기된 의견에는 일리가 있었다. 합의를 보는데 두시간이 걸렸다.

그리고도 나는 인차 돌아설수 없었다. 이쪽을 보고나면 저쪽에 봐야 할것이 있고 참견해야 할것이 있었다. 가열장의 기초작업정형도 알아보아야 했다.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봉사망때같은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되었다.

결국 설계실에 돌아와 책상에 마주앉았을 때는 이미 오후 세시가 넘었다. 저녁때까지 가열장설계를 끝낼수 없다는것이 너무도 명백했다.

《후-》

저녁총화가 또 한량없이 길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늦게까지 일할수는 없었다. 일곱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한다. 친구들이 기다릴것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생활은 나에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 약속을 어긴 경우 가까운 친구일수록 리해시키기 어려웠다. 그것은 론리보다 감정이 앞서기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날저녁의 약속이 바로 그런 약속이었다...

책상우에는 아직 끝나려면 거리가 먼 도면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별수 없었다.

실장이 리해해줄수 있지 않을까. 리유를 알게 되면... 아니, 그는 또 왜 못했는가를 따지지도 않을것이다. 그저 가열장의 중요성과 긴박성에 대한 연설로 총화를 한량없이 길어지게 할것이다.

그는 왜 리유를 따지고들지를 않을까, 너무 무던한때문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이상한 일이다... 이것저것 겹쳐서 실장에 대한 불만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

《그렇다니까!》

《대대장》이 기쁘기라도 한듯 소리쳤다.

《그날은 총화가 또 길어졌겠지!》

《틀렸어!》

나는 왜서인지 그의 현명한 예측을 부정할수 있는것이 통쾌했다.

《뭐? 틀렸어?》

그는 광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칭찬이라도 하더란말인가?》

《일이 좀 별나게 됐지.》

《별나게?》

그는 우울하게 투덜거렸다.

《끝날줄 모르는 이야기로군.》

지나가는 차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흔들렸다. 묵중한 《자주호》가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차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

《저녁때가 거의 되었는데...》

×

몇시쯤 되어서였을가... 다섯시, 그래, 다섯시가 좀 지나서였을것이다. 퇴근가방을 든 가정부인들의 조심스런 발자국소리와 《남새상점》, 《탁아소》, 《식료상점》 하는 말마디들이 사라진지 얼마 지나서였으니까...

일에 몰몰했던 나는 문가에서 주고받는 말소리를 들었다.

《...있습니까?》

《있소, 저-기 저 책상에 앉은 사람ियो.》

투박투박 옮기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나는 곳던 선을 조심스레 마저 그으며 생각했다. 웬 사람이 저렇게 행진이라도 하듯이 걸을가... 문득 발소리가 멎고 절도있는 말소리가 들렸다.

《설계사동지, 전사 강철룡 만날수 있습니까?》

아, 군인이었구나. 누가 저렇게 깎듯한 보고를 받는 영광을 지녔을가, 나는 웃음을 참으며 돌아보았다.

그러자 당황하고말았다. 새빨간령장을 단 전사가 바로 나를 향하여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붙이고 서있는것이였다.

《저-나, 나를 찾았소?》

《그렇습니다!》

이웃책상들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도 웃고말았다. 그러나 전사는 돌로 쪼아만든 사람인듯 표정과 자세에서 조그마한 변화도 없었다. 입술만 기계처럼 움직였다.

《가열장설계도면을 가지러 왔습니다!》

《가열장설계를?》

《그렇습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아직 끝내지 못했소, 래일오전까지는 해야 할것 같소.》

《예?》

전사의 얼굴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어데서 본듯한 느낌도 들었다.

《설계실장동지는 오늘저녁에 설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실장동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대장동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가 막혔다. 실장이 그렇게 말했다니?... 불만을 가까스로 눌렀다.

《글쎄 어찌겠소? 끝내지 못했으니,...》

《아닙니다! 실장동지는 끝낸다고 했습니다!》

《?》

나는 그를 멍하니 보았다. 잠시후에야 말했다.

《끝내지 못했다질 않소?》

《끝낸다고 했는데요?》

《?!》

전사는 눈을 똑바로 뜨고 올려다보고있었다. 눈에는 놀라움과 의문이 질게 어려있었다. 나는 어지간히 당황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가장 명백한 말이 전사에게는 심한 의혹만 불러일으킨것이였다. 나는 그의 의혹을 리해할수 없었다. 우리사이에는 공통한 언어가 없는듯했다.

나는 더 설명하기를 그만두고 딱 잘라서 말했다.

《래일에 가져가라더라고 동무네 지휘관에게 전해주오.》

그러자 전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안됩니다!》

《?!》

나는 어리둥절했다.

《뭘가 안된다는거요?》

《전 도면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
다. 그냥은 돌아갈수 없습니다!》

나는 성을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글쎄 도면이 채 안됐다질 않소? 그리고 동무넌
기초를 래일까지 해야 끝낼텐데 뭘 그러오?》

《아닙니다! 우린 오늘까지 끝내라는 명령을 받
았습니다!》

그야말로 고집불통이었다. 두손을 바지 혼술에 짤
붙이고 차렷자세로 서있는것이 어떤 힘으로도 움직
이게 할수 없을것 같았다.

《글쎄 명령이야 받았겠지.》

나는 타협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래일까지 해야 할게 뻔
하지 않소?》

《예?》

전사의 눈에는 또 의문이 서렸다. 또다시 언어불
통이 시작되는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사실 오늘은 아침부터 여러가지 일이 제기되어
뛰어다니다보니 끝내지 못했소. 자, 보오, 어떤 형
편인가?》

나는 도면을 가리켰다. 전사는 내려다보았다.

《그러니 어찌겠소?... 좀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
소?》

《...》

전사는 잠시동안 나와 도면을 번갈아보더니 눈을
깜박거렸다. 뭔가 좀 납득되기 시작하는 모양이었
다.

그다음은 《기적》이 일어났다. 지레대에도 끄떡
없을것 같던 전사가 발뒤꿈치를 딱 소리나게 부딪
치며 《알았습니다!》 하고는 획 돌아선것이였다.

나는 어리둥절하여 서있었다. 정말로 가는것일까,
금시 도로 돌아설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울 때 처
럼 두뼉두뼉 문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이 닫혔다...
정말로 가버린것이였다!

다리가 별로 남의것처럼 뻣뻣해왔다. 그제야 저
도 모르게 전사와 마찬가지로 차렷자세로 서있었
음을 깨달았다. 나는 걸상에 털썩 주저앉으며 긴숨을
내뿜었다.

《후-》

그러나 안도감은 느낄수 없었다. 도리어 불안과
초조감같은것을 느꼈다. 가책이였다고 하는것이 정
확할것이다.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나는 서둘러 일손을 잡
았다.

부지런히 일했다. 이상한것은 하나의 선이라도
더 그을수록 불안과 초조감이 덜어지는듯한것이
였다. 일종의 속죄였다고 할가...

나는 이제 남은 시간에라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
기를 바랐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문득 출입문밖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문이 꼭 닫겨있어서 무슨 말인지
는 알아들을수 없었다. 누가 나를 찾아온것이 아닐
가. 제발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퇴근시간까지
만...

나는 귀를 기울여보았다. 조용했다. 문도 닫긴채
로 있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
다.

그후에도 몇번 말소리가 들렸으나 나를 건드리지
않고 사라져버리곤했다. 방울 헛갈렸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던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점차 누구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
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아무 까닭
도 없이 확신으로 변했다. 이상스러운 일이였다.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에 너무 열중
해서 듣지 못했는지...

얼마후 빠져지근해나는 어깨를 펴며 시계를 본
나는 깜짝 놀랐다. 여덟시, 퇴근시간이 펍 지난 여
덟시였다.

나는 후닥닥 뛰어일어났다. 친구들과 약속한 시
간이 지나간것이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퇴근하자고
찾는 사람도 없었을가, 이제라도 서둘러야 했다.

나는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러자 깜짝
놀랐다. 문가의 의자에 아까의 그 전사가 앉아있었
다.

《?!》

그는 좀 기다려줘야겠다는 내 말을 문자그대로
리해한것이였다! 성큼 돌아서서 나가는것을 이상
스레 여기면서도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줄은 생각지
못했었다.

기다리기에 지친듯 그는 책상에 한팔을 짚고 졸
았다. 한번이라도 문밖을 내다보았을것을!

나는 그를 깨우려다가 멈칫했다. 출입문에 붙어
있는 전에 없던 표족이 눈에 띄여서였다.

《출입금지! 명령집행중!!》

나는 왜 몇시간째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는가를
그제야 깨달았다. 전사가 그 어마어마한 표족을 써
붙이고 그 모든 통행을 금지시킨때문이었다.

그는 퇴근시간까지도 나를 못찾아오게 했다!

어이가 없었다. 잠시후에는 화가 치밀었다. 전사
의 이 엉뚱한짓때문에 나는 친구들앞에 죄를 짓게
된것이였다. 전사에게 버럭 소리지르고싶었다.

《동문 뭐요? 누가 동무에게 이렇게 할 권리를 주
었소?》

그러나 나의 격분을 알바없는 전사는 그냥 졸고
있었다. 그의 팔굽밑에서 쓰다만 종이장이 보였다.
편지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당의 명령을 받들
고 광복거리 건설장에 와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건설장소식은 알고있겠지요. 정말 굉장합니
다! 극장과서관, 집들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언덕
도 언덕같지 않고 폭이 100미터 되는 도로도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복거리건설을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바쳐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중대장동지는 우리가 지금 전투임무를 수행하고있다고 하며 일하는것이 아니라 싸우는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업조직은 전투조직이라고 하고 작업지시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기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주는 무조건...》

다음 글줄은 팔굽에 깔려 보이지 않았다.

전사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저는 도면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냥은 돌아갈수 없습니다!》 명령, 명령이란 무엇인가! 설혹 그가 그냥 간다고 해도 사연을 말하면 지휘관은 추궁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전사는 명령을 받았으니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단순하다고 할가, 기계적이라고 할가, 그러나 단순한 그만큼 명백했고 반대의 논리가 먹어들 여지가 없었다.

나는 전사를 깨워서 돌아가라고 설복시킬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느꼈다. 무슨 말로 그를 설복시킬 수 있단말인가. 밤이 된때문이라고? 친구들과의 약속때문이라고? ...

《약속때문이라구요? 난 명령을 받았는데요. 어느것이 더 중요합니까?》

《?!》

이 상상속에서 울린 전사의 반박에 나는 당황했다. 여느때 어느것이 더 중요한가고 물으면 나는 두말없이 광복거리의 가열장이라고 대답했을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대답했을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덜 중요한것을 위하여 서두르고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나는 자신에게서 너무도 뚜렷이 상반되는 두 인간을 발견했다. 어느 인간이 나에게 더 가까운가...

순간 나는 한걸음 물러섰다. 전사가 몸을 움직이더니 눈을 뜬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출입문만 쳐다보고는 도로 눈을 감아버렸다.

《출입금지! 명령집행중!!》

잘 쓰지 못한 표족, 아까도 보았던 단순한 아홉개의 글자와 아깍없이 찍어놓은 세계의 감탄부호일뿐이였다. 그러나 이때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것 같았다. 물론 전사는 별다른 생각없이 써붙였을수도 있었다. 허나 나에게는 그 표족이 명령을 수행하는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알려주고있는것처럼 느껴졌다. 《명령집행중》이란 나를 두고 쓴말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명령을 수행한다구?)

나는 쓰겁게 웃었다. 미안한 부탁이라도 하는듯한 말밖에 모르는 실장이 떠올랐다. 그와 《명령》이라는 말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전사의 표족은 내가 명령을 받았다는것을 확인하고있었다.

명령, 명령이란 무엇인가... 나는 전사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다. 칼날처럼 주름발선 군복, 번쩍거리는 군화, 눈부시게 하얀 목달개... 마치 사랑하는 처녀라도 만나러 가는듯한 옷차림, 그것은 명령을 수

행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그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찌할바를 모르고 망연히 서있었다. 전사는 마치도 단순한 하나의 표족으로 나를 자기에게서 떨어질수 없게 엮어매놓은듯했다.

그때 전사가 또 몸을 움직였다. 나는 저도 모르게 황급히 문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고리를 꼭 잡고 서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전사의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금시 문을 열고 들어다볼것만 같았다.

나는 황황히 도면에 다가섰다. 나자신속에 숨어있는 두번째 인간을 전사가 보게 될가봐 두려웠다. 전사는 나를 속속들이 비쳐보게 되는 거울인듯싶었다. ...

이날저녁의 일은 이렇게 결정되였다.

...

...드디어 도면을 끝냈다. 나는 도면을 말아들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문가를 지켜선 전사의 엄엄한 얼굴과 함께 뜻밖에도 잔뜩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는 실장의 얼굴이 나를 맞이했다. 전사는 실장까지도 못들어가게 한것이였다. 것처럼 대조적인 얼굴을 보기는 좀 어려울것이다.

그러나 도면을 보자 두사람의 얼굴은 똑같이 환해졌다. 전사는 두손으로 덥석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설계가동지!》

실장은 말을 고르기라도 하는듯했다.

《정말... 수고했소... 늦었는데...》

하고는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난 또 봉사망때처럼 될가봐 마음을 못놓았구만.》

여느때라면 거슬렸을 그 말이 이때는 나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전사가 나와 실장을 보며 즐겁게 한 말때문이였다.

《봉사망을 할 땐 정말...》

나는 놀랐다.

《동무도 거기서 일했소?》

《절 모르겠습니까?》

《?》

나는 앞에 서있는 전사가 바로 그때 휘틀옆에 서있던 내의바람의 그 군인임을 깨달았다. 미안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땐 정말 미안하게 됐소. 나때문에 2층을 그날로 끝내지 못했구만?》

《못끝내다니요?》

전사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못하면 됩니까? 명령인데!》

나는 다시 한번 놀랐다.

《그럼 끝냈단말이요? 어떻게말이요?》

《어떻게라는게 있습니까? 그저...》

전사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했다.

《다르게 있습니까? 해야 한다면 하는거지요! 우리 중대장동지는 말했습니다. 능히 할수 있는것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명령은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하겠는가고말입니다.》

《!》

순간 나는 전사와 처음 만났을 때 왜 언어가 통하지 않았는지를 깨달았다.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전사는 명령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나는...공통되는 언어가 있을수 없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전사의 말에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벌써 총알처럼 계단을 달려내려가고있었다.

멀어지는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나는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는 안경을 간깐히 닦으며 출입문의 표쪽에 눈을 바투 갖다대고 들여다보고있었다. 《출입금지! 명령집행중!!》이라는 어마어마한 말과 그의 소심한 얼굴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다음순간 나는 문득 그가 누구보다도 명령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왕청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못한 일을 두고 이유를 묻지 않는것이 남달리 어질어서만일수 없다. 이유없이 못하는 일이 어데 있으랴, 더우기 이 광복거리에서! 이유를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수행할수 있는 명령이 얼마나 되겠는가. 할수 있는것을 하는것이 명령이 아니라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것이 명령이다! ... 이유를 묻지 않는 실장의 침묵속에는 그 말이 깃들어있었던듯했다. ...

이것이 혹시是我的 엉터리없는 생각만이였는지도 모른다,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한가지 명백한것은 엄격하게 말하든 부드럽게 말하든 관계없이 이 광복거리건실장에서의 모든 일은 전사가 받은것과 마찬가지로 《명령》이라는것이였다. ...

×

나는 이야기하면서 《대대장》이 왜서인지 불안하게 연신 몸을 움쭉거리곤하는데 눈길도 자주 갔다. 마치 결상에 못이라도 솟아있는듯했다. 이야기가 끝날 때즈음에는 그것이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른듯 더욱 안절부절을 못했다. 왜 저럴까.

그 불안감은 나에게까지 감염되는듯했다. 이야기가 자꾸 헛갈려졌다. 무엇을 말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던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 ...

대답대신 떠오르는것은 《참모장》의 베아링에 대한 이야기며 떠들썩한 현장총화에서 들은 《우린 별수 있습니까?》, 《책임한계를 똑바로 가릅시다!》 하는 말들이였다. 그리고 《능히 할수 있는것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그토록 (명령은 무

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던 전사의 말이였다.

나는 《참모장》을 건너다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나와 《대대장》을 번갈아보며 왜서인지 씨물 씨물 의미있는 웃음을 짓고있었다.

나는 우물우물 말을 맺고 어색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지루하지 않았나?》

《천만에!》

대대장이 별안간 으르렁대며 텅기듯 벌떡 뛰여일어났다.

《재미있었네! 아주! 아-주!!》

그는 맹렬한 기세로 문을 열고는 뛰어나가버렸다.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저 친구 왜 저러나?》

《참모장》은 대답대신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그걸 모르겠나?》

나는 《대대장》이 앉았던 자리에서 너무 주물러 놓아서 구겨진 종이장처럼 된 모자를 보았다. 그러자 그의 격분이 리해되는것 같았다. 군대복무를 거처온 옛날의 분대장, 오늘의 대대지휘관더러 나는 엇그제 입대한 전사보다 못하다고 공격한셈이였다. 의심할바없는 모욕이였다!

그러나 왜서인지 미안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의 격분이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 그는 내가 하고싶으면서도 미처 못한 말을 알아들은것이였다.

문이 다시 폭풍이라도 후려친듯 요란스레 열렸다. 《대대장》이였다.

《실컷 웃게, 실컷! 그만큼 골려주고 모욕했으니 고소할테지! <그럼쟁이>같으니, 제길할!》

그는 구겨진 모자를 집어들었다. 씨근대며 돌아보지도 않고 내뱉었다.

《난 가겠네...》

《참모장》은 웃음을 그치고 눈가에 스며나온 눈물을 닦았다.

《같이 가자구.》

《흥!》

...우리 셋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묵묵히 걸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그 인민군전사를 생각했다. 귀가에 쟁쟁히 살아있는 전사의 말을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명령은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밤의 광복거리는 불빛과 소음으로 충만되어있다.

기계소리, 자동차소리, 호각소리, 사람들의 웨침소리, ... 중단을 모르는 그 소음속에서는 마치도 전사의 그 말이 전파로 되어 날르고있는듯이 느껴졌다. 《무엇때문에...》, 《무엇때문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소리가 들릴것만 같았다. ...

짜늘한 밤대기속에서 세멘트와 콘크리트혼합물 냄새가 질게 풍겨오고있었다. ...

쌀을 일며

김선

티끌 하나 있을세라
모래 한알 섞일세라
끼니마다 쌀을 일며
내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세 아이의 어머니되어
가정의 주부가 되어
끼니마다 행복을 일며
한 가정의 식탁을 차려가는 기쁨
그속에 깊어지는 생각...

전쟁의 불길속에
부모 잃고 고아로 된 나를
당은 학원의 품에 안아
어머니된 마음으로 이렇게 키웠으리

티끌 하나 있을세라
내 마음 사랑의 손길로 닦아주고
시름없이 잠든 요람가에서
나의 숨소리까지 지켜주며

아, 내 그때는 다 느끼지 못한 은정
내 오늘 한 가정의 주부가 되어
세 아이의 어머니되어
끼니마다 쌀을 일며
그 사랑 그 은정
더 깊이 생각합니다

당의 품에서
우리 받아안은 사랑은 다 같았어도
보답하는 마음은 다 같지 못해
쌀을 일며 내 마음도 일어봅니다
혹 내 쌀알속에 끼여든
쭈정이가 되지 않는지

행복속에 끼니마다 쌀을 일며
내 충성의 마음 일어깁니다
마음속에 걷도는 티점볼
물우로 씻어버리고
마음속에 가리워진 작은 모래알도
함박으로 일어깁니다

《로동안전》 휘장

김준학

동무여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가 하는 일
너인들처럼 고운 천에 수놓는 일도
봄날의 파수원에서 꽃가루 묻혀주는 일도 아니다

청년돌격대, 우리가 하는 일은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거창한 일
그러느라면 손도 조금 꺾힐수 있고
피도 몇방울 흘릴수 있음을
여직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던가
하물며 우리 어릴적에는
놀면서도 옷을 찢었음에야

진정 어린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도
잔소리처럼 느끼며 우리 자라지 않았던가
허나, 허용치 않누나, 순간도
나의 가슴에서 빛나는 《로동안전》 휘장이여
너는 우리를 엄하게 살피며 꾸짖는다

너는 우리를 둘러싼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이기에
너는 우리를 보살피는 고마운 사랑이기에

동무여, 보라
우리와 함께 땀흘리는 저 사람들속엔
중대장도,려단장도
그리고 한생을 건설로 늙어온 영웅아바이도 있다
그들이 위훈을 펼쳐 받은 훈장과 메달
온 가슴에 덮고도 남는다
허나 그들의 앞가슴에서도
《로동안전》 휘장이 빛을 뿌린다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에서는

나는 안다, 《로동안전》 휘장이여
뜨거운 사랑이 너에게 스며여있음을
우리의 생명 보살피주는 당의 그 눈빛이
무한한 사랑의 공간속에서
누구나의 가슴마다에 빛나고있구나

시대의 성격

리복은

앞서는 이야기

성격의 매력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장을 찾은 사람들은 대체로 한선에서 감동이 일치하게 된다. 마치 누가 써준 감동문을 읽는것 같은 기분에 잠긴다는 뜻에서이다. 직업상의 용무로 해서 보는 각도가 다르거나 연령상 차이가 있어 내리는 판단의 무게가 어떻게 다를 상관함이 없이 똑같이 가지게 되는 감동을 다르게는 통속화할수가 없어 실은 대본이라는 말을 빌려썼지만.

하긴 빌려왔다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으로서의 정확성을 부여할수가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충분하다.

혹시 초행길이면 또 여러번 다녀본 길이건간에 찾아와 보면 누구나 이곳의 땅과 하늘에 새겨진 우리의 주체공업 위용을 눈으로만이 아니라 심장으로 읽을테니 비유해본 그 말도 이번만은 제자리에 활용되어 뜻을 한층 풍부하게 해준셈이라 볼수 있다.

여기 순천의 땅과 하늘에 공업의 위용을 힘있게 펼쳐도록 새겨넣은 사람들, 그들모두는 《80년대 속도》창조자들일뿐아니라 우리 화학공업의 새 장을 력사의 한페이지에 훌륭히 새겨넣는데 앞장선 시대의 선구자들이다.

지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휘황찬란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눈부신 대진군이고 힘이 넘치는 시위이다.

볼수록 감동이고 말할수록 경탄뿐이다.

순천은 부글부글 끓고있다.

준공의 그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순천이며, 앞으로!

누구라없이 순천의 모습앞에서 느껴보는 충동,

그것은 주체조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일것이다.

한마디로 순천땅에 솟아난 웅장한 모든것들은 굵고 억세고 튼튼하여 그앞에 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굵고 억세고 튼튼한것을 드물지 않게 세워준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따로 고를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화학공장건설련합기업소 제 1 건설사업소에서 말은 여러 직장의 그 큰 건물들을 일떠세운 제대군인 청년건설자들의 이야기 한 대목을 들어보아도 사람들은 순천땅에서 사는 인간들이 지닌 의지와 각오와 담력과 같은것들을 느껴볼것이다.

세포비서 김창복동무는 작업반장 백광일동무를 조용한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끝내 토로하고야말았다.

《백동무, 내 세포비서라고 해서 말하는건 아니네. 이거 정말 립장이 딱해 야단이구만. 나도 같이 제대되어온 사람이긴 하지만 동무네 작업반으로 이동되어온거야 작년 여름이 아닌가. 기자동문 작업반이 어떻게 첫 기둥을 만들고 세웠는가 알려고 하는데 그런거야 동무가 말해야 하지 않겠나. 정말 이번만은 기자동무의 취재를 잘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추궁이 없도록끔 나를 도와주는셈치고 나서주길 바라네. 진심이네.》

진심에는 진심으로 대해주는것이 도리라고 느꼈는지 백광일동무는 그제서야 꼭 다물고있던 입을 열었다.

《글쎄 내가 무슨 큰일을 한것이 있다구 자꾸만 그러나, 솔직히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

《아니 그래서는 안되네. 한 일이 없으문야 사업소에 찾아오는 기자들을 여러차례나 동무한테 보냈겠나. 전번에 영화문학을 쓰는 작가까지 찾아와 며칠간 함께 일하지 않았나. 백동무를 원형으로 한 여가 청년건설자들의 투쟁을 영화에 담겠다고 말일세. 내 정말 그때두 립장이 딱해 속으로 땀캐나 뺐다는걸 말해야겠네. 처음부터 내가 백동무와 함께 일하지 못한 후회까지 들었던말일세.》

백광일동무가 건설초기에 일으킨 혁신에 대해서만은 김창복동무도 기자나 다름없이 취재를 해야만 구체적인 내막을 알수 있었다. 그때 그는 다른 직장에서 일했던 관계로 해서 그 직장 기동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김창복동무는 단지 작업반장 백광일동무의 최근 사업실태와 그리고 일반적인 그의 품성, 사업방법과 같은것을 알고있을따름이었다.

그래서 김창복동무는 이번 기자의 취재를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자신도 백광일동무에 대한 파악을 더 깊이 해두려는 속공리도 없지 않아있었다.

그 직장건물을 떠받들고있는 수십개의 기둥마다에 깃든 작업반장 백광일동무의 남다른 노력을 지금 사업소 어느 누구라 없이 인정하고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매번 그것을 부정하다싶이 해서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소개하려고 찾아오는 기자들마저 취재수첩을 씨원히 채우지 못한채 물러서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지금 사업소 전투속보편집실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기자가 대기하고있었다.

그래서 직장 부문당에서는 세로비서에게 분공을 주어 기자가 취재를 성과적으로 하도록끔 했는데 이번에도 당사자는 그 의도를 리해 못했는지 지난번 경우처럼 그저 단마디명창으로 한일이 크게 없다는 소리뿐이다.

그러니 김창복동무의 속이 오죽이나 타겠는가.

한참만에야 백광일동무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나직이 말머리를 뗐다.

《첫 기둥 만들 때 경험이란 오작을 낸것밖에 없는데...》

《오작?!》

성과를 말할 대신에 하필이면 오작난 소리를 말할것이 무엇이나는 놀람으로 해서 김창복동무의 두눈은 순간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말머리를 떼는것이 상책이여서 김창복동무는 인차 낫색을 바꾸고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를테면 쓸것이 없는 버럭무지래도 인내성을 가지고 헤쳐보면 혹시 보석같은 그 어떤 귀중한것이 나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서 응해준것이기도 하였다.

대체로 자기의 성과를 말하기 멋적어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머리는 혹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백광일동무는 이윽고 주근주근 말하기 시작하였다.

첫 기둥감은 아직 진펄이나 다름없는 7직장의 한 구석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휘틀을 짜서 만들어 대고 그속에 철근을 끼워넣고서는 몰탈을 채웠다.

제대군인들 누구 하나 이런 일에는 손이 선것이여서 도면이 바라는 기술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다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이윽고 며칠후 휘틀을 벗어던진 첫 기둥이 나타났다. 길이가 근 30 메터에 가까운 기둥이었다.

시공지도원이 와서 검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를 끝낸 시공지도원은 기둥이 도면의 요구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광일동무에게 그 부족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일깨워주고는 이번 기둥제작을 교훈으로 삼고 다음부터는 합격품을 내라는 고무의 말까지 해주었다.

몰탈다짐을 잘못해서 휘틀 뎀 부위에 여러개의 《곰보》가 생겼던것이다.

백광일동무는 죄를 졌다는 뼈저린 자책감에 싸여 그날 밤이 깊어서도 기둥옆을 떠나지 못했다.

도면에 대한 파악이 깊지 못한데다 기둥을 어서 빨리 하나만이라도 만들고싶었던 그 조급성은 과연 무슨 결과를 가져왔던가.

그는 가슴저린 후회를 하며 《곰보》자리를 메워볼가 하여 몰탈을 이겨가지고 기둥에 달라붙었다. 그때로 말하면 펍 밤도 깊은무렵이었다.

한참 《곰보》를 땀질하는데 누군가 등을 치기에 고개를 쳐드니 초급당비서가 우뚝 서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려고 나왔던 초급당비서였다.

《혼자 수굴 하누만.》

《비서동지...》

백광일동무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의 말을 비로소 이제야 하는듯 백광일동무는 그날에 있었던 사실을 간단히 말하고나서 이렇게 덧붙이는것이였다.

《난 아직도 초급당비서동지를 보기가 막 부끄럽네. 사실 얼마나 엄중한 사고를 냈나. 그때 방조를 받아 그 기둥을 가가스레 살려놓기는 했으나 일이야 엄연히 친셈이 아닌가.》

《생각나네. 초급당비서동진 자주 우리들한테 그 말을 하네.

그때 건설장에 세울 하나의 기둥을 안고 몸부림치는 자네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정말 든든해졌다구, 자네같은 사람이 참된 일꾼이고 건설장의 기둥감이라면서 초급당비서동지는 그때 벌써 일욕심이 많은 반장동무를 헤아려보았다는거네.》

《뭐라구?!》

이번에 놀란것은 백광일동무였다.

《동무에 대한 매력을 그밤에 느꼈다는거네.》

오해할수 있는 성격

김창복동무는 마음을 든든히 먹고 백광일동무가 기자앞에 나서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는 의미에서 먼저 자기가 대충 알고있는 이야기의 한 꼭지를 뽀주었다.

《기둥 전부가 제작되자 세우는 문제를 놓고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인가?!》

백광일동무는 한번 병긋이 웃고는 여전히 뜨직 뜨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기둥을 세우자면 75 톤짜리 기중기가 있어야 했는데 우린 자동차기중기로 기둥을 세웠네. 능력이 25 톤이여서 힘을 쓰는데는 문제될것이 없지만 기중기의 팔에 걸리는 힘이 동체의 중심을 잃게 하고 따라서 사고를 칠수가 있는것이여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모두 달라붙어 머리를 쓰니 문제가 풀리더군. 자동차기중기뒤에 불도젤 두대를 세우고 쇠로프를 서로 련결해서 기중기가 기둥을 들 때 앞으로 쏠리는 힘을 막아 사고를 치지 않고 기둥을 세웠네.》

팔을 뻗친 자동차기중기, 그뒤에 뻗은 두줄의 쇠바줄을 물고서 끄는 불도젤 두대.

그때의 광경을 김창복동무도 목격한바가 있어 그는 잠시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한토막의 이야기를 더듬어보았다.

자동차기중기로 기둥을 든다는 소문이 건설장에 퍼지여 사람들은 서둘러 백광일동무네 일터를 찾아갔다.

그속에 김창복동무도 끼여있었다.

그런데 어째선지 백광일동무는 시공을 맡은 한 늙스구레한 사람과 언성을 높이며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있었다. 현장에서 말하는데로 표현한다면 불었다는것이다.

《그래 반장동문 값으로 따지면 이 기둥 한개가 몇천원이나 되는지 알고 이런 일을 벌릴 잡도리를 했나말이요.

이건 모험이요. 우둔한 일이요.》

45 톤짜리 기둥기가 며칠어간에 생길텐데 그 기간을 못기다려서 일을 벌렸는가 하는 추궁이었다.

평시 입이 무거운줄로만 알았던 백광일동무의 여성도 따라서 높아지고있었다.

《우둔한 일이라는 말만은 삼가해주십시오.

가능한데 지도원동지는 어째서 자꾸 모험이라 고만 합니까.

자동차기둥기를 끌어다놓은이상 우린 우선 한대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여성은 더 높아지였다.

《반장동무, 여기가 무슨 동무네 건설방법을 실험이나 하는 실습장인줄 아오. 자동차기둥기 운전사는 어데 갔어 ?》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운전사의 말이 울려오자 시공지도원은 더 기염을 토하듯이 고아대고있었다.

《당장 물러나시오. 이건 정말 어디에서 해먹던 버릇들인지 모르겠거든.》

《반장동무, 그럼 우린 가겠소.》 하고 또다시 동의를 구하는 운전사의 목청이 울렸다.

《당장 뿔소!》

운전사를 향해 웨치는 시공지도원의 목소리는 한층 뻘뻘했다.

순간 백광일동무는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동차기둥기와 시공지도원을 한번씩 번갈아보고는 굵히 입을 열었다.

《그만 ! 안됩니다...

운전사동무, 기둥을 들다가 무엇이 잘못되면 책임은 내가 질테니 물려서지 마오.》

《뭐요 ?! 책임 ?... 그래 동무가 무슨 큰 존재라고 제 몸값까지 올리면서 야단이요?...》

시공지도원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해쓱해진 낮에 갑자기 쌀쌀한 미소를 띠우며 백광일동무를 쳐다보는것이였다.

《우리 몸값을 정 따지고싶거든 따져보십시오. 우린 어버이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 전투장으로 달려온 제대군인들입니다.

자기한테 차례질 책임문제나 따지면서 비날론 공장을 건설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외람된 부탁인지는 모르지만 겁이 나거든 우리 앞에서 몸을 피해주십시오.》

《동무... 동...무... 여태 난 고...고집이 나귀발통같은 사람은 이번 처음 보...보오!》

이날 백광일동무는 자기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내대며 자동차기둥기로 첫 기둥을 쳐들어가지고 이미 준비해놓은 기초구덩이에다 힘껏 박아세웠다.

한편 이날부터 백광일동무한테는 《직통배기》라는 별명이 붙어 현장에서 나돌았다.

성격도 크는가

백광일동무의 급한 성미를 놓고 누구나가 다 하나의 의미에서 분석을 하고있었다. 그와 첫 충돌을 한 시공지도원까지도 지금에 와서는 그 성격을 못내 부러워하며 은근히 따라세워보려고 한다는 소감을 보이어서 백광일동무의 성격적인 미는 더한층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직통배기》, 성미가 급하다는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앞으로만 내달리려는 백광일동무의 지향이 깊이 깔려있다.

김창복동무는 작업반장의 이런 성격적인 장점을 자기가 기자에게 꼭 말하리라 원심을 쓰고있었다.

그런 성격을 실감있게 증명할만한 이야기는 많았다.

...며칠전에 있던 일이였다.

기대 6 개가 들어앉을 자리를 만들 과업을 받은 백광일동무는 작업반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갔다. 휘틀반침대를 대용할 착상이 떠올랐던것이다.

백광일동무는 자기 주위에 빙 둘러선 작업반원들에게 열기띤 음성으로 다시 말하였다.

《철판으로 휘틀을 만들어가지고 공중에 달아매면 되겠소. 휘틀반침대는 필요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소. 각이한 층고에 따라 조절하도록끔 환강으로 고리를 만들어 철판에 대고 거기에 쇠로프를 꿰던가 하면 되겠소.》

휘틀을 천정 공중에 매달고 시공하게 되는 이 혁신적인 발기는 다음날 사업소 기술일군협의회에서도 크게 찬동을 받았다.

내닫고싶은 백광일동무의 성격은 이렇게 자라고있었다.

한마디로 통이 큰 사람에게서만이 느껴보게 되는 성격적인 면모를 백광일동무한테서도 찾아볼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얼마나 커질것인지 료량해보기 어려울것이다.

뒤에 붙이는 이야기

취재를 하는 도중에 백광일동무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겠다는 요구를 제기해서 기자는 김창복동무와 얼마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공간이 생길것 같아서 직장에서는 김창복동무를 함께 기자앞에 들여보냈는데 예견이 맞아떨

어저 기자는 당사자가 없이도 취재를 계속할수 있었다.

김창복동무는 기자가 백광일동무의 성격을 더 깊이 파악할수 있는 여러 토막의 이야기들을 해주 고나서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흔히 말하기를 여러 측면에서 사람이 성장하는데 따라 성격도 같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성격변화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사실은 우리 작업반장동무와 같은 인간들의 성격을 규정하는데서는 그 변화라는 표현이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고 먼 래일에도 우리 당과 수령님을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서 청춘의 열정을 다 바치는 그런 인간들이 지닌 성격의 핵은 변화라는 말은 모르고있으니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이런 성격을 변화라는 말대신 커진다는 뜻의 말을 붙여 커지는 성격이라 하고싶는데 정확성만은 더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끝났다.

그러나 밖에 나간 백광일동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김창복동무는 먼구스러운듯 한마디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만은 고분고분 나설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되고말았군요. ...

아마 지금은 현장에 불박혀있을것입니다.》

제임으로 자기자랑을 하는 일이라고 여기는데서도 백광일동무는 매번 오해를 받을수 있는 성격을 보이군하여 김창복동무는 이번에도 딱한 처지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달아오른 귀뿌리만 매만지었다.

-순천에서-

아기엄마의 사죄

오영재

아기엄마 잠간
헛눈을 판 사이
아기는 아장아장
푸른 잔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팔랑팔랑 노랑나비 한마리가
아기를 유혹했나봅니다

엄마는 아기를 부릅니다
아가야 잔디밭에 들어가면 못쓴다고...
그래도 아기는 자꾸 갑니다
잡힐듯 잡힐듯 눈앞에 땀도는
나비를 뒤쫓아서

달려가 안아내올수도 있으면만
유보도의 연석가에 벗어선채
엄마는 안타깝습니다
주단같은 공원의 푸른 잔디를
엄마는 밟을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이 심정 알아준듯
고운 나비 드디어 길을 바꿔

엄마있는쪽으로 날아오고
아기도 엄마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엄마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누가 나무라는 사람은 없어도
아기를 불안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받아주는 사람 곁에 없어도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일요일의 하루를 즐기며 걷는
저 늙은 할머니에게도
수줍게 마주앉은 저 젊은 남녀에게도
웃으며 떠드는 어린 소년단원들에게도

여기에 잔디를 입히고
이 공원을 향유하는
모든 주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아름다운 평양앞에
평양의 아름다움앞에
엄마는 머리숙여 사죄했습니다

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

명일식

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은 생활의 본질과 성격의 특징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며 작가의 의도를 강조하고 심화시키는데서 효과가 큰 수법 중의 하나이다.

흰것은 검은것과의 대조속에서 자기의 색을 더 잘 나타내는것처럼 형상도 대조속에서 더 강조되고 심화되며 뚜렷해진다.

작품창작에서 형상 수단과 수법은 다종다양하며 그것이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데 따라서 작품의 형상도 달라지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려면 형상수단과 수법, 기교도 비반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형상수단과 수법, 기교를 독특하게 리용할줄 알아야 작품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낼수 있다.》

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 그것을 예술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작가의 재능과 기교에 의하여 같은 형상수법을 리용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자기 식의 투가 생기게 된다.

대조의 수법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수 있다.

특히 단편소설 《하늘과 땅》(김영길), 《칼도 마소리》(안홍운), 《땅과 말하는 처녀》(변우순)들에서는 대조의 수법을 능숙하게 잘 살려쓰고있다.

이 소설들에서 대조의 수법은 각기 다양하게 리용되고있지만 다 인간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뚜렷하고 선명하게 부각하는데 복종되고있다.

단편소설들에서 대조의 수법은 우선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직접 대조시켜 인간성격을 뚜렷이 부각시킨데서 볼수 있다.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은 그자체가 서로 두 극단에서 대조되어있다.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은 생활속에서 서로 대조되어 구별되게 되며 자기 성격의 본질을 더 뚜렷이 나타낸다.

단편소설 《땅과 말하는 처녀》의 경우가 바로 그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단편소설에서 부정인물인 장풍호는 5년간이나 열톤작업반의 영예를 보존하여온 작업반장으로서 처음에는 진짜배기실농군처럼 보이고있다. 반대로 긍정인물인 정남실은 장풍호가 열톤씩 쾡쾡 내던 작업반에서 8톤밖에 내지 못하는 락후한 작업반장으로 부정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땅에 묻혔던 보석이 빛을 내뿜듯이 생활과정에 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땅이 아파하는 소리, 땅이 기빠하는

소리를 들을줄 알고 땅과 마음을 터놓고 어머니처럼 속삭이는 주인공 정남실의 진심이 알려 지게 되며 그에 의하여 장풍호의 부정적 성격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장풍호는 개인의 명예만을 생각하며 화학비료와 농약에만 매달려 산성화가 극한점에 이를 정도로 땅을 혹사한 부정인물인것이다.

단편소설에서 장풍호와 산성화된 병든 땅을 자급비료와 소석회, 흙갈이 등 토지개량으로 기름지게 만든 주인공 정남실의 개성적인 성격을 대조적으로 깊이 그리지 않았다면 장풍호의 부정적 성격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았을것이며 여전히 열톤작업반의 영예를 5년간이나 보존한 작업반장으로서의 긍정적 외피를 그냥 쓰고있었을것이다.

주체농법대로 일하고있는 진짜배기실농군인 정남실의 긍정적인 성격과의 대조속에서 되대로 살아가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장풍호의 부정적인 성격의 본질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직접 대조시킨 례는 단편소설 《하늘과 땅》에서 찾아볼수 있다.

하늘과 땅이라는 대조되는 제목을 가진 이 단편소설은 인간성격도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뚜렷한 대조속에서 특색있게 잘 보여주고있다.

자그마한 군기상대의 생활을 취급하고있는 이 작품은 60 나이인 기상관측소 소장 문순보의 부정적인 성격과 새세대인 기상고등전문학교 졸업생인 스무살 청년 강정구의 긍정적인 성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문순보는 10년을 하루와 같이 조용한 기상대의 고즈넉한 고요속에서 살아오며 생의 말년을 조용히 보내고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성격의 본질은 소심하고 소극적이며 자기의 위치와 존재가치를 잃고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있는 락후한 사상정신세계를 가지고있는것이다.

반대로 강정구는 고리타분하고 안온한 그 울타리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새세대의 청년으로서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인간이며 자기의 위치와 존재가치를 찾으려고 모대기는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있다.

두 인간의 성격적 본질은 바로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직접적인 대조속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만일 기상관측소에 강정구와 같은 새세대청년이 새로 배치되어와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패기있게 전개하지 않았다면 고리타분하고 안온한 생활속에 깊이 잠겨있는 문순보의 성격은 그냥 파묻혀져있었을것이였다.

반대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가지고있는 문순보의 안전한 생활을 예리화하여 보여주지 않았다면 새세대 청년인 강정구의 성격의 본질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했을것이다.

긍정인물인 강정구와 부정인물인 문순보는 바로 직접적인 대조속에서 제각기 자기의 성격의 본질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이처럼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을 직접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성격의 본질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대조의 수법은 다음으로 상반되는 두 생활을 대조시켜 인간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데서 볼수 있다.

인간생활이 다양하고 복잡한것만큼 생활의 대조도 여러 측면에서 다종다양하게 보여줄수 있다.

그중에서도 효과가 큰것은 우선 한 인간의 과거와 오늘의 생활을 대조시켜 그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면서 성격의 본질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단편소설 《칼도마소리》에서 그것을 찾아볼수 있다.

이 작품은 구멍이 난 칼도마대신 새 칼도마를 만드는 자그마한 이야기를 놓고 투쟁의욕이 마비되어 안일한 사업태도를 가진 흥바다가 양식사업소 지배인을 비판하며 각성시키는 교훈적인 소설이다.

지배인 택현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우만 쳐다보며 일하는 낡은 사상에 물젖어있다. 그의 낡은 병집은 바로 구멍이 난 칼도마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이 단편소설은 지배인의 안일한 사업태도와 낡은 병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의 생활과 상반되는 30년전의 그의 과거생활을 대조시켜 보여주고있다. 그는 30년전에는 나래치는 천리마의 정신을 가지고 맨손으로 기계배를 만들고 손도끼로 찬장을 만들며 새생활을 창조한 혁신자였다.

그런 지배인이 오늘은 자기 집 칼도마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할 정도로 안일해진것이다. 낡은 사상에 물젖은 그의 병집은 바로 30년전 그의 과거생활에 비치워 대조적으로 보여짐으로써 더 명백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단편소설 《칼도마소리》는 이처럼 한 인간의 과거와 오늘의 생활을 대조시켜 보여주고있다면 단편소설 《하늘과 땅》에서는 이와 다르게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상반되는 생활을 대조시켜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에서 처마에 매단 약초를 손질하며 의자처럼 뽕죽 나온 돌의자에 햇빛이 들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문순보의 안전한 생활과 군기상예보를 정확히 내느라고 도와 린접군들에 전화를 걸며 아글타글 애쓰고있는 강정구의 생활을 대조시켜 보여준데서 찾아볼수 있다.

기상관측소장인 문순보는 파스한 해벌이나 쪼이며 약초를 손질하는 등 일신의 안락을 위한 고리타분한 생활속에 잠겨있다면 강정구는 반대로 자진하여 벅찬 생활속에 뛰어들어 일을 찾아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다. 문순보는 하루 한두번 기상관측을 하는것으로 만족해하며 일신의 안락과 조용한 생활만을 그리며 안전한 생활의 울타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는 군에서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들끓는 도로건설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며 알려주어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외부와의 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뿐아니라 새것을 지향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강정구의 발목을 붙잡기까지 한다.

빈대도 강정구는 온 군의 관심속에서 한창 벌어지고있는 도로포장작업장을 보고 새시대의 청년답게 거기에서 스스로 알맞는 자기의 일감을 찾고 끝까지 해결한다.

그는 비가 언제 내리는가 하는것을 사전에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군기상관측소일군의 응당한 임무로 여긴다. 만일 당장 비가 내리는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도로포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놓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 허사로 되고 막대한 량의 세멘트와 자재, 로력까지 낭비하고 말것이었다.

강정구는 바로 그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도와 린접 군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끝내 정확한 기상예보를 알아내며 작업장에 찾아가 그것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작업장에서 사전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게 된다.

단편소설은 이처럼 문순보와 강정구의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두 인간이 가지고있는 성격의 본질을 더 뚜렷이 강조하여 선명하게 보여준다.

단편소설에서 대조의 수법은 또한 세부를 대조시켜 성격의 본질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세부도 대조속에서 더 인상깊은 세부로 되며 인간성격의 본질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에서의 전화기 세부가 바로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책상우의 전화기도 세사람중 누가 들기전에는 부뚜막에 늘어붙어 잠자는 고양이처럼 웅크리고있을뿐이었다. 고요는 좋이 한 시간이나 지속되었다. 똑딱거리는 벽시계의 단조로운 음향만이 이 집안의 고요를 깨치려는듯 꾸준히 울렸다. ...

이것은 문순보의 소심하고 안전한 정신상태를 말하여주는 초기 기상관측소의 생활을 보여주는 전화기 세부이다.

…기상관측소장 문순보는 요즘 때없이 자기 회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멍하니 앉아있곤했다. 아까부터 전화기가 보채는 아이울듯 야단스럽게 울어댔다. 요즘은 전화성화에 지칠 지경이었다.

순보는 천천히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온 군을 쥐고 흔든다! … 우리 관측소가…

언제부터 우리 관측소에 이런 힘이 생겼는가!

…

달구지 한대를 얻지 못해 것처럼 동분서주하던 우리 기관이…

이것은 새시대의 인간들인 강정구와 은희의 성격과 그들의 새로운 정신상태가 반영되어있는 전변된 이후의 근기상관측소의 생활을 보여주는 전화기의 세부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 단편소설은 처음에는 부뚜막에 늘어붙어 잠자는 고양이처럼 굽두룩 웅크리고있는 전화기를 보여주고있다면 마지막에는 온 군을 쥐고 흔들며 보채는 아이울듯 련속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전화기를 대조시켜 보여주고있다.

같은 전화기를 처음과 마감에 반복하여 대조시키면서 고요하고 아늑한 정적이 깃들어있던 고리타분한 초기의 기상관측소의 생활과 새시대의 숨결인 양 벅차게 들끓고있는 전변된 이후의 새생활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독자들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전화기의 세부를 통하여 몇천마디의 설명보다도 더 선명하게 문순보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초기의 기상관측소의 생활과 전변된 이후의 기상관측소의 생활모습을 알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문순보의 성격과 강정구의 성격의 본질도 명백하게 알수 있는것이다.

단편소설은 이처럼 세부를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인간성격의 본질을 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부각시켜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을 능숙하게 잘 리용하여 쓰면 생활과 인간성격의 본질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며 작가의 의도를 힘있게 강조하고 심화시켜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 《칼도마소리》, 《땅과 말하는 처녀》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읽히우는 비결의 하나는 바로 대조의 수법을 잘 활용하여 생활과 인간성격의 본질을 뚜렷이 보여준데 있다고 보아진다.

대조의 수법은 창작에서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형상수법의 하나이다.

우리 작가들은 형상창조에서 대조의 수법을 더 능숙하게 리용함으로써 소설작품의 형상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벽시

종 소 리

박재주

종소리

수업시간 알림소리

십여년 하루같이 들었어도

레사롭지 않네

종소리

이내 량심을 두드리는 소리

별같은 눈동자에 기쁨을 담아주라

아이들 맡긴 학부형들

부락하는 소리

종소리

미래에로 이어진 영원한 메아리

꿈많은 마음속에

과학의 세계를 펼쳐주라

조국이

날 부르는 소리

작가의 문체

(제 6 회)

오영환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소설가 김병훈에게 있어서 항일무장투쟁은 체험해보지 못한 생활분야이다. 그런데 어떻게 것처럼 훌륭하게 그려낼수 있었는가?

그것은 인간생활의 의의를 깊이있고 폭넓게 이해하게 해준 관찰과 습작의 결과이다.

생활에 대한 작가의 참다운 사랑은 그속에 살며 생각하며 참가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난다.

관찰한것을 표현해보는것, 그것은 기억에 흔적을 남기고 심장에 기록을 남기는 작업으로서 생활속에 살며 생각하며 참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관찰과 습작이 중단없이 지속되면 될수록 생활에 대한 작가의 참다운 사랑은 더욱 열렬해진다. 그것은 새로운것, 뜻깊은것, 매혹적인것들이 가슴속에 지퍼주는 불길이다.

작가의 가슴속에 이런 불길만 있으면 과거로, 미래로 시대를 뛰어넘을수 있고 세기를 날아넘을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두고 말할 때 력사적 자료와 그 체험자를 취제한 간접적인 체험이 그렇듯 특출할수 있는것은 작가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직접적인 체험에 토대하여서만 가능하였다. 다시말하면 생활을 깊이 알고 혁명적인 생활을 이해한 기초우에서만 이런 대작이 나올수 있었다.

작가가 관찰과 습작과정에서 생활을 깊이 알게 되고 혁명적인 생활을 이해하게 되었다는것은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사상관점을 바로 세워나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작가의 사상관점은 그의 세계관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계급적 성격과 시대적 특징, 민족적 특성을 띠게 된다.

그러고보면 관찰과 습작과정에 선택되는 새로운것, 뜻깊은것, 매혹적인것은 작가의 사상적 립장과 미학적 견해에 의하여 포착된것이다. 로동계급의 비위에 맞고 시대의 미감에 맞으며 민족의 구미에 맞는것은 참으로 가치있는것이다.

작가의 문체는 거기에 계급적 성격과 시대적 특징, 민족적 특성이 살아나면 날수록 더욱 훌륭한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관찰력과 문체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자.

《한달만 허를 깨물고 나서면 되는걸 여섯달동안이나 땀물단지같이 놀아서 런대장동무 속을 썩일대로 썩였으니… 참, 나는 무슨 인간이 이 모양인지… 사람의 정도 모르는 돌맹이같은 인간이었지…》

이 레문에서 《허를 깨물고 나서면》은 비장한 결심을 내리고나서는 사람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준다. 그것은 성구 《허를 깨물다》의 뜻과는 차이가 있다. 성구 《허를 깨물다》가 할 말을 하지 않고 억지로 참아냄을 비겨이르는 말이라면 《허를 깨물고 나서다》는 문맥상에서 비장한 결심을 내리고나선다는 새 뜻으로 바뀐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구의 리용이 아니라 숨은 비유의 리용으로 된다. 이것 역시 허를 깨물고나서는 사람의 속내를 보는 데서 얻어진 생동한 표현이다.

《된맛을 보여라. 계집년을 앞세우고 내려왔을 때에야 벌써 속은 궁근놈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나 비틀어짜라고 해! …》

이것은 특무인 옥매를 따라 적의 소굴로 내려간 장국산을 체포한후에 《련합토벌사령관》 노자끼가 떠벌인 말이다.

이 레문에서 《속은 궁근놈》이라는 표현은 문맥상에서 너자관계가 깨닫지 못하면 주의주장에서도 절개가 있을수 없다는 인간도덕생활에 대한 관찰을 담고있다. 즉 《절개가 없는놈》이라는 새 뜻을 나타내고있다.

《비틀어짜다》라는 표현 역시 문맥상에서 다른 뜻으로 바뀌었다. 《비틀어짜다》의 본래의 뜻은 빨래에서 물을 빼낸다는것인데 여기서는 《고문을 들이대여 불게 하라》는 새 뜻을 나타내고있다.

이것은 절개가 없는자는 고문만 당하면 불게 된다는 변절자에 대한 관찰에서 얻어진 생동한 표현이다. 이러한 생동성은 《련합토벌사령관》 노자끼란놈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한놈인가 하는것을 보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사람의 가족을 쓰고 어떻게 짐승의 소리를 하였느냐? 어제밤 그 강연원고를 불살라버렸다.》

이것은 적들에게 체포된 최인관이 자식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정보과장이란놈이 혁명군을 혈투는 강연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꾸며준 원고를 제손으로 붙살아버렸다.

최인관의 말은 어려운 때 스스로 혁명을 받아들이는 참된 인간에 대한 관찰에서 얻어진 것이다.

죽음앞에서도 량심을 더럽히지 않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는가. 짐승은 량심도 의리도 없다. 사람도 그것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것이다.

이 레문에서 《짐승의 소리》는 문맥상에서 《량심없는 말》, 《의리없는 말》이라는 새 뜻을 나타내고있다. 사는가 죽는가 하는 순간에 나타내는 짐승의 소리와 사람의 말은 같지 않다. 이 본질적 차이를 알기 쉽게, 뜻이 깊게, 생동하게 표현할수 있게 한것은 그 속내를 숨겨본데서 생겨난 것이다.

북대정자의 봄기운 스며드는 수림속에서 눈물에 젖어 참회하는 성림을 용서하실 때 재생의 앞날을 확신하지 않았신것은 아니었지만 1년이 지나 성림이 이처럼 불속에 던져도 타지 않는 불사신으로 자라날줄은 미처 모르시었다.

이것은 부상을 당한 몸으로 의식없는 동지를 발구에 태워끌고 눈덮인 천리 험한 령을 넘어온 성림의 놀라운 성장을 보시며 사령관동지께서 한량없이 기뻐하시는 장면의 한 문장이다.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성장의 속도가 놀라운 것이다. 작가는 성장의 속도가 빠른 현상을 자연에서도 관찰하였다. 《봄기운 스며드는 수림속》이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봄기운 스며드는 수림속의 재생과 눈물에 젖어 참회하는 성림의 재생을 함께 보신 장군님의 웅심깊은 내면세계를 얼마나 생동하게 표현하고있는가. 이러한 전제가 있음으로 하여 《불속에 던져도 타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뜻이 인차 이해된다. 즉 《불사신》이란 말은 전설에서 유래된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곤난앞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혁명가를 이르는 새 의미로 씌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때문에 《불속에 던져도 타지 않는》다는 표현은 《군경에 빠져도 신념은 잃지 않는》다는 문맥상의 새 뜻으로 쉽게 이해된다.

과연 이 길 끝에 기다리고있는것은 무엇인가? 허덕허덕 걸어가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 눈앞에 시커먼 심연이 다가서는것 같아서 우뚝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총을 놓고 내려오면 《자유》를 준 다더니 죽기전에는 그 《자유》가 울것 같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발바닥에는 이미 피가 묻었다.

이것은 인간백정의 무리 마에다부대의 길잡이로 나선 변절자 장국산이가 음울해지고 불안에 빠지는 대목이다.

장국산의 죄의식은 우울과 공포이며 초조와 절망감이다. 이런 고통속에서 벗어날수 없는 변절자의 가련한 몰골을 《발바닥에는 이미 피가 묻었다》로 표현한것은 얼마나 생동하고 뜻이 깊은가.

《발바닥에는 이미 피가 묻었다》는 표현은 문맥상에서 일시적으로 《돌이킬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새 뜻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표현적 효과는 살인자의 피자욱에 변절자의 죄가를 숨겨본데서 얻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숨은 비유의 수법을 리용한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 리용된 표현수법 가운데서 숨은 비유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또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단편소설 《길동무들》에서는 거의 찾아볼수 없었던 현상이다.

한 작가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판이한 현상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겠는가?

작품의 소재와 주제가 다른데서 오는 차이겠는가? 아니다.

이것은 우선 단편소설 《길동무들》을 창작하던 시기의 관찰력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창작하던 시기의 관찰력이 매우 높아진데서 오는 차이이다. 다시말하면 작가의 관찰력에서 서로 다른 두 시기 즉 인간생활의 의의를 리해한 깊이와 폭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차이이다.

다음 이것은 표현수법들 가운데서 숨은 비유가 웅심깊은 뜻과 함께 생동한 표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높은 표현적 질을 획득하게 한다는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기와 그것을 깨달은 시기를 구별해주는 차이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바와 같이 단편소설 《길동무들》이 발표된 때로부터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가 발표될 때까지는 약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에 소설가 김병훈의 관찰자료의 축적과 표현수법의 정통에서는 또한 번 전환이 일어났다는것을 두 작품의 차이가 말해주고있다.

그러면 관찰자료의 축적과 표현수법의 정통에서 일어난 전환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관찰자료의 축적에서 일어난 전환이 어떤 것인가를 보자.

단편소설 《길동무들》을 창작하던 시기에 작가는 아직 생활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체득한 측면에서 모든 정황에 대처할수 있을만큼 평소의 축적이 마련되어있지 못하였다면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창작하던 시기에는 그 어떤 정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든든한 밑천이 마련되어있었다.

이것은 관찰자료의 축적에서 일어난 전환이 아닐수 없다.

다음 표현수법의 정통에서 일어난 전환이 어떤 것인가를 보자.

작가가 단편소설 《길동무들》을 창작하던 시기에 리용한 표현수법은 단순할뿐아니라 그 경향성도 뚜렷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를 창작하던 시기에 리용한 표현수법은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그 경향성도 뚜렷해졌다.

그중의 하나가 숨은 비유의 수법리용이다.

숨은 비유의 수법리용은 단어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새로 얻어지는 문맥상의 새 의미를 리용하는 수법으로서 높은 표현적 질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숨은 비유는 개성적인 문체를 지향하는 작가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된다. 그것이 유력한 수단으로 되는것은 뜻이 바뀐 단어들은 본래의 뜻으로 쓰였을 때보다 그 기능이 매우 높아진다. 즉 생동한 표상과 함께 웅심깊은 뜻을 동시에 안겨주는것으로 하여 문장의 감정정서성이 비상이 강화된다.

이것을 깨닫고 즐겨 리용한다는것은 표현수법의 정통에서 일어난 전환이 아닐수 없다.

그러면 관찰자료의 축적과 표현수법의 정통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것은 의존하는 관계, 반작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의존하는 관계를 가진다는것은 생활의 의의를 깊이있고 폭넓게 파악하게 되면 자연히 다양한 표현수법을 리용하게 된다는것을 말하며 반작용하는 관계를 가진다는것은 표현수법들에 정통하게 되면 생활의 의의를 깊이있고 폭넓게 리해하는데로 촉진시켜준다는것을 말한다.

이런 리해를 가지고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또 다른 실례들을 분석해보자.

에두름법으로 표현한 실례

에두름법이란 이미 이름지어져있는것이 적당치 않거나 범상한것으로 하여 다른 이름이나 표현으로 에둘러바꾸어놓는 수법을 말한다.

《자, 이거 정말 없는데 없다. 금방 저아래선 얼음같이 찬 룡국을 한사발 대접받았는데 돌배까지 곁들인단말이오다? 배속에서 유럽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서로 맞지 않는 두가지 음식물에 대한 관찰을 능청스러운 우스개소리로 표현한것이다. 여기서 《유럽전쟁》은 《설사》를 에둘러 바꾸어놓

은것으로서 감미롭고 직관적이며 강한 색채를 띠고 있다.

더우기 그것이 립시병원에 갑자기 나타난 배정식과 그를 뜻밖에도 맞이한 오중훈간의 미묘한 심리상태 즉 두사람사이에 생각이 맞지 않아 서로 맞서는 심리상태와 어울리면서 《유럽전쟁》이라는 표현적 질은 더욱 높아졌다. 즉 표상은 더 생동해지고 뜻은 더 깊어졌다.

이러한 효과는 두 물질의 필연적 상극과 두 인물의 심정에서 일어난 필연적 상극을 함께 관찰하는데서 얻어지고있다. 이것은 확실히 이 작가의 자기다운 관찰각도이며 특징적인 언어형상의 또 다른 측면이다.

음악소리처럼 가락맞고 부드럽고 장쾌한 기관총소리를 타고 적들은 학춤을 추며 나동그라진다.

이것은 적들이 총알에 맞아 쓰러지는 물결을 면에서 관찰한 표현이다. 여기서 《학춤을 추며 나동그라진다.》는 《허우적거리며 죽어자빠진다》를 에둘러바꾸어놓은것으로서 본래의 의미보다 더 생동하고 좋아하는 감정적 색채도 더욱 진해졌다.

《학춤》은 낡은 사회에서 《불들어다 심문을 하고 초달을 하며 혼을 내주는것》을 비겨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뜻도 보충적으로 주면서 적들에게 학춤을 취우는 통쾌감도 나타내고있다. 이것도 대상, 현상의 특징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심리적 특징을 함께 드러낸것으로 된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석탄에 밀영을 정하고 한창 군정훈련을 다그치던 정월중순 아베노브유끼대장은 국회유지대의원 276명이 련명한 불신임안에 몰리어 아직 문설주도 눈에 익히지 못한 총리관저에서 쫓겨나고말았다.

이 레문에서 《아직 문설주도 눈에 익히지 못한 총리관저에서 쫓겨나고말았다》는 《총리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떨어졌다》를 에둘러바꾸어놓은것으로서 여기서도 매우 인상적인 표상과 함께 감정적으로 물들여진 강한 색채를 주고있다.

어떤 대상, 현상이든지 그것이 안고있는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또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알게 되면 그것은 곧 생활과 자연현상의 의의를 깊고 폭넓게 파악한 능력으로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가졌을 때라야 비로소 작가적 관찰력을 가졌다고 말할수 있다.

...마당에 벌어진 참경을 보자 그는 우뚝 멈춰섰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어느 시체에도 머리가 없었다. 머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눈무지를 시커멓게 태운듯싶은 자국만 남아있었다.

이것은 리철법정치위원일행이 량강구 지방조직 연락장소로 되어있는 산전막에 당도하여 적 《토벌대》가 저지른 치명적인 만행을 보는 장면의 한 대목이다.

이 레문에서 《눈무지를 시커멓게 태운듯싶은 자국》은 《피가 피어 얼어붙은 자리》를 에둘러바꾸어 놓은것이다.

피는 그 열과 랑에 따라 빛이 달라진다. 눈무지를 시커멓게 태울만큼 뜨거운 피가 많이 흘렀다는 것을 얼마나 강한 직관성으로, 얼마나 사무친 절통함으로 나타내고있는가.

《맞았다! 또 한놈 아리랑고개로다.》

이 레문에서 《아리랑고개》는 《넘어간다》를 에둘러바꾸어 표현한것이다. 민요 《아리랑》에 나오는 아리랑고개는 리별의 고개이다. 이런 기성관념에 기초해서 원쑤놈이 북수탄에 넘어가는 모양을 통쾌한 감정으로 회화하고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분석한 레문과 또 다른 관찰이다. 적들이 총알에 맞아 너부러지는 하나의 대상을 전번에는 학춤을 추는것으로, 이번에는 아리랑고개를 넘는것으로 달리 관찰하였다. 인상의 포착에서, 감정의 색깔에서 미묘한 차이점까지 투시해본 관찰이다.

관찰은 이와 같이 그 투시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심리와 물체의 속내, 현상의 바탕을 들여다보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관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투시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편집자는 대동강유보도에서 저녁산보를 하다가 동년배의 한 작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적이 있었다.

편집자는 나무밑 긴의자에 앉아 불어오는 강바람을 쏘이며 작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아직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때여서 물결우에는 락조의 잔광이 비껴있었다.

돌출체에 앉아 유람선을 바라보는 로인, 하모니카를 불며 지나가는 청년들, 걸음마를 타기 시작하는 아기를 앞세우고 뒤따르는 젊은 부부, 나무아래서 그 누구를 기다리며 서있는 처녀, 꽃밭을 에둘러 술레잡기를 하는 아이들... 대동강의 저녁풍경은 아름다웠다.

《여기서 청춘남녀들이 사랑을 맺은 쌍이 얼마나 될가?》

문득 작가가 묻는 말이였다.

《그거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이구만. 참말 얼마나 될가?》

편집자는 재미있다는듯 작가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저녁유보도의 주인공은 청춘남녀지!) 하고 생각하였다.

《대동강 기슭에서 사랑을 맺은 사람은 여기 서있는 나무들과 가로등보다 더 많을게야 여기 나무들과 가로등들은 다 사랑을 맺어준 증견자들이지. 그것도 한쌍이 아니라 두쌍, 세쌍 아니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저 나무들과 가로등들이 귀땀해주는 말에 귀기울여보오. 참, 흥미있지.》

《그래 뭐라고?》

편집자는 작가의 흥취를 돋구노라 응수해주었다.

《그럼 저기를 보오.》

작가는 조심스레 눈짓으로 저쪽 나무밑에서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처녀를 가리켰다.

어느덧 가로등이 켜진 나무아래는 두 젊은이가 나란히 서있었다. 벌써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지금은 말없이 생각에 잠겨들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 사랑을 고백할듯한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처녀는 불현듯 자기 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대하던 일이 오늘에야 일어나게 될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작가는 마치 나무가 귀땀해주는 말을 전해주듯이 이렇게 속삭이였다.

편집자는 마음속으로 작가의 투시력에 탄복하였다. 밤유보도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중에서 쌍을 이룬 청춘남녀를 주인공으로 포착한것이라든가, 유보도에서 사랑을 맺은 남녀청춘이 나무들과 가로등들보다 더 많으리라고 본것이라든가,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처녀의 모순된 내면세계를 들여다본것이라든가 그 하나하나를 새겨볼수록 저녁산보시간에조차 계속되고있는 그의 작가적 노력에 경의를 표시하지 않을수 없었다.

언제보나 그의 생활은 이러하였다.

편집자는 그와 함께 있는 여러 기회에 혼자 중얼거리는것도 여러번 들었다.

건설장의 기중기를 바라보다가는

《기중기가 팔이 하나라고 힘도 절반인줄 아는가.》

비내리는 날에 까치둥지를 보고서는

《까치가 둥지는 틀지만 지붕은 못없어.》

모래불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면서는

《바다는 쉽없이 거품과 검불을 기슭으로 밀어내며 자기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있다.》

이렇게 그의 관찰은 어디서나 계속되였다. 그때마다 편집자는 작가를 방해하지 말아야 했다.

(다음호에 계속)

건설장에 울리는 웨침

김성원

방송야회는 이미 고조에 올랐다.

쌍둥이형제들처럼 의좋고 장쾌하게 솟아오른 석회로들, 저녁노을을 받아 다양하게 빛나는 카바이드직장의 은빛 지붕...

가슴 벅차게 안겨오는 장엄한 그 모습은 무대의 배경으로 솟아있고 나의 머리우에는 콘베아의 옥색 수송랑하와 갖가지 배관들이 그물처럼 뻗어있다. 한번 손을 휘저어 만져보고싶은 희디흰 연기가 카바이드로의 은빛 제진굴뚝에서 피어나고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고싶은 끝없는 속삭임이 머리우, 관들과 콘베아수송랑하에서 울려온다. 순천에서 이제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를날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격동에 가슴이 부푸는데 문득 땅이 꺼질듯한 열광적인 박수소리에 이어 무대우에서 굵고 청청한 바리톤의 목소리가 웨쳤다.

《건설자동무들, 세멘트는 넘려마십시오. 위력한 나라의 세멘트공업은 200 일전투에 펼쳐나선 순천과 광복거리 그리고 대건설행군에 기세를 올리는 여러분들의 탄약공급수로서의 위치를 영예롭게 지켜나갈것입니다.》

건재공업부문의 일군인듯한 거울진 사나이가 자신만만하고 배심중계 부르친 주먹을 쳐들어 흔든다.

《세멘트는 넘려말라 !》

방송선전차와 함께 여러 중요대상건설장에 나가사는 나로서는 거의 매일 듣게 되는것이 이 말이다.

《창고에 세멘트가 떨어져갑니다.》

어느 작업반장이 직장소참모회의에서 하는 말에 직장장은 이렇게 대답한다.

《동문 별근심을 다하오. 중앙창고에 넘쳐나는게 세멘트요, 매일 한방통씩은 제끼라는데 일을 다그쳐야겠소.》

기업소 지령실에서는 지치고 목신 지령원이 전화통에 대고 말한다.

《메타놀건설장에 탄약이 떨어져갑니다... 아 그걸 몰라서 묻소? 세멘트말이요 !》

그런데 도리어 전화통에서는 위협적인 말로 이렇게 고아댄다.

《동무넌 그 세멘트가 아직 있단말이요, 허참... 지금쯤 거기 창고에 세멘트전용차가 들어섰을게요. 그런 근심 말고 일을 내미오, 일을...》

그런데 오늘방송야회무대에서는 건재공업의 세멘트를 담당한 옥심나는 바리톤목소리가 이렇게 웨치는것이였다.

문득 나는 부푸는 궁지와 자랑으로 가슴이 들먹거린다. 강대한 경제력과 위력한 세멘트공업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지금 전국 도처에서는 얼마나 희망에 넘친 대건설행군이 벌어졌는가 !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광복거리, 태천발전소와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 얼핏 손꼽아도 큰 건설이 부지기수인데 건설장마다 세멘트를 《럼치》도 없이 먹어대는 《대식가》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도처에 벌려놓은 공장, 기업소 확장공사와 산줄기처럼 일떠서는 건물들...

하지만 나라의 세멘트창고는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요새는 200 일전투로 더욱 급격히 불어나는 《식욕》을 만족시키고있다.

나의 눈앞에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있었던 얼마전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로대보수전투가 벌어졌다는 소식에 건설장들의 《탄약》문제로 우려에 찬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마음을 방송선전차에 담아실고 그곳에 갔을 때였다. 소성로보수현장은 말그대로 치열한 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작업복에 물을 함뿍 들쓰고난 직장장은 배포유하게 빙긋이 웃었다.

《건설자동무들한테 전해주시우, 세멘트는 넘려말라구, 보수시간을 줄이자구 수백도의 소성로에 남먼저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승강대기가 벌어졌습니니다. 대건설전선의 탄약을 말은 우리들이 아님니까.》

직장장의 작업복자락에서는 물론 뭉툭한 주먹코와 턱끝에서 물방울이 락수처럼 떨어진다. 그는 말하는 시간마저 아까운듯 로앞으로 달려갔다. 뒤미처 그의 청높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200 일전투장은 오늘의 1,211 고지요. 동무들 ! 조국이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있소. 200 일전투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제 3 조 나를 따라돌격 !》

작렬하는 폭탄과 포탄, 매캐한 화약내, 쿵쿵대는 총성... 여기에는 물론 그런것이 없다. 하지만 준엄했던 그날의 정황에 늘 자신들을 세워놓고 세멘트고지를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은 성공한 유화작품처럼 승엄한 군상으로 뇌리에 인박했다.

해방직후 낡고 보잘것없는 한두개의 세멘트공장에서 한해에 도무지 몇만톤밖에 내지 못하던 세멘트공업, 그나마 포화에 짓부서져 정전직후까지만 도 부뚜막 매질할 세멘트 한줌, 벽돌쌓을 세멘트 한삽이 그립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민은 20 리 날바다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세멘트폭포로 막아치우고 해방직후 한해 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세멘트도 단 며칠동안에 생산하며 남조선수재

민들에게까지 보내주는 위력한 세멘트공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그 규모와 내용을 상상하기조차 벅찬 광복거리,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이 모든 대상을 동시에 내밀고 있다. 인류건설사에 류례가 없는 이 거창한 대건설행군은 강력히 꾸려진 세멘트공업과 이 부문로동계급의 뜨거운 심장에 떠받들려 넘치는 기백으로 질풍노도같이 전진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력한 세멘트공업을 자립의 터전우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은 제 3차 7개년계획기간에 2,200 만톤의 세멘트고지를 점령할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놓았다.

2,200 만톤의 세멘트고지 ! ... 여기에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터를 잡아주시고 건설 전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자동화, 현대화된 공장으로 일떠세운 대규모능력의 상원세멘트공장은 이미 희망찬 설계도우에 또하나의 꽃으로 피어났다. 그 설계도따라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에는 이제 또하나의 세멘트공장이 서게 될 것이다. 세멘트공업의 앞날은 참으로 휘황하다.

그에 따라 더욱 찬란하여질 건설과 건축예술...

《세멘트는 넘려말라!》

건설장의 방송야회연단에서 울려 퍼진 이 웨침은 주체의 세멘트공업이 200 일전투로 들끓는 대건설장에 보내는 확답이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조국앞에 담보하는 우리 세멘트전사들의 신념의 메아리였다.

나의 입당을 보증해달라

엄성희

나이로 헤인다면
언니라 불려도 되련만
꿈많은 내 가슴속에 가득찬
그대 모습 평범치 않아

내 삶의 스승처럼
따르는 이 마음
하루에도 그 몇번
마음속 입당청원서를 펼칠 때마다
찾아오는 모습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로
님편을 가진 안해로
시련의 나날 그대의 마음속에
한가정의 무게도 무거웠으련만

어머니이기전에 당원으로
안해이기전에 전사로
당을 받든 동지여
어려웠던 조국의 무게를
심장으로 덜어준 신평향동지여

내 때없이 귀기울이노라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넘려마시라고
락원의 작은 회의실에서 올린

그대 목소리 나도 낮고싶어,

내 때없이 되새기노라
수령님께 다진 그날의 맹세 지켜
포연을 뚫고, 불속을 헤치고
신념에 넘쳐 변함없이 걸어간
그대 발걸음 나도 낮고싶어,

하루에도 그 몇번
마음속 입당청원서를 펼칠 때마다
스스럼없이 찾아오는 모습이어
그날에 다지던 맹세의 구절구절로
내 마음을 살피주는 눈빛이어

그대는 나를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로
제일 아름다운 걸음씨로
조국의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이끄는
내 마음의 벗이기에
우리 당과 가장 가깝게 해주는 동지이기에

오늘은 내 진정을 터놓고
감히 그대와 속삭이노라
내 마음속 입당청원서를 펼칠 때마다
찾아오는 그 모습, 그 눈빛으로
후날 나의 입당을 보증해달라

조선의 선언

구희철

거품을 안고
기슭으로 밀려오는 파도를 보아라
그 기세 땅을 삼킬듯 기승부려도
엄엄한 바위에 부닥쳐
산산 물방울로 흩어지지 않느냐

그처럼
조선은 굳건히 서있거니
예나 지금이나
복수자의 림름한 자세로
일심단결의 성벽이 되어...

밀려올테면 오라
패속화물선 몇만톤급이 아니라
비행기와 탱크와 핵탄두로 쌓아진
온 미국땅이 다 밀려온대도
눈섭 하나 까딱않을 인민이 서있다.

《핵공격작전》 이란다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길잡이
침략의 날 세운 닳을
우리의 남해에 악착스레 박고
조선의 맑은 하늘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든다

오늘도 우리 조국강토엔
침략자를 쳐물리친
그 성스러운 결전들을 말해주며
이끼 푸른 성돌이 아직도 있고
피어린 혁명의 성산 백두가
끝나지 않은 행군길로 부른다

우리는 먼저 칼을 들지 않았다
임진전란의 그날에도
50년, 전쟁의 그날에도
정의로운 무장으로 조국을 수호한
불패의 힘을 지닌 조국이다

피도 많이 흘렸고
눈물도 많이 흘린
그 준엄했던 시련속에
전쟁의 참화가 어떤것인가를
평화로운 날에도 서슬푸른 신천땅이 말해주고
파편에 넋륙마저 헤아릴길 없는
1,211 교지의 불탄 나무가 다 말해준다

말해보라
무엇때문에 우리 조선이
열핵전쟁의 불바다로 되어야 하는가
무엇때문에 우리 인민이
핵참화의 불속에 고통을 당할것인가

우리는 바란다
조국의 허리에 가로지른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을 무너뜨리고
북남 삼천리를 하나의 지경없는
황금벌로 설레이게 했으면...

진정 바란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된 사람들
그 리력란에 전쟁고아였다고 쓰게 되는 아픔
우리 후손들에게 더는 없기를
고운색을 골라 나서처음 조국을 그리는
그 어린것들의 가슴에
웅근 하나의 조선을 옮겨주기를...

기억하라
그 어떤 복수자 조선이
미제 너의 도발에 맞서 서있는가를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 동지
최고사령관이 되시여 서계시고
일심단결로 받드는 우리 당이 있고
수천만이 하나같이 뭉친 인민이 있다

우리는 모른다
한마디의 빈말도
미제야, 네놈들 함부로 날뛰면
《보복》에는 보복
《제재》에는 제재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조선의 결심은 오직 이 하나뿐...

영원히 시체도 못찾게 하리라
네놈들 밀려온 그 태평양 깊은 바다에 처넣어
영영 묘비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영영 무덤도 모르게 하리라
먼 후날 미제- 네놈들을 두고
사전을 뒤져서만 그 저주의 이름 찾게 하리라
승냥이 미제- 인류의 극악한 원수였다는것을

인류에게 보내는 시

문동식

인류에게

지구의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에 살건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이 글을 쓰노라
생활의 기쁨도 피로움도
무릅없이 만나 허물없이 나누는
혈육처럼, 친근한 이웃처럼
그대들의 손을 잡고 비분에 떨며
뜨거운 눈물로 쏟으며...

당신들이 안은 아기와 같은
이 땅의 꽃망울들을
불속에 무참히 파묻은 미제,
그대들의 어머니와 같은
이 땅의 어린 녀인들을
저 검푸른 저수지에 차넣은,
그대들의 련인파도 같은
이 나라의 순진한 처녀들을
나무에 매달고 젓가슴을 도려낸...

그 야수들이
아직도 지구위에 살아있고
오늘도 인류의 피를 마시려
핵전쟁의 화약내 풍기며
해빛과 맑은 공기 흐리우고있거니
그대들이 대양건너 그 어느 대륙
물과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 살아도
다시는 다시는
미제 흉한들의 참화를 입지 않도록
조선의 분노를 새겨주고싶어
그 분노와 저주만이
전쟁과 불행의 얼음장을 녹이는
평화의 불이어서

오, 인류여
나는 여기
조선의 신천땅에서
그대들에게 이 시를 보내노라

미제가 여기 있다

오동나무 설레는 푸른 언덕우에
솟아있는 나지막한 2층집
문 열고 들어서면
오늘도 여기에선
미제의 살륙이 벌어지고있다

대양건너
아메리카 미국땅
백악관의 권좌에 몸을 잠근 대통령이
인류의 《평화》를 설교하는 순간에도
여기선 그가 보낸 양키병사들이
애국농민들의 두손을 도끼로 자르고

워싱턴의 달콤한 환락가
포만한 향연속에 국무성의 나리들
외국의 귀빈들과 잔을 쥔으며
세계의 《안전》을 찬미하는 시각에도
여기선 그들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매달고 가족을 벗기고

《인권옹호》대표의 이름으로
미국의 《하느님》 자비한 《사도》들이
세계의 곳곳으로 날아가는 때에도
여기선 오, 여기서
그들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
나 어린 소년들의 연약한 목에
나무를 질러놓고 널뛰기를 하고...

인류여 보시라
파연 미제는 어디에 있는가
죽어도 변할수 없는 미제의 근본은
비둘기를 손에 든 미국에 있는가?
인류를 교살하고 《지구의 지배자》로
《초인》을 망상하는 미제의 근본은
여기 신천땅에 와있거니

《평화》와 《인도주의》가면을 벗은
《인권》과 《천사》의 허울을 다 벗은
미제를 보려거든
미제를 알려거든

세계여
인류여 여기로 오시라
여기 조선의 신천으로 오시라

그러면
당신들은 알게 되리
아메리카 미제는
수천수만의 인류의 피와 살을
독점의 대청에 재물로 쌓아놓고
그것을 씹으며 그것을 피마시며

비대해진 식인종무리들임을

오, 그로 해
미제는 이미
여기 조선에서 덜미를 잡혀
신천박물관에 갇혀있노라
천추만대를 두고
여기 죽음의 단두대우에서
력사의 준엄한 선고를 받고있노라

이 열쇠를 간직하시라

여기
맑은 유리함속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열쇠들
모양도 크기도 가지각색
이 열쇠들속엔
고간이 넘쳐나게 쌓가마니 쌓아놓고
마음 호뭇이 바라보던
그 실농군의 열쇠도 있다

이 열쇠들속엔 있다
일요일의 아침
푸른 백양이 신록을 떨치는
싱싱하고 고요한 온천못가로
들놀이 떠나가던 로동자가정
그 집 너인의 손때묻은 열쇠도

가게방할머니의 열쇠도 있다
시계방주인의 열쇠도 있다
깊은 밤 누가 찾아와도 반겨맞아주던
그 정미소집 어머니의 열쇠도
소비조합상점책임자의 열쇠도...

여기
신천의 어느 한사람도
미국놈들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건만
놈들은

총탁으로 구두발로 문들을 까부시며

백주에 빈집에 뛰어들었고

놈들은 집집의
의농을 털고
쌀독을 털고
밥가마를 털고
놋쇠오강마저 황금이라고
훔치며
머리에 쓰고 꺾꺾 웃어댔노라

허나 보시라
여기 신천의 어느 한사람도
미제에게 량심을 흐리우지 않았노라
주인의 존엄도 빼앗기지 않았노라
가슴속 가장 깊은곳에
조국의 열쇠를 귀중히 품고있어
고향의 한치땅도 잃지 않았거니

오, 인류여
렬사들은 오늘도 말해주노라
미제는 날강도, 도적놈, 정신거러지,
이 력사의 추물들에게
언제 어느때나 그 어디서든
영원히 마음의 성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조국의 열쇠를 주지 말라고

검은 머리

나는 보고있다
진렬함속에
소중히 놓여있는
흙이 그냥 묻어있는 머리채들을

달뜨는 저녁
시내가 하얀 돌우에 앉아
수정같은 물에 깨끗이 씻어
함함이 빚어내리던 처녀들의 머리

해뜨는 아침
맑은 거울앞에서
어머니가 곱게 다듬어주고
꽃리봉 달아주던
앵두볼 귀엽던 딸애들의 머리

설날이 오면
동백기름 발라 정차게 단장하고
아이들 앞세우고 본가집으로
동구길을 나서던 녀인들의 그 머리

나이는 많고 적고
저마다 다르지만
세월은 가도가도
그 어느 머리채의 한오리도
세지 않았으니
세지 않았으니

신천의 렬사들은
그 누구든지 떠나지 않았어라
그날의 시내가 하얀 돌우에서
그날의 맑은 거울앞에서
그날의 즐겁던 동구길에서
오늘도 그 행복을 지켜

원췌 미제와 싸우고있거니
오, 인류여 보시라
신천의 렬사들은 머리 세지 않노라
이 땅에서 미제가 저지른
형형색색의 천만죄악을
천만배로 다 갚기전에는

오로지
복수만이, 복수만이 남아있어
떠나간 사람들은
원췌를 징벌하며 검은 머리 날리노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날의 청춘으로 길이 살아서-

살아있는 어머니들

신천의 밤나무골
양지바른 기슭에 나란히 묻혀있는
400 어머니와 102 어린이 묘

봉분앞에 서면
타번지는 불바다속에서
아이들이 발랑발랑 기여나와
그 누구의 가슴에나 안기는듯
그 아이들을 찾는 어머니들의 웨침소리
귀전에 따갑게 울려오거니

찾아와 멈춰선
어머니들은 여기서 눈굽이 젖고
소년들은 분해서 울고
젊은이들은 저주에 불타고...

아마도 그 어머니들이
그날 불속에 재로 되지 않았다면
귀한 자식들을 끝끝하게 키워서
대학에도 보내고 군대에도 보냈으리
아니 지금은 벌써
박사의 어머니 영웅의 어머니로
자손들의 축복을 받을수도 있으리

하지만
그 어머니들은 다 떠나가고
지금은 이 밤나무골에
아들딸 찾는 어머니들의 웨침소리만
하늘땅에 메아리쳐 울려오나니

인류여 보시라

어머니들의 그 부름소리에
오늘도 여기에 끝없이 굽이쳐오는
사람들의 도도한 저 물결을

이 시각도
여기 400 어머니들은
찾아오는 그 손들을 뜨겁게 잡아
찾아오는 마음들을 한품에 다 안아
수천수만의 가슴과 가슴들에
복수의 젖줄기를 물려주고있거니

오, 여기 신천의 어머니들은
미제에게 빼앗긴 살붙이만이 아닌
온 나라 온 누리의 아들딸들을
태어나고 태어나는 미래들을 다 불러
복수자로 키워주며 살아있는 어머니

오, 인류여
당신들은 보내시라 이 어머니들에게
그대들의 피줄기를 이어받은 보배들을
세월이 흘러흘러도
미제에 대한 분노를 가다듬으려
여기로 보내시라 그대들의 후손들을

그러면 여기
신천의 400 어머니들은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
말없이 복수의 젖줄기를 물려주리
불행과 눈물없는 새세계
그대들의 이 녀원 지구우에 꽃피우는
평화의 투사로 영웅으로 그들을 키워주리

세월은 가도

피어나는 꽃도
원혼을 안고 그리도 붉게 피고
한줄기 시내물도
세월은 가도 씻을수 없는
그 원한을 안고 마를줄 모르는 땅

산기슭
하나의 작은 바위돌 들어내도
그밑에는 렬사의 유해
한채의 집 기초를 파도
피에 젖은 옷과 신발들이 솟아나고

정녕
한발자국도 빈땅이 없는곳
잠자리에 누워도 따뜻한 온기는
밑에 묻혀있는 혈육들의 체온인듯싶어
차마 발퍼고 잠들수 없다

어떻게 깊어야 한단말인가
원썩 미제의 이 죄악을
하늘땅이 변해도 풀릴길 없는
이 원한 이 증오
서슬푸른 산천으로 솟아 굳어졌거니

오, 신천의 푸른 산 푸른 들은
그대로 하나의 광활한 버림장
복수에 끓는 수천만 사람들이

씨억- 씨-억-씨-억
멸적의 서리발 창검인듯
치솟는 의분을 갈고 가는곳

이 땅의 병사들은
여기서 일당백의 용맹을 버려가고
이 땅의 노동자와 농장원들은
여기서 계급의 의지를 갈아가고
시인도 과학자도 예술가도 학생도
여기 와서 복수자의 각오와 선서를
비수처럼 갈고 갈아가거니

이 세상
그 어데 있으랴
신천에서 총창버린 병사를 당할자
신천에서
쟁기와 펜을 갈아간
그 공민의 힘과 슬기 이겨낼자가...

오, 인류여
조선에
신천이 솟아있는 한
지구우에
이 큰 버림장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정의의 총칼들은 무딜줄 모르노라
우리의 반제자주정신과 투지와 맹세는
세월따라 더 섬광을 뿜노라

오늘은 그 물결우에

리금녀

잘 있었느냐
물결아
얼마만이나
그립던 대동강아

어제날 병사
맑은 물결에 내 모습 비쳐보니
어느덧 흰서리 머리에 내렸구나
너의 진정 방울방울 물구슬에 담아
나를 반기는구나

아, 전사의 배낭 메고
전선길 달려가던 포화의 그날엔
네 물결에 비쳐보던 내 모습
오각별군모 단발머리뒤에
불타는 수도가 있더니

파편에 깔린 바위터
내 첫 사랑이 기다려주던 물굽이에
오늘은 젊은 어머니
꽃우산속에 아기를 잠재우는구나

그날의 애실버들아래
청춘들의 춤판이 벌어졌구나

강이여, 내 마음의 흐름이여
추억에는 눈물도 있는 법
네 깨끗한 여울에
뜨거운것 뿌려보지 않고서는
삶의 참뜻을 모르리

진정 다는 모르리, 물결이여
병사의 땀을 바친 강기슭
목고채 휘게 흙을 옮기던 유보도너머
옥류교는 무지개런가
유람선은 흰물새이런가

대동강아
내 사랑의 물결아
내 물결우에 어제날의 병사모습
다시 비껴보니
희여가는 귀밀머리뒤에
오늘은 젊은 수도가 솟아났구나 !

체험의 깊이, 진지한 탐구

얼마전 우리는 200 일전투의 불길속에서 창작에 열중하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아동문학작가 리준길동무를 찾아 그가 일하고있는 평양시 창작실로 갔다. 그것은 최근 그가 초고를 집필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아동단생활을 보여준 증편소설 《붉은넥타이》(가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다.

추고작업을 하고있는 원고를 앞에 놓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기 창조물에 대한 긍지가 비껴있었다.

《로동자와 농민의 보람이 로동의 열매를 가꾸는데 있다면 작가의 보람 역시 창조적 열매인 작품을 창작하는데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작가들의 준비정도와 창작적 개성이 서로 다르듯이 창작적 보람에 대한 작가들의 견해도 제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아동문학작품의 고유한 얼굴은 동심적인 참신한 종자를 골라쥐고 그것을 동심에 맞게 예술적으로 형상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아이들은 아직 논리적 사유와 판단력이 제한되어있는데로부터 작품에 아무리 뜻깊은 사상과 의의있는 성격, 생활이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심적인 형상으로 무르녹지 않은것이라면 아무것도 이해할수 없고 또 감수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아동문학작가들에게 있어서 생활을 철저히 아이들의 눈으로 대하고 분석판단하며 일반화할것을 요구한다. 오직 아동문학작가만이 내세울수 있는 아이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의의있는 문제성, 아동문학작가에 의해서만 새롭게 발견될수 있는 독특한 형상세계를 가슴뜨겁게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말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 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려면 간접체험을 하게 되는 조건에서 당정책을 잘 알고 그 요구에 맞게 어떻게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형상을 창조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다. ...

작가는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였고 그것을 창작의 지침으로 하기 위한 응당한 노력을 기울이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서 작품창작을 위하여 체험의 깊이를 더하기 위한 진지한 탐구를 진행한 흔적을 엿보았고 바로 여기서 아동작가로서의 보람도 느끼고있다는것도 알수 있었다.

혁명전통주제 작품창작에서 간접체험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체험을 어떻게 하고있는가. 하는 우리의 물음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 주체위업의 심화발전과 함께 보다 새로와진 우리 어린이들의 사상정서세계는 아동문학작가들에게 더 깊은 탐구와 생동한 형상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뜨겁게 감수될수 있는 작품, 그것은 자기의 독특한 얼굴을 가진 작품이며 그러한 작품은 언제나 깊이 체험하고 탐구하려는 작가에 의해서만 태어날수 있을것이다.

소설을 쓰기 위한 의도와 골격이 선 기초우에서 나는 백두산지구, 은덕지구, 온성지구의 혁명전적지들을 찾았다. 취재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환경과 그 시기에 살아간 인민들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나는 일제통치시기 수난에 찬 생활행로를 겪어온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고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살아온 아동단원들을 깊이 알게 되었다.

수개월후 평양에 돌아온 나는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기관을 통하여 풍부한 자료를 얻었으며 그것을 연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나는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한 투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다시 현지에 나가 항일혁명투쟁공로자들과 항일혁명투사들의 친척을 만나 실감있는 사실적자료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책에서는 알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나의 사실을 얻어듣기 위해 수십리길을 걸었으며 하나의 자료를 알기 위해 수백리여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힘든줄을 몰랐다. 다만 나도 그 영광의 대오에 따라선다는 느낌만이 들었을뿐이다.

평양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았다. 여기서 나는 해방전 북부국경지대의 농촌의 세태풍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곳 생활풍속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나는 취재가 아니라 체험의 과정으로 되도록 하였다. ...

작가의 진지한 창작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진실으로 공감했다.

이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 시대 아이들의 혁명적 지향과 생활에 대한 탐구는 그 연령심리적 특성에 따르는 진실한 예술적 화폭의 창조를 위한 탐구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아동문학작가들이 아이들에게 혁명적 양식으로 될 좋은 작품을 써내자면 그들의 생활을 늘 새로운

눈으로 보며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주건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형상하는 창조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을 직접체험하던, 지나간 생활에 대하여 간접체험을 하던 작가는 진지하게 체험을 깊이 할 때만이 좋은 작품을 써낼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여기서 창작의 보람을 찾곤 합니다. 》

작가는 참으로 귀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여 주었다.

우리 시대 아이들의 사상정서세계에 대한 탐구와 형상은 아동문학작가의 진지한 사색과 창조력을

전제로 한다. 아직 지적으로 보나 모든것이 미숙한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아무리 사소한것이라도 진실치 못한것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등을 돌려대고말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문학작품이 어린 독자들과 친숙하게 되자면 형상의 진실성, 예술적 설득력을 담보하기 위한 작가의 진지한 탐구와 진실한 체험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추고중에 있는 작가의 증편소설 작업에서 더 큰 전진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본사기자

평성에서

리광선

푸른 가로수
질은 그늘 드리운
그때 문이던가
평성이여, 내 너의 거리에 들어서니
걸음도 훨훨 가벼워지누나

언제 봐도
낮이면 해빛에
밤이면 별빛에
저먼저 보아달라 반기는듯
천만 창문이 눈부신 거리

과학의 도시
과학자들의 거리
너의 땅에서 한자욱 한자욱은
그래서 생각깊이 내짚게 되는구나

우리 수령님
좋은 집터를 보시여도
좋은 집을 지어놓으시고도
과학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 사랑속에 솟아난 거리여!

평성이여
너의 거리를 거닐면
언제나 가슴 후더워라
평성을 과학의 도시, 과학의 거리로
안겨주신 그 고마움

그 어느 창문을 열고
조용히 들여다보아도 좋으리

거기
백발의 로과학자
깊은 사색에 잠겨있고
행복한 생활의 향기가
차고넘친 그 창문을

단란한 과학자가정
모두의 생각도 한뼘으로만 흘러
서로 돕고 이끄는 모습도 보게 되리
재롱섞인 딸애의 고운 노래에
젊은 학자의 웃음넘친 모습도 보게 되리

평성이여
얼핏보면 너는
이 땅 그 어느 도시와 다름없이
록음 짙은곳에 집들이 일어선
평범한 도시와 같지만

무심히 걸을수 없구나
자욱마다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마다 목메이는 사연
끝없는 거리와 함께
끝없이 이어지고있어서

아, 평성이여
내 너의 도시 너의 거리에 들어설 때면
마치도 과학의 성문을 열고
먼먼 앞에 있을
새 세기의 그 거리를
오늘에 벌써 걷는것 같아
이렇게 가슴은 후더워만저라

샘물은 파도를 부른다

리평

은하수의 눈부신 빛발을 후광처럼 등에 진 전사들이 산자드락 돌발길을 가고있었다.

어데선가 예광탄의 섬광이 하늘을 찌를듯 튀겨 오르다가 성좌의 푸른 빛에 무색해난듯 거무칙칙한 본색을 드러내며 죽어버렸다. 쾅 파르릉, 간단없는 포소리, 따쿵거리는 카빙총의 방정맞은 소리, 여기 저기서 쉬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신호탄의 희푸른 불줄기...

중대장 정기철은 오늘저녁 격전을 치른 757 고지를 떠나 앞계선의 OO 고지를 차지하라는 상급참모부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중대를 이끌고 강행군해가고있었다.

전사들의 심장마다에는 지금 크나큰 걱정이 화염마냥 타래쳐오르고있었다. 이것을 력력히 의식하고있는 기철의 심장에도 역시 증오와 련민, 자책과 회오가 뒤섞여 설레이고있었다.

점벽, 점벽... 군화밑에서 으서져나가는 자갈들의 마찰음이 이 걸음의 촉박함을 알려줄뿐 대오에는 기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다. 걸음발은 더더욱 세차졌다.

기철은 가끔 고개를 돌려 뒤따르는 전사들을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곤하였다. 담벽같은 가슴들을 내밀고 묵묵히 걷고있는 전사들, 그들의 어깨우에 솟은 아식보총의 기다란 총창은 증오로 불타는 전사들의 눈동자와 함께 별빛을 받아 날카롭게 번쩍거렸다.

기철은 아무말없이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다. 무겁게 입을 다문 그는 무엇인가를 헤가르듯 팔을 내두르며 발걸음을 다그쳤다. 점벽점벽... 걸음을 재우치고있는 기철의 뇌리에는 오늘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있었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X

757 고지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초가을바람을 안고 설렁거리는 들국화, 중천에 높이 떠 지저귀는 이름도 모를 못새들...

그 무엇도 전쟁을 련상하기 어려운 평화로운 자연의 정경이었다. 그러나 이에는 아랑곳없이 격렬한 싸움은 앞에 있다.

누가 먼저 이 고지를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적아간의 승패를 거의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고리로 제기되었었다. 그리하여 아군 한개 중대가 파견되어왔다. 그들은 하루밤 150 리의 강행군을 치르고 지금은 휴식

명령을 받았다. 적이 나타나기까지는 5 시간정도의 시간이 있다.

중대는 불이나게 전호굴설을 끝낸다음 오래간만에 달콤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다. 전호가에 모여앉아 총과 배낭, 신발과 군복을 손질하면서 신바람나게 이야기관을 벌려놓고 웃음을 터뜨리는 대원들이 있는가 하면 눈살을 찌프려가며 면도질을 하기도 하고 신대원들의 조준련습을 도와주는 축들도 있다.

중대장은 유쾌한 분위기에 휩싸인 고지중턱을 둘러보며 끝짜기를 타고 산자드락 취사장쪽으로 내려가고있었다.

장기쫓처럼 모진 턱, 포화에 그슬린 검실검실한 얼굴, 만만한 투지와 증오가 뒤섞인 예리한 눈빛은 쉽지 않은 싸움을 수없이 이겨낸 틀잡힌 지휘관임을 첫눈에 알아보게 했다.

흰칠한 몸에 짝 들어맞는 군복은 비록 피와 땀으로 얼룩졌고 총탄과 파편에 찢어졌으나 사내의 거친 솜씨로나마 간간히 기워져있었다. 기철은 지금 식사조직을 알아보려고 나선 걸음이었다. 전투가 예견되는 시간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여유가 있을것이었다. 그러니 전사들이 다문 한끼라도 편히 식사할수 있도록 준비를 다그쳐야 했다.

아까부터 연락병이 보이지 않았다. 바늘에 꿰실마냥 노상 결을 비우지 않던 연락병이었다. 이 순간 꼭 그를 찾아야 할 리유는 없었지만 그가 곁에 붙어있는데 습관이 된 기철은 지금 어딘가 허전한 느낌까지 들었다.

이러는 자기를 발견한 기철은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잡관목속으로 오불고불 새겨진 오솔길을 따라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때마침 헤덤비며 마주올라오는 취사원이 보였다.

약간 부할사한 몸집, 마음 무던해보이는 길동근 얼굴, 꺼꺼부정한 어깨와 연신 앞치마자락에 문대는 빨건 손이 풀덤불속에서 어른거렸다.

《중대장동지, 취사원 동영춘 식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평복도 어느 소비조합의 인수원출신인 취사원은 별스럽게 고개를 기우뚱하며 어설픈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기철은 그의 거수경례에 깃듯이 답례하였다.

《식사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네, 저 노루고기는 다 익었습니다. 거 맛이 참 좋더군요. 허허.》

취사원은 버릇처럼 앞치마자락에 손을 문대며 사람 좋게 웃었다.

《손이 모자라진 않소?》

《일없습니다. 그런데 저… 식사는 고지에 올라가랍니까?…》

《그렇게 하시오. 시간은 있소. 식사질을 보장해 야겠소.》

《알았습니다.》

취사원은 다시 한번 엉거주춤 차렷자세를 하고 나서 기우뚱하고 돌아서려 했다.

《참 런락병을 못봤소?》

《네 종남이말입니까? 저기 샘터에…》

취사원은 종남의 경쾌한 노래소리를 듣지 못하는 중대장을 리해할수 없다는듯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몸을 돌려 골짜기 아래쪽을 가리켰다. 아닌게 아니라 바람결에 설레이는 들국화덤불속에 종남이의 넓지 않은 잔등이 보이였다숨기였다 했다.

푸른 들 넓은 벌판에 전차 한대 달리다가
전차 한대 달리다가 문득 서더니
옷뚜껑 벌컥 열고 전차병 내려와서
물 한그릇 푸려는데 물 한그릇 푸려는데

아직은 애된 목소리에 툄스럽게 꾸며낸 음성이 설렁거리는 바람을 타고 제법 웅글게 울려왔다찾아졌다 했다.

그쪽을 내려다보던 취사원이 히죽이 웃으며 중대장을 쳐다보았다. 기철의 입귀에도 알릴듯말듯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샘터에 자갈을 주어도 깔지요. 원 녀석이…》

취사원은 다시 종남이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묻지도 않는 말을 섞었다.

《자갈을? …》

이렇게 되물은 기철의 얼굴에는 대원들 눈에 좀체로 내비치지 않던 너그러운 미소가 다시 입귀로부터 눈귀로 은은히 번져갔다. 처절한 전쟁을 앞둔 이 시각 깊은 산기슭의 이름없는 샘에 그토록 정성을 쏟아붓는 종남이의 너무나 천진한 모습이 기철이의 마음속에 짙은 런민의 정을 불러왔던것이다.

《흠… 종남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을가?

그도 래일이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것을, 저 샘이 어느 한순간에 박살날수도 있다는것을 알지 않는가…》

《아직 어린애지요. 이제 겨우 열여덟인걸요… 이제 여긴 쑥밭이 될게고 우린 앞으로 진격을 할텐데… 허허 저런 장난을 하지요.》

취사원은 종남의 장난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귀여워 못견디겠다는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다시 샘터쪽으로 눈을 주었다. 취사원이 사라지는쪽을 눈바래며 기철이는 자기도 천천히 그곳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그는 샘터어방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종남을 정겹게 내려다보았다. 그러던 기철의 얼굴에 금시 웃음이 스러져버렸다.

불시에 가슴이 에이듯 아파났던것이다. 보조개 패인 볼에 밧그레한 홍조가 그대로 비껴있는 저 런락병은 동글동글한 중학생모자를 제껴쓰고 책가방을 들썹거리며 지금 한창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가 아닌가.

기철의 눈앞에는 느닷없이 조국의 북단에 있는 자기의 고향이 삼삼히 밝혀왔다. 산천경개 아름다운 고장, 감자꽃 만발한 언덕아래 어린 자식 오누이가 안해와 함께 살고있으리라…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만약 전쟁이 아니라면 그 애들도, 저 종남이도 한껏 응석을 부리며 생을 즐기고있을게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하니 조국의 미래들에게 그들을 들썹운 원수 미제에 대한 격분이 참을길없이 치솟아올랐다. 그는 어금이를 지그시 깨물며 신음소리같은 소리를 공 내고나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기철은 종시 종남을 부르지 않은채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그가 잠시나마 천진스러운 장난이라도 실컷 할수 있도록 내버려두고싶었던것이였다.

들국화가 만발한 초가을이라지만 대기는 아직도 검질기게 달라붙는 여름철의 무더위를 훌렁 벗어붙이지 못했다. 거기에 뜨거운 노루고기국까지 마주한 전사들의 얼굴은 누구라할것없이 일년감마냥 벌겉게 익어버렸다.

《자 몸들을 내라구. 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름철에도 뜨끈뜨끈한 국을 먹어야 몸이 난다구.》

취사원은 더운 날씨에 끓는국을 준다고 누가 나무람이라도 한것처럼 제면저 설레발을 치고 돌아가며 청하지도 않는 덧국을 듬뿍듬뿍 쳐주었다. 《아, 아무렴. 찬국이야 몸에 해롭다마다…》 늑수그레한 농민형의 병사가 떠주는 덧국을 마다함이 없이 받으며 변죽을 쳤다. 그러자 전사들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챗 아바인 취사원아바이한테 잘 보이려구 하누만요.》

《…노루다리 하나는 문제없겠는데요.》

《허, 거 무슨 소릴. 누구든지 요구만 하라지 않나?!》 취사원은 여느때없이 너스레를 떨며 국자친 손을 높이 쳐들고 눈을 홑떴다. 농민형의 병사역시 제 말이 아침이 아니라는듯 떠드는 축들을 밟지 않게 짹 흘겨보더니 느슨한 미소가 도는 입가에 국사발을 가져갔다.

와 핫하하… 폭소가 터져올랐다.

기철은 떠들썩거리며 식사를 하는 전사들을 기쁜 마음으로 둘러보며 노루고기국을 훌훌 불어마셨다. 식사를 하느라 약간 뒤로 제친 군모의 채양밑으

로 땀이 송송 내뻗 그슬리지 않은 흰 이마가 드러나 유난히 눈을 끝었다. 식사가 거지반 끝나갈무렵이었다.

《아차차 내 정신 봤나?!》

취사원이 갑자기 허를 딱 차더니 차곡차곡 찡기던 빈 식기들을 밀어놓으며 서둘러 앞치마자락을 들쳤다. 그리고는 군복바지주머니에서 한몽테기의 편지를 꺼내들었다. 좁전에 기통수로부터 받은 편지였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전사들을 둘러보더니 전호박으로 휘파 쉰다. 전사들이 벌떼처럼 탄성을 지르며 와르르 그에게로 달려갔다.

《자 이건 어머니에게서 온 김태복동무의 편지요. … 또 이건 리병주오빠알이라. 거 누이동생이구먼. 자, 이번엔 데머사니 누구의 편진고 하니- 림정삼이라…》

취사원의 석싹한 목청은 차츰 노래조로 번져갔다. 한명씩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사들은 통구그물 아래 선 방어수들마냥 랑팔을 내두르며 편지를 나꾸채가곤했다. 취사원은 더더욱 승기가 나서 긴 가락을 늘어놓으며 전사들의 조바심을 돋구어주었다.

드디어 취사원의 손에 단 한장의 편지가 남았다. 취사원은 랑껏 손을 주껴올리고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하, 애가 어델 갔어?》

전사들은 저저마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편지의 임자를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거나말거나 취사원은 돌부리에 올라서서 더욱 키를 돋우고 편지를 휘둘렀다.

이러는 그를 바라보고있던 기철이 갑갑증이 난 듯 한마디 했다.

《거 누구 편진지 애태우지 말구 시원히 대주우.》

그제야 취사원은 증대장을 뜻있는 눈길로 바라보고나서 포박포박 그루를 박아 읽었다. 《홍종남 앞. 김옥금 보냄이라- 자 이것봐라?! 너동생이 보낸걸가? …》

취사원은 마치 장한 일이라도 치르어낸듯 시뻘해서 친구들을 둘러보았다.

《히야, 동생이라면 성이 같아야지요. 홍종남에게 어찌 김씨성을 가진 동생이 있나말이예요.》

《나 이런, 외사촌동생도 동생이고 외록촌동생도 동생이지. 거참…》

취사원의 그렷듯한 소리에 전사들도 공감되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째서 난 종남이에게 그런 동생이 있다는 말을 못들었을까? …》

종남이와 남달리 가깝게 지내는 중기사수의 말에 전사들의 얼굴에는 느닷없는 호기심이 자글자글 떠올랐다.

《가만가만 이 편지가 종남이에게 오든 첫 편지니만치 독보를 해야 하네. 우리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나.》

취사원이 중요발언을 했다.

《거 옳시다. …》

모두들 좋아라고 찬동했다. 취사원은 군입을 찹찹 다시며 봉투를 뜯었다. 그는 《어흠》 하고 짜장임을 잡도리로 목청까지 다듬었다.

《데머사니… 이게 뭐야?! 종남동무에게라- 그럼 분명 동생은 아니렀다…》

이렇게 서두를 떼놓고는 제소리만 증얼거리는 통에 모두들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취사원은 어느 대목을 읽어야 흥미진진할것인가를 골라잡는듯 편지장의 아래웃단을 살펴보더니 다시한번 《어흠》 하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에- 데머사니 …》

《야, 거 무슨 머사니가 그렇게 많아요?》 누군가가 갑갑증을 못참아 편잔을 주었다. 그런데도 취사원은 그냥 놀량이다.

《에, 그래서라므니… <승리한 그날에 고향의 샘터에서 다시 만나요>… 음 이 친구 고향에 머사니 한 샘이 있는 모양이군…》

이때 샘터에 물을 길러 갔던 종남이가 커다란 밭국통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왔다. 숨이 턱에 닿아도, 번열이 나도 그의 입엔 노상 노래였다.

《푸른 들 넓은 벌판에 전차 한대 달리다가… 에 이 덩다-전차 한대 달리다가… 옛차…》

밭국통을 번쩍들어 언덕배기에 올려놓은 종남은 군모를 벗어 턱으로 흘려내리는 땀을 문질렀다. 그는 편지봉투를 일별하다가 눈을 동그랗게 치켰다.

종남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취사원의 손에서 와락 편지를 나꾸쳤다. 그의 랑볼은 금시 새빨간 홍시처럼 돼버렸다. 어쩔바를 몰라 허둥거리던 종남은 편지를 천재 고치아래쪽으로 냅다 달아났다. 핫하하하… 전사들의 웃음소리는 산발에 메아리를 일으켰다.

이 순간 기철은 왜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는 착잡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종남이의 잔등을 내려다보았다.

기철은 벌떡 일어섰다. 일어서면서 뿜어진 풀잎이 줍을 넘었다. 그가 천천히 발길을 옮기며 활개질을 할 때마다 줍안의 풀잎들이 후둑후둑 꽃잎마냥 흘날려 떨어졌다.

(이런 엄혹한 정황에 어울리지 않게 샘물가의 조약돌이라?! …)

그때로부터 얼마후 종남인 증대장앞에 차렷 자세로 서있었다. 어둑컴컴한 은혜부안에서도 파릿하게 보이는 종남의 해맑은 얼굴이 험동하게 알렸다. 오동통한 불을 타고 번들번들 흘러내리는 땀줄기도 보였다.

언제나 새물새물 웃고있던 종남이의 동그란 눈에는 눈물이 고인것 같기도 보였다. 그는 대답소리 한마디없이 자기 상관의 꾸중을 듣고있었다.

《종남동무, 이 시각 증대앞에 나선 임무는 휴식이라는 말을 못들었소…》

기철은 종남이쪽은 보지도 않고 푸점없이 말을 뱉다.

《싸움을 앞두고는 휴식도 전투임무요... 우린 조국을 책임진 전사란말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소. 응...》

기철이가 무겁게 몸을 돌리고 뒤말에 그루를 박으며 말을 했다.

기철이 노상 꺼꺼부정하고 서있는 키낮은 은페부였다. 하지만 종남은 차렷자세로 서있어도 한뼘만큼이나 천정과 사이가 있었다.

기철은 종남의 랑다리를 결눈으로 흘깃 쳐다보았다.

...

종남일 내보내고난 기철은 한참이나 머리를 지수긋하고 은페부안을 걸었다.

뚜벅뚜벅 무겁게 울리는 기철의 발자국소리, 이따금 머리를 쳐들 때마다 은페부천정의 통나무가 툭툭 마쳤다.

(내가 너무하지 않았는가?) .

그는 발길을 멈추었다. 머리는 또다시 통나무 천정에 툭 마쳤다.

(전혀 불필요한 꾸지람이 아니었던가?)

이때 종남에 대한 기철의 꾸중이 정당하였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둔중한 포소리가 천지를 돌돌 울리며 들려왔다.

은페부 천정에서 흙먼지가 부실부실 떨어져내렸다. 기철은 다시 걸음을 땀다.

(아니 지금은 전쟁이다. 누구든 사사로운 감정에 자기를 내맡길 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책상우에 펼쳐진 지도우에 눈을 주며 몽드라진 색연필꿈다리를 째 그려주었다.



적의 포탄은 우뢰같은 소리를 지르며 아군진지에 곤두박혔다. 미구에 쿵복듯하는 총소리와 함께 적들의 반들거리는 철갑모가 팔짜기어구가 터져나가도록 와글와글 물켜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싸움은 격렬해졌다. 하늘에는 뜨거운 해가 떠오르고 고지에는 적아간의 맹렬한 화력전이 벌어져 삼라만상을 통채로 데쳐놓은듯 대기는 노상 달아올랐다.

와르릉 텅텅...

갑자기 끝안이 무너져내리듯한 굉음이 산발을 텅텅 구르며 메아리쳐왔다.

《땅크다!》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다.

기철은 소리난쪽으로 획 머리를 돌렸다. 땅크의 동음이 터져오는 측면 산자드락쪽을 쏘아보는 순간 가슴이 쿵 무너져내렸다.

(어디서 나타났는가? 어제 치른 전투에서 땅크는 몽땅 불타버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디서 저 한놈이 딱장벌레처럼 기여들었는가.)

익측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아프게 가슴을 때렸다. 우리 눈을 피해 죽은듯이 숨었던 땅크 한대가 남몰래 기여든것이다. 정면으로 달려드는 강한 유생력량에만 신경을 쓴 자신이 이 순간 태질을 치고싶도록 원망스러웠다.

적정은 긴박했다. 중대엔 한문의 반땅크포도 없었다.

(내가 왜 만일을 생각 못했을까?!)

적땅크의 요란한 동음이 울려오는 익측, 샴터가 있고 취사장이 전개되어있는 고지의 익측에는 비교적 평퍼짐한 둔덕이 솟았는데 그 둔덕은 곧장 아군이 차지한 고지와 잇달려있었다.

직들은 비교적 방어화력이 어설픈 아군의 익측을 일격에 돌파할 타산밑에 익측 등성으로 중땅크를 들이민것이였다.

싸움군으로 이름을 날린 기철이건만 전혀 예견치 못했던 적땅크의 돌연한 출현앞에서 순간의 당황을 피할수 없었다. 기철은 입술을 강물고 각일각 다가드는 적땅크를 노려보았다.

자갈투성이 둔덕을 무쇠발굽으로 짓밟개며 바라오르는 적땅크의 리데아래서는 주먹같은 돌맹이가 파편마냥 횡횡 튕겨났다.

주먹이 와드드 떨렸다. 기철의 주먹안에는 흙이 한줌 그려져있었다. 자갈에 다슬려 시퍼렇게 색이 살아난 땅크의 리데판은 맹수의 사나운 이발마냥 날카롭게 번뜩이며 무엇이든 단입에 집어삼킬듯 맹렬히 달려들었다.

기철이 전호력을 박차며 적땅크를 향해 내달으려고 머리를 추켜든 순간이였다. 적땅크의 시퍼런 발톱앞에 몸집 작은 한 병사가 땅속에서 솟아난듯 문득 나타났다.

병사의 손에서 수류탄이 해빛을 받아 번뜩거렸다. 병사의 이 모든 동작은 그의 작은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도 자신만만하고 여유작작하였다.

(누군가?)

기철은 전호력을 박차고 한걸음 달려나갔다. 이제 3초, 3초후면 병사의 손에 쳐들린 수류탄이 터질것이다. 다음엔 그의 가슴에 스스럼없이 안겨져있는 수류탄 《바구니》가 폭발할것이다.

《빨리 피하라.》 벼락치는듯한 기철의 고탈소리에 병사는 갑자기 피곳 고개를 돌렸다.

《허-기》

이 순간 기철은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그었다. 폐장이 꺼져내린듯 불시에 숨이 콕 막혀왔다.

(종남이가?)

병사는 비록 땀과 흙먼지로 얼룩졌어도 기철이 어찌 자기 련락병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랴. 기철은 반사적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종남은 없었다.

그가 있어야 할 결자리에는 물맑은 전투가방만이 놓여있을뿐이었다. 그렇지 그는 방금 통신선을 보러 갔었지...

《종남아-》

기철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파르릉, 피가 터져나가는듯한 기철의 목소리는 수류탄이 폭발하는 굉음에 묻혀버렸다. 재빛연기가 풀썩 솟구치더니 오만하게 쳐들어오던 적땅크가 제자리에서 뱅그르르 돌더니 덜컥 멈춰섰다.

《중대 날따라 앞으로!》

기철은 거의 본능적으로 부르짖었다.

만세- 중대전사들은 황급히 내뺄새 원수들을 뒤쫓아 비호마냥 산아래로 내달았다.

구름처럼 몽게졌던 화염은 서서히 사라져버렸다. 표주박같은 골짜기어구에 솟아있는 757 고지에도 고기비늘같은 구름이 널려있는 하늘에도 불그레한 저녁노을이 곱게 비졌다.

천지는 그 어떤 명상에 잠기더라도 한듯 무던히도 고요했다. 여기저기서 널름널름 허를 내두르는 불길과 술술 피어오르는 마지막연기, 알알한 화약내, 뒤번져진 땅, 뻥하니 구멍이 난 포탄자욱들만이 아니라면 과연 여기서 언제 싸움이 있었던가싶게 고요했다. 기철은 자기의 연락병을 고지기슥의 바위밑에서 찾아냈다.

종남은 어느때나 새물거리던 그 눈을 살포시 뜬채 해맑은 얼굴을 반듯이 들고 누워있었다. 랑불에는 아직도 밧그레한 홍조가 남아있는듯싶었다.

생시와 조금도 다를바없는 모습이였다.

《종남아...》

종남을 그리안은 중대장의 팔이 와드드 떨렸다. 종남을 들여다보는 기철의 눈에서는 퍼런 불이 푹푹 떨어졌다.

《종남아, 네가 죽다니 네가...》

허연 소금기가 내뺄 그의 널다란 잔등이 마구 떨렸다. 이윽하여 기철은 네모진 턱을 덜덜 떨며 머리칼이 갈기처럼 흘날리는 커다란 머리를 쳐들었다.

기철은 무딘 방망이에 얻어맞기라도 한듯 몸의 중심을 잃고 비청거리며 가까스로 일어섰다. 그는 열결음도 못미쳐 있는 웅달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샘은 이 모든 참경과는 아랑곳없이 불깃한 락조의 잔광을 받아 반짝거리며 잔잔히 고여흘렀다.

금모래가 바그그 끓어오르는 샘물속에는 애기조마구만한 조약돌 몇개가 가지런히 누워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철의 퍼런 판자노리가 푸들푸들 뛰었다.

(...너를 그토록 아껴주던 종남의 심장은 멎었지만 너는 그대로 넘쳐흐르지만 한단말이나...)

기철의 눈귀에 맺힌 커다란 눈물방울에 조약돌 박힌 샘물이 그대로 또렷이 맺혀올랐다. 바로 몇시간전 종남이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며 하나하나 깔아놓은 사연깊은 저 조약돌...

자기의 주인을 영영 잃었건만 조약돌들은 어찌면 저렇게 아님보살을 하고 태연히 누워있을수있단말인가...

기철은 샘쪽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전장을 수색하는 중대원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차츰 가까와졌다.

덤벅덤벅 누군가 다급히 샘터로 다가드는 기척이 났다. 헤엄치듯 랑팔을 허우적대며 다가오는 사람은 취사원이였다.

평소에는 지나가는 거미도 못잡아쥐리만큼 동작이 느린 그였지만 지금은 내달리는 갈범마냥 펄펄 날아온다.

샘물을 띄여본 취사원은 온 세상을 다 얻기라도 한듯 히죽이 웃더니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허... 샘물이 그냥대로군.》

샘이 결단났더라면 힘든 싸움을 치른 전우들에게 밥을 못해줄변하지 않았는가. ... 취사원은 두툼한 손바닥으로 제무릎을 철썩 때렸다.

또 누군가 쿵당거리며 소란스레 달려왔다. 호리호리한 몸에 어울리지 않으리만치 육중한 중기를 둘러멘 중기사수였다.

벌겋게 단 중기의 방열통에 피라도 짜넣을듯 펄펄 뛰던 그다. 중기사수는 군용물통으로 물을 듬뿍 떠서는 조갈이 들어 하얗게 재가 앉은 자기의 입이 아니라 중기의 방열통으로 가져갔다.

칙- 방열통을 적시는 물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불이 반사적으로 푸들푸들 멀었다.

샘물에만 마음 쏟고있던 취사원과 중기사수는 한참만에야 종남을 받들어안은채 굳어져있는 중대장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눈은 금시 튕겨나오기라도 할듯 커다래지더니 퍼런 불이 확 당겼다. 취사원의 손에 들렸던 밥통뚜껑이 땅에 떨어져 뒹굴었다. 중기사수의 커다란 군용물통이 꺼꾸로 들린채 꿀떡꿀떡 물을 토했다.

화염에 단 모래불은 군용물통에서 쏟아지는 물을 들쓰며 뽀얀 먼지를 피워올렸다. 취사원은 연신 커다란 입을 실룩거리고 중기사수는 불을 떨었다. 종남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던 두 병사는 마침내 종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왁살스레 그를 잡아흔들었다.

《종남아-》

두 병사의 갈린 목청은 사금파리로 쇠붙이를 긁어내리듯 아츠럽게 울렸다. ... 문득 기철의 귀전에는 맑고 명랑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푸른 들 넓은 벌판에 전차 한대 달리다가
전차 한대 달리다가 문득 서더니...

분명 종남의 목소리였다. 기철은 와들 놀라며 머리를 들었다. 변성이 채 되지 않은 자기의 애된 목소리에 노상 불만인듯 턱을 눌러 굵직한 《저음》을 만들어내곤하던 종남이, 틀림없는 그의 노래소리였다. …착각에 빠져 머리를 돌리던 기철은 이윽고 준엄한 현실을 깨달은듯 멀리 우중충한 산밭을 휘 쓸어보았다.

종남은 여전히 기철의 억센 팔뚝에 자는듯 안겨있었다. 기철은 천천히 걸음을 떼놓았다. 흐느끼며 어깨를 떠는 두 병사도 허청비청 그의 뒤를 따랐다.

싸움판에서 용케도 화를 면한 소잔등만한 잔디밭을 찾아낸 기철은 깨여날까 저어하는 어린이에 마냥 조심스레 종남을 거기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화염에 그슬려 쫓아붙은 꺼먼 군모를 벗어 쥐었다.

하나 둘… 기철의 뒤로 다가서는 중대병사들의 적동색 얼굴들도 비통에 절어 무섭게 이즈러졌다.

종남의 해맑은 얼굴을 저무도록 내려다보던 취사원은 아무래도 종남의 죽음을 믿을수 없는듯 그의 곁에 쭈그리고 앉더니 새삼스럽게 가슴속으로 손을 찔러넣는것이였다. 그러나 역시 심장은 고요히 박동을 멈추고있었다. 더더욱 거무칙칙해진 얼굴을 돌리며 손을 슬며시 뺐던 취사원은 군복웃주머니에서 들리는 바스락소리에 문득 손을 멈추고 기철이를 울려다보았다. 그러더니 군복웃주머니에서 곱게 접은 종이장을 꺼내어 정중히 기철이에게 넘겨주었다. 기철은 그것이 바로 잠전에 종남이가 받은 그 편지임을 직감했다. 기철의 가슴은 쇠집게로 조이듯이 아파났다.

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몇줄 읽어가던 그는 무엇에 놀란듯 느닷없이 머리를 추켜들었다. 그리고는 허공중 어데선가 그 어떤 중대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기라도 할듯 북쪽 하늘 저멀리를 말없이 응시하며 조용히 뇌이였다.

(종남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는 몰랐구나. 너를 피로했구나…)

기철은 피로 얼룩진 편지장우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종남동무, 동무는 지금도 해저물녘이면 동구밖 느티나무밑에서 구수한 쑥냄새에 취한 우리들이 사양원 김아바이의 흥그러운 옛말을 듣곤하던 어린 시절 일들을 기억하고있는지요. 고구려 용사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마시곤했다는 우리 마을 샘물이야기말이에요. 처녀들이 원하는 그 샘물을 마신 그들은 언제나 승리하고 돌아왔었다지요.…종남동무, 전선으로 떠나는 동무들에게 그 샘물을 떠다준 우리들의 마음을 알겠지요. 꼭 이기고 돌아오세요.》

너무도 평범한 사연이 적힌 동창생 처녀의 편지였다. 허나 구절구절이 피를 끓여버지게 했다.

고향의 샘물과 다를바없는 저 웅달샘에 그로록 지성을 기울였고 또 샘을 지켜 청춘을 바친 종남의 뜨거운 넋이 아픔으로 어혈진 기철이의 가슴속에 거침없이 흘러든다,

(샘물, 바로 그 고향의 샘물이 아직은 애된 목소리에 채 자라지 못한 작은 몸집을 가진 너에게 그리도 크나큰 웅골차고 뜨거운 애국의 넋을 불러주었구나.)

기철의 눈앞엔 한겨울추위에도 뽀얀 흰김을 뿜으며 출렁출렁 솟구치던 고향마을의 웅달샘이 조용히 다가왔다. 수정같이 맑고 이슬처럼 연연하였지만 모진 추위를 이겨내는 끈힘을 가지고있지 않았던가…

그 편지는 중기사수의 손을 거쳐 전사들의 손으로 천천히 전해갔다.

기철은 무엇인가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지금의 자기 심정을 그대로 전할수 있겠는지… 심장만이 세차게 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글거리는 눈길로 전사들을 둘러보았다. 강렬한 그 눈빛은 그가 채 하지 못한 천백마디 격조높은 언어가 되어 전사들의 가슴에 안겨든듯 병사들의 눈빛은 전광마냥 번쩍거렸다. 누구인가 중대장에게 종남의 전투가방을 내밀었다.

전투가방안에서 잘그락하고 조약돌들이 맞부딪치며 가방구통이로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종남이 주어놓고 미처 깔지 못한 조약돌이 분명했다.

기철은 연락병이 남기고 긴 전투가방을 두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그는 지금따라 유별스레 각이 쳐보이는 턱을 푸드드 떨며 샘터로 다가갔다. 아침녘까지만 해도 들국화 설렁거리던 샘터, 가렬한 싸움을 치른 지금에도 맑은 물 찰랑이며 거침없이 솟구치는 샘터앞에 기철은 한무릎을 정히 꿇고 앉았다.

전투가방속에서 조약돌을 꺼내든 기철은 진귀한 보석을 매만지듯 그것을 쓸어보고나서 샘물속으로 툭툭 떨어뜨려넣었다. 그의 뒤를 따라선 취사원과 중기사수, 전사 여럿이 그와 똑같은 본새로 어느새 벌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샘물속으로 조약돌을 떨어뜨렸다.

조약돌들은 마치도 종남의 령롱한 눈동자인양 어스레한 대기속에서 은근한 빛을 뿌리며 하나둘 조용히 샘물속으로 내려앉았다.

기철은 파문이 번져지는 샘물을 넋없이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샘물아, 종남의 심장은 멎지 않았다. 너의 솟구치는 숨결마냥 그의 심장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서 함께 뿜것이다.

종남의 심장속에 깃들었던 고향의 샘물은 정녕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힘찬 파도를 불러오고있다. …

밤, 은하수 흐르는 초가을의 밤이었다.
저벅저벅... 대오는 어두운 밤길을 가고있었으
나 남진하는 전사들의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불줄
기가 세차게 흐르고있었다. 준엄한 싸움을 위해
가는 밤, 생각도 깊어지는 밤이었다. 전사들이 지
금 타넘고있는 이 산사드락 발머리에도 이 나라

어느 전사의 소중한 생활, 잊지 못할 사연이 숨배
여있으리라. ...

대오의 앞장에 선 기철은 종남의 물맑은 전투
가방을 다시 한번 힘있게 추슬러메고나서 씨엥씨
엥 기운차게 걸음을 내짚었다.

나는 미래에 사노라

동명일

내 나이 열여섯
아직은 내 심장
영웅전사들의 심장처럼 크지 못하고
한장의 빠스표도
5 전짜리 작은것이건만

나는 사랑하노라
숲속의 아름다운 피꽃새노래보다도
내 조국을 끝없는 창조에로 부르는
저 대건설장의 우람찬 발파소리를

나는 더 좋아하노라
봄날의 파란 언덕보다도
부푸는 가슴에 용맹을 부르며
파도치는 광활한 바다를

내 하루의 공부를 끝내고
조용히 생각에 잠겨도
미래여, 내 삶의 래일이여
너는 대건설의 우렁찬 노래로
내 심장을 높뛰게 하고
하늘같이 창창한 희망으로
내 가슴을 설레게 하거니

깊은 밤
심장이 터지도록
현대과학의 비밀을 밝혀가는
내또래 학생들의
저 불밝은 창문들을 보아도
내 마음은 벌써
이 땅위에 수풀처럼 펼쳐질

자동화의 일터로 날아가고

줄업을 앞둔 교정에서
열정의 가슴을 두드리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배우고 달리고 땀흘리자고
불같은 호소로 심장을 터놓는 모습들 볼 때면
내 마음도 끝없는 래일로 내려쳐가나니

오, 나는 언제나 미래에 사노라
미래의 저 언덕에서
가슴 벅찬 창조의 기쁨이
어서 오라 부르는듯
나는 언제나 미래를 안고 사노니

철부지 나에게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배워주고
내 어린 눈동자에
환상의 나래를 달아주고
내 작은 가슴에
하늘같은 푸른 꿈을 안겨주고
내 작은 심장을
미래를 안고 높뛰게 해준
조국이여, 어머니조국이여

내 한생토록 그대를 위해 살리라
그대가 배워준 조국애
그대가 밝혀준 지혜의 눈
그대가 높뛰게 한 청춘의 심장으로
그대 있어 창창한 미래로
내 그대의 아들답게 달려가리 달려가리

보물의 바다

송병준

우리 인민들은 조국의 바다에 대하여 더욱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보물의 바다라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물론 우리 조국의 수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것은 아닐것이다.

바로 그 바다가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되고 풍족한 생활의 밑천을 마련해주기때문에 이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리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해안선이 길고 만과 도래굽이가 많은 우리 나라 바다는 참으로 양식업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풍요한 바다가 되는것은 아니다.

나는 얼마전에 신문에 소개된 고향의 포구에 대한 기사를 읽고 흥분을 금할수 없어 취재차로 그곳을 찾아간적이 있었다.

원래 내 고향의 포구는 서해기슭의 한적한곳이었다. 고향사람들은 조상전래로 내려오면서 저절로 자라는 다시마와 미역을 뜯고 바위기슭에 붙은 섭조개나 굴을 파서 식생활에 리용하여왔다. 협동농장이 조직된 다음에는 수산분조고기배가 포구앞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바스레기를 캐서 농장원들에게 공급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고향의 바다기슭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눈뿌리 아득한 바다에 양식장이 전개된것이었다. 지난날 바다물결만이 기슭을 핏는다고 해서 포구이름조차 빈포라고 부르던 여기에 바둑판처럼 줄쳐 늘어선 다시마와 미역 양식떼가 숨막곡질을 하듯 물속을 오르내리고있지 않는가. 방금 여름모 씨불임을 끝낸 양식장에서 전마선을 탄 양식공처녀들이 바다의 수온과 바다물의 영양상태를 측정하고있었다. 놀라운것은 다시마와 미역 양식떼밑에 바위에만 붙어살던 섭조개와 밥조개 새끼가 붙은 태장줄이 드리워있다는것이였다. 말하자면 바다물 윗층에서는 다시마와 미역을 양식하고 아래층에서는 섭조개, 밥조개, 굴, 해삼을 양식하니 바다를 그야말로 립체적으로 리용하는셈이였다.

나를 안내하던 이곳 양식사업소 기사장은 바다물에서 섭조개 드림줄을 슬쩍 쳐들고 이렇게 말했다.

《작가동무, 이 드림줄 하나에 섭조개가 수천개 붙어있지요. 한정보에 이런 드림줄이 수백개가 됩니다.》

그야말로 한정보에서 따들이는 섭조개생산량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것이다!

이 자그마한 어촌에서 그런 풍요한 수확을 내다볼줄이야.··· 올해에도 이 바다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밑식재배하고 영양관리, 기술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례년보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대풍을 내다보고있다는것이다.

나는 들을수록 희한스럽기만 하여 기사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한 바다물에서 복합양식을 하면 어느 하나가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허허··· 다시마와 미역, 섭조개와 같은 조개류를 혼합하여 양식하면 오히려 매우 유리한 먹이생활조건이 마련되지요. 그래서 바다농사야말로 파악있고 실속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는 저으기 만족하여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기 후대를 이어오던 바다나물과 조개류들이 자연의 주인이 된 인간의 요구와 의사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번성되고있는것이다.

기사장은 흥분속에 잠겨있는 나를 이끌고 바다가를 거닐며 감회깊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작가동무, 이걸 잊지 말고 꼭 써주십시오. 조국의 바다가에 펼쳐진 양식장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의 보다 유족한 생활을 위해 언제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음을 말입니다.》

나의 눈앞에는 문득 바다가양식사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파도사나운 바다기슭을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이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해 통이 크게 작전을 벌려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이 안겨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못잇을 전후의 어려운 나날 우리 인민들이 바다의 주인이 되어 군중적 운동으로 바다가양식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사업을 과학적 리치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 바다가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도 새로 내오도록 하시고 과학연구기관도 꾸려주시였으며 바다가양식의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시였다. 정녕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해 돌려주신 배려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난 지금도 새로운 다시마종자인 여름모를 받아안을 때의 감격을 잊을수 없습시다.》

우리의 과학자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드디어 새로운 다시마여름모를 만들어냈다. 다시마생육기일이 훨씬 늘어나 그만큼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하였다. 이것은 다시마양식에서 하나의 거대한 변혁이었다. 나는 기사장의 말을 들으며 자부심과 긍지감으로 하여 가슴이 후들후들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바다가양식방법이다. 바로 우리 조국의 바다가에 펼쳐진 양식업의 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신념,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이 수놓아져있다. 그 힘과 사랑에 의하여 조국의 바다는 퍼내어도 퍼내어도 마를줄 모르는 보물의 바다로 전변되었다. 이런 양식장이 우리 나라 해안선을 따라 무연하

게 펼쳐져있으니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을 따라 더욱 활짝 꽃피날것이다.

오늘 우리 당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에 의하여 바다는 완전히 사람들의 손에 공손히 길들여지게 되었다. 이제는 마치 전설의 쌀솥은 박우물에서처럼 바다에서 영양가 높은 단백질 부식물들을 무진장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그렇다. 억만재부 넘쳐나는 조국의 바다, 인민의 바다! 고향의 바다는 풍만한 자원을 한몫에 안고 조용히 굶실 거린다.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광활한 전망이 열려져있는 고향의 바다를 보니 나의 눈앞에 가까운 몇해안으로 우리 나라 동서해에 10 만정보 이상의 바다가양식장이 펼쳐질 그날이 우렛이 안겨오는듯했다. 아, 과연 그때에 가면 우리 인민의 식탁은 또 얼마나 풍성해질것인가! ...

평양의 봄

서수일

향기속에 우짖는
새들의 지저귀
한껏 물오르는 가로수의 설레임이
가슴속 환희를 불러내는 봄

해맑은 거리의 창가마다
망울터친 꽃속에 웃음도 떨기지고
거리와 유원지 그 어디를 가도
인민의 소원이 피어나는 봄이여라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도
꽃을 안고 노래를 안고
찾아오고 찾아오는 인류의 마음 어려
흰구름도 꽃처럼 유정하고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꽃
만경대로, 만수대로 그 어디를 걸어도
진동하는 꽃향기

수난의 눈서리를 다 가서준
태양이 온 누리에 빛발쳐가는곳

인류의 머리우에 영원한 봄 펼쳐며
시대의 향도성이 빛발쳐가는곳

봄, 봄!
세기의 속망을 꽃피주며
자주의 봄천지를 누리에 펼쳐가는
태양을 우러러 만발하는 봄

계절따라 가고오는 봄이던가
세월따라 가지 않는
영원한 봄
평양의 봄이여

대양과 대륙을 넘어
이어진 꽃물결
간절한 인류의 축원속에
누리에 차고넘친 꽃향기

아, 찾아오고 넘쳐나는 그 꽃물결 그 꽃향기
축원의 꽃다발로 다 엮어지고
축원의 꽃바구니로 다 엮어지는
봄, 평양의 봄이여!

선생님이 받은 꽃다발

서창길

그날도 나는 출근에 앞서 아침보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곱시정각 방송원의 담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리성옥동지에게 공훈교원의 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우리 선생님이 공훈교원이 되다니! ...)

그다음부터 나의 하루일과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서빨리 선생님을 찾아가 축하해주려는 그 한마음뿐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교육일군들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혁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교육일군들은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영예로운 혁명가들입니다.》

나는 퇴근길에 선생님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술한 학우들이 이미 와있었다. 나와 동창도 몇몇 보여 우리는 서로 눈인사를 하고 앉았다. 우리 상급생들과 하급생들도 이제는 어엿한 나라의 역군이 되어 서로서로 감회깊은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들중에는 영웅메달을 앞가슴에 번쩍이는 이들도 있고 극장의 화려한 무대에서, 텔레비존화면에서 관중들의 절찬을 받는 명배우도 있다.

한식경이 지났으나 우리 선생님은 집에 오시지 않았다.

《선생님이 왜 안오실가?》

내옆에서 도란거리며 속삭이던 우리보다 몇년 아래인 처녀들이 하는 소리다.

《우리 선생님이 수십년세월 어느 하루도 일찍 퇴근하셨겠소! ...》

앞가슴에 영웅메달을 단 군관이 그 동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젖어드는 음성으로 말하였다.

불현듯 나의 눈앞에는 10 년전 어스름이 깃든 봄날이 추억속에 솟아올랐다.

... 대수방정식의 마감풀이가 잘 안되어 공공 잡자르기를 수십번,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만 만년필을 떨어뜨리고 몸을 쭉 폈다.

《앵! 안되겠다. 내 힘으론...》

그때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힘들어요? 우리 같이 풀어볼가요?...》

선생님은 이미전에 뒤에 서서 나의 문제풀이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얼마후, 우리는 나란히 마을로 향했다.

《학생은 오늘 한 문제를 못풀어서 애는 썼는데 나중엔 단념했어요. 그것이 선생님의 마음에 안드는구만요. 오늘 한 문제를 단념했지만 이답에 커서는 그것이 몇천 몇만문제로 늘어나고 결국은 나라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말아요. 그날 계획한 학습문제는 꼭 그날로 풀어야 합니다.》

나는 그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집으로 갔었다. 그런데 나를 집까지 바래워준 선생님은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서 학교로 향하는것이였다.

《?? ...》

후에야 나는 구실 못하는 한 학생때문에 선생님의 아까운 시간이 몽청 잘리웠다는것을 알았다.

이것은 물론 나 한사람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였다. 공부끝난후 선생님의 시간은 초와 초가 일년이 맞잡는 시간이였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선생님의 수고에 의해서 높은 목표를 향해 희망찬 미래로 나래를 펼치게 되였다.

날이 저물고 밤이 이슬해서야 선생님은 돌아왔다.

《선생님! ...》

《선생님, 축하합니다.》

우리들은 문에 미처 못들어선 선생님을 붙들고 진정어린 축하를 드리였다.

약속한것처럼 모두가 선생님에게 향기그윽한 꽃송이를 안겨주었다.

《모두들 이렇게... 정말 고마와요.》

한껏 행복에 취한듯한 선생님의 다감한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덧 선생님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고 하 많은 시름이 남긴 자취인양 주름살이 얼기설기한 얼굴... 하지만 오늘은 만시름을 다 잊은듯 제자들의 축복속에 꽃다발을 안고 서있다.

나는 그 꽃다발이 단순한 자연의 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서 바라는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국의 미래를 키워낸 그의 숨은 노력이 오늘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짙은 향기를 풍기고있는것이 아닐가!

그렇다. 후대를 키우는 선생님의 30 여년은 조국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한 충성심이 그대로 꽃이 되어 교육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것이다.

정녕 이런 성실한 교육자들이 있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창창하고 무궁토록 번영할것이였다.

심오한 철학적 사색의 정화, 뜨거운 정서적 체험의 메아리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을 두고

김경희

위대하고 신성하고 은혜로운 대상은 만사람의 마음속에 한없이 고귀한 사색이 깃들게 하고 불타는 심장마다에서 끝없이 숭고한 감정이 솟구쳐오르게 한다. 그러한 사색과 감정은 마침내 시로, 노래로 되어 세기를 두고 울려 퍼진다.

그러한 노래들중의 하나가 바로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다. 이 노래는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이 꽃피는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살며 투쟁하는 그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노래, 조국에 드리는 맹세의 노래로 높이 울린다.

훌륭한 노래는 훌륭한 가사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 노래의 높은 사상예술성,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사의 높은 사상예술적 성과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조국애의 사상감정을 깊이 새겨주며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한생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신념으로 새기게 하는 훌륭한 시이며 사회주의 애국주의 주제 가사의 본보기로 되는 명가사이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훌륭한 시로, 명가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조국과 그 품에 안겨사는 인민들과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을 끝없이 숭고한 사색의 세계에 이끌어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가사의 시구와 시행들은 그 본래의 의미적 결합이 나타내는 뜻과는 대비할 수 없으리만큼 크나큰 의미적 진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며 숭고한 사상을 받아안게 하고 있다.

가사가 이와 같은 사상적 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시형상을 직선적으로 하지 않고 형상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삶과 투쟁의 철학을 담았기 때문이다. 가사가 시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를 형상적으로 쓰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형상적 비유를 옹골쳐 찾아내는 문제이다. 가사는 조국과 전사와의 관계를 나무와 그 아지에 피는 잎사귀, 심장과 피방울에 비유하여 잘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심오한 철학적 사색과 탐구의 결과에 의해서만 마련될 수 있는 시형상에서의 새로운 발견이다. 가사의 비유적 표현은 조국과 인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수십수백가지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을 고도로 함축하여 안고 있는 표현, 사람마다 자기의 삶과 투쟁을 두고 걸어온 과거와 걸어갈 래일을 두고 조국앞에 한 일과 못한 일을 두고 끝없이 사색에 잠기게 하는 심오한 표현이다.

매개 절의 비유적 형상은 또한 그 본질적 표징이 가사에서 노래하려는 생활의 진리를 밝히는데 가장 적중한 것으로 되고 있다. 나무와 그 아지에서 생을 받는 잎사귀, 심장과 그 품에 살아 약동하는 피방울의 본질적 특징은 조국과 우리 인민과의 관계를 노래하는데서 참으로 놀랄만치 적중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독자들에게 자기들이 말하고 싶었던 심장에 새기고 싶었던 진리를 받아안았을 때와 같은 정신적 만족과 희열을 준다.

이 가사의 형상적 비유는 움직일 수 없는 자연법칙을 그대로 안고 있음으로 하여 사회적 의미를 나타낼 때에도 역시 정치적 신념의 진리성 확고성을 철학적으로 확인해주는 힘있는 작용을 한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체현하고 있는 철학적 심오성은 적중한 비유적 형상을 발견한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시전반에서 논리성 있게 전개해 나간 것과 관련되고 있다.

가사에서는 시인의 미학적 리상을 체현한 품위 있는 비유적 형상을 시형상의 전면에 제시한 다음 그 비유적 형상의 논리를 타고 사색의 세계를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결과 시에는 형상을 떠나 성급하게 로출되는 주장이나 판단이 없게 되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철학적 논리를 체현한 형상속에서 작품의 사상이 무게있게 울려나올 수 있게 되었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사회주의 애국주의 주제 가사 창작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성과작으로 되는 것은 그것이 부드럽고 유정스러운 인정적 정서와 광만적이고 비장한 혁명적 정서를 결합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민이 지니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주의 감정의 세계를 폭넓게 일반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고 있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과 함께 서정의 풍부성으로 특징되는 작품이다.

시에는 무엇보다도 조국을 두고 느끼는 우리 인민의 한없이 부드럽고 유정스러운 인정적 정서가 넘치고 있다.

그대가 한그루 나무라며는
이 몸은 아지에 피는 잎사귀(1 절)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2 절)

조국을 한그루의 나무라고 할 때 자기는 거기에서 생명을 받아 싹트고 자라는 잎사귀라고 하는, 조국이 크나큰 심장이라면 자기는 그 품에서 살아 약동하는 피방울이라고 하는 서정적 주인공의 감정세계는 얼마나 유정스러운 인정적 정서로 넘치고있는가. 조국의 고마움 그 은혜로움을 진심으로 느끼는 이러한 감정정서는 바로 조국과 인민과의 혈연적 관계에 대한 심오한 인식으로부터 탐구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세계의 표현인것이다.

가사에는 또한 조국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랑만에 넘치는 전투적 정서가 굵아치고있다. 혁명적 랑만에 넘치는 전투적 정서, 이것은 혈연적인 인정적 정서와 함께 사회주의애국주의 사상감정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그것은 사회주의조국이 우리 인민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투쟁으로 가꾸고 지켜야 할 품이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작가는 서정적 주인공을 《찬바람 불어와 떨어지》는 처절한 정황, 《마지막 한방울 다하》는 심각한 극적 정황에 세우고 그의 희생적인 체험세계를 절절하게 파고들으로써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애국주의 감정세계를 깊이있게 전개하였으며 가사에 랑만적이며서도 비장한 혁명적 정서가 차넘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조국에 대한 밝고 유정스러운 인정적 정서와 랑만적이며 전투적인 혁명적 정서를 결합시켜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조국애의 감정세계를 다면적으로 노래한 서정성이 풍부한 가사로 되었다.

가사의 풍부한 서정성은 조국과 개인에 대한 형상적 규정을 적중하게 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되고있다. 이 가사가 조국과 혁명전사와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노래하는 작품인것만큼 가사의 서정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조국과 《나》에 대한 표상을 형상적으로 바로 제시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특색있는 서정의 파동이 일어날수 있으며 그것이 어울려 시전반에 서정의 물결이 풍만하게 넘칠수 있다.

가사는 조국을 《한그루 나무》 《크나큰 심장》으로 노래하였으며 혁명전사는 《잎사귀》, 《피방울》로 표현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을 상징하는 표현에서는 한없이 숭고하고 귀중하고 은정깊은 느낌이 진하게 풍겨나고 《나》에 대한 표현에서는 끝없이 소박하고 깨끗하고 순진한 감정의 흐름이 솟아나게 하였으며 그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조국애의 풍만한 정서로 굵아치게 하였다.

가사의 풍만한 서정성은 개별적 시어들의 짙은 어감과 음악적인 울림에 의해서도 보장되고있다.

가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 우리 인민을 조국애의 열정으로 가슴불타게 하는 명작으로 되게 된것은 그것이 시형상의 초점을 살릴수 있도록 서정구조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짜고든것과 관련되고있다.

작품은 매개 절에서 먼저 1, 2 행에 조국의 성스러운 모습과 그 은혜로운 품에 안긴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적 형상을 펼쳐 다함없는 감사와 행복의 서정이 물결치게 하였다. 다음 시행에서는 준엄하고 간고한 시적 정황을 펼쳐 앞부분에서 흘러오던 감정이 처절하고 준엄한 색깔을 띤 전투적인 감정으로 급격히 상승되게 하였으며 마지막 행에서는 최후의 순간에조차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는 전사의 형상을 통하여 그것이 눈물겨운 감동으로 목메이는 격정으로 바뀌어지게 하고있다. 다음 후렴구에서는 조국을 불러 자기의 맹세를 다시한번 확인함으로써 시의 서정이 비장한 색조를 띤 랑만적 정서로 끝없는 여운을 남기며 울려가게 하고있다.

가사는 또한 3 절에 시의 절정을 두고 그것을 부각시킬수 있도록 절배치를 짜고들고있다. 1, 2 절에서는 비유적인 시적 형상을 통하여 감성적인 체험을 충분히 주고 감정을 축적한데 기초하여 3 절에서는 직접적인 목소리로 시의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토로함으로써 그것이 사람들의 심장에 억년 지워지지 않을 글발로 힘있게 새겨지게 하였다.

은혜론 품속에 나서 자라나
나 하나 행복을 바라고 살라
청춘의 그 나이 문지를 맡아
순간을 산대도 값있게 살리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흩이 되어 뿌리를 덮어주는 잎사귀의 형상을 통하여,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는 피방울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을 받드는 혁명전사의 자세에 대한 움직일수 없는 진리가 생활의 철학으로 새겨졌거늘 이제 무슨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랴. 하기에 사람들의 심장마다에서는 신념의 목소리, 맹세의 목소리가 솟구쳐올라 조국땅에 끝없이 메아리치는것이다.

아, 나의 조국아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노래가 울린다. 온 나라 가는곳마다에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그 모든곳에... 하여 그들모두를 영원한 조국의 아들로 키워낼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며 자라난 사람들, 준엄한 시각이 오면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바칠것이며 한 줌 흩이 되어서라도 내 나라 대지를 덮어줄것이다.

그 웃음이 고와

강인철

이웃집을 찾아가듯이
나는 오늘도 그 처녀의 매대를 찾아가오
별로 살것 없어도
지나가는 아쉬워
들려보는 마음이라오

그 무슨 인연 뺏어져서일가
고운 꽃에 끌리듯
아마 이 늙은이도
그 처녀에게 정들었나보오

탓하지 마소
공원가에 나선 이 걸음
저도 몰래 구역직매점으로 향했소구려
《평양신문》에 새 상품이 소개되어서도 아니라고
부탁한 물건사러 가는것도 아니라고

들어서니 마주올듯 반기는 웃음
깁듯이 보내는 그 인사...
이보오, 첫마디에 정드는걸
내가 꼭 올것만 같더니
정말 왔다고, 새 상품이 들어왔다고

어쩌면 상품 하나를 두고도
나를 먼저 생각할가
안겨주는 그 진정 뜨거워
후더운 눈길 들어 매대를 둘러보니
아, 그렇게 받아안는것은 나 하나뿐이 아니구려

철에 맞게 안경도 바꾸어쓰라며
여름철 색안경을 끼워주던 그 손길로
손자애의 장난감도
나이에 맞게 골라보던 그 눈길로
저 술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리

처녀가 골라준 증절모 척 쓰고
거리를 행차하는 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한다오
신통히도 어울린다고

한결 돋보인다고

그래서
팔뚝같은 잉어를 보란듯이 낚아올릴 때면
좋아라 모여드는 구경꾼들에게
머늘자랑 딸자랑처럼 늘어놓는다오
살뜰한 그 처녀 진정어린 낚시대라고

정말 갖가지 상품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보다 더 마음 끌리는 처녀의 웃음!
하나를 사려면 열가지를 골라보며
열번을 물으면 열번을 웃으며
인민앞에 언제나 한자세로 서는 모습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그 모습은
온 구역이 아끼는 친절한 머느리감
온 구역이 사랑하는 살뜰한 판매원
아, 그래서 나도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남먼저 맞고싶은 마음이라오

허나 사람들은 다 모를거요
《주문대장》 찾기에 앞서
그 먼저 찾아간 집들은 얼마인지
총각이 정한 시간은 여기면서도
손님들과 한 약속을 위해
밤길 걸어 다녀온 공장들은 얼마인지

아, 나이는 어려도
우리 당의 높은 뜻 안고
행복의 꽃속에 피어나는
너의 웃음은 향기!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 거리의 꽃송이!

그래서 네 때없이 찾아가군한다오
비단결같은 그 마음
어머니같은 그 진정 그대로 담은
그 웃음이 고와...
그 웃음을 보려...

어느 일요일에

리철호

나는 이번 일요일을 맞으며 여러가지로 하루 계획을 세워보았다. 새로 이사한 누이네 집을 찾아볼가, 유희장으로 가볼가, 이미 무르익혀오던 수필의 초고를 써볼가, 아니면 그사이 밀린 잡지들을 보러 구역도서관에 갈것인가?...

결국 나는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가기로 작정하였다. 한해에 적어도 두세번은 찾아가던터였는데 이즈음에는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시간을 내지 못했었다. 감미로운 예술의 세계에 잠겨 휴식일을 보내는것도 좋을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미술박물관에 흐르는 정숙과 흥분의 물결속에서 나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하였다. 선명한 조선화들이 우선 마음을 끌었다. 나는 미술가의 필치와 안목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첫돌을 맞는 아기를 데리고 푸른 잔디밭에서 민들레씨를 날리는 녀인의 형상앞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푸른 하늘, 봄별이 넘치는 포근한 잔디밭, 우리 생활의 유족함과 행복을 담은듯한 아기의 탐스런 두볼, 어린애와 같은 천진한 세계에 잠겨 민들레꽃씨를 날리는 녀인의 티없이 아름다운 용모, 스쳐지날수 있는 평범한 세부에서 우리의 행복상을 포착하여 표현한 화가의 재치와 섬세한 필치에 감탄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 세계에 잠긴 나자신을 자각한다는것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황홀한 심경에 잠기어 미술작품들을 더듬던 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남으로 뻗은 철길이 뭉청 끊어지고 분계선표말이 박힌 그너머에는 잡초우거진 황량한 남녘의 들판이 컴컴한 하늘아래 누워있는 그림이었다. 그림은 불시에 확대되며 엄연한 현실로 눈앞에 육박해왔다. 나는 가슴에 커다란 충격을 느끼었다. 눈앞에 천만갈래의 불씨가 나는것 같았다.

우리 조국땅의 허리를 두동강내며 뿔어나간 원한의 분계선! 그너머에는 분별의 원흉인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고 놈들의 군화에 짓밟힌 남녘인민들의 처절한 비극의 력사가 오늘도, 지금이 시각에도 계속되고있지 않는가!

나는 그림앞에 서있는 근엄한 표정의 관람자들속에 서있노라니 그 어떤 시대적 의무감이 가슴을 활활 태우는것 같았다.

미술박물관에서 나온 나는 해별이 물위에 부서지며 뛰노는 대동강가로 걸어갔다.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물결과 더불어 행복한 우리 생활의 물결이 흐르고있는 강반, 갈매기 나래처럼 날씬한 유람선들이 가볍게 떠가고 선명한 봄철웃자

림의 근로자들이 거니는 이 기슭에서도 나의 가슴은 진정될줄 몰랐다.

조국통일의 절박한 과업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생활의 만족에만 잠겨있을수는 없을것이다. 지금도 분계선 저쪽에서 남녘겨레의 신음소리가 들려오고있지 않는가. 그가 누구든 조선사람의 심장을 지녔다면 민족분렬의 가슴허비는 현실을 외면할수 없으며 행복과 불행, 사랑과 증오, 환희와 분노, 웃음과 슬픔, 서로 랑립할수 없는 두 감정의 극단이 한가슴에서 소용돌이침을 느끼게 될것이다. 통일되지 못한 조국의 고통앞에서 개인의 완전한 행복이 있겠는가! ...나의 생각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지금껏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유감없이 바쳐왔다고 생각하였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있다고 자부하여왔다. 그러나 나의 사생활의 분과 초, 하루하루의 일과와 여가시간, 무심히 짚어가는 걸음걸음이 우리 세대의 가장 절박한 과업-조국통일의 길과 직접 잇닿아있다고 생각하여왔던가. 내가 유보도의 고르로운 포석을 밟으며 퇴근길에 올라 하루의 보람찬 로동을 총화지을 때에도, 친근한 동무와 정답게 속삭일 때에도 분계선표말은 여전히 이 강토에 비극의 선을 굶고있으며 미제에게 짓밟힌 남녘동포들의 피라는 부르짖음이 그칠줄 모름을 매번 자각하였던가.

미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선이 분렬된 때로부터 벌써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북으로 갈라져 생사조차 모르는 혈육들의 검은 머리가 희여지고 또한 그 후대들이 분렬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자라나고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식민지 명에 치운 남녘의 인민들은 도탄속에 쓰러져가고 그 불모의 땅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피워올리는 전쟁의 불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있다. 이 나라의 산천초목에 한돌기, 또 한돌기의 년륜이 감길수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분렬의 상처가 더욱 깊이 패이고있다. 한초한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렬의 력사, 비극의 력사가 한페지, 또 한페지 번져지고있다.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 우리 세대의 두어깨에 지워져있음을 한시도 망각할수 있겠는가!...

나는 두어깨에 묵중하게 실리는 세대의 의무감을 느끼며 천천히 강변을 걸었다.

눈앞에 펼쳐진 낮익은 풍경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안겨온다. 완공의 날을 앞에 두고 건설을 다그치는 동평양대극장과 청년극장, 룡라다리와 우람한 경기장들, 솟아오르는 고층주택들이 웅장한 제 모습을 푸른 물결에 비추어보고있다. 벽찬 건설의 노래가 울리고있다. 어찌 평양뿐이라. 순천과 태천, 사리원과 청진의 건설장, ...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벽찬 음향이 울리며 200 일전투의 보람찬 나날이 흐르고있다. 조국

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대건설전투가 벌어지고있다.

조국의 숨결을 온몸에 느끼는 나의 가슴에는 새로운 열정과 뜨거운 피가 끓는다.

광복거리 건설장의 용접봉에 불꽃을 일굴 때에도 하루일을 마치고 창가에 앉아 습작의 펜을 들 때에도 나는 우리 세대의 의무를 느낄줄 알아야 하며 조국통일의 일념에 불타야 한다.

...고요한 일요일의 강변을 걷는 나의 가슴은 세찬 격동으로 맥박치고있다....

고전시 2 편

느낀바 있어

장유 (17 세기)

...

3

아름다운 옥이 돌속에 들었을 땐
여느 차돌과 섞여서 살았다네

어느날 옥 캐는 사람을 만나
다듬고 갈려서 나라의 보배 되었도다

그 옥 한없이 비싼 값을 받으나
벌써 돌의 성질은 잃어버렸구나

겉모양만 다듬으면 본바탕을 잃고
이름을 탐내다가 몸을 망치나니

밝은 사람은 군중들속에
섞여 사는것을 좋아하도다.

허수아비

윤락호

허수아비 막대기에 기대섰으니

새들이 의아해서 기웃거리네

헛된 이름은 오래 못가니라

오래 섰지 말라 거짓이 드러나리